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학위논문

대전 원도심 내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충남도청이전부지의 문화적 활용방안 및 계획

New Directions and Plans for Culturally Utilizing
the Site of Former ChungNam Province Hall,
in Association with the Existing Cultural Resources of the City Center of Daejeon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김 은 성

대전 원도심 내 지역문화자원과 연계 한
충남도청이전부지의 문화적 활용방안 및 계획

지도교수 황기원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김 은 성

김 은 성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2년 12월

위원장	조 경 진	(인)
부위원장	송 광 중	(인)
위원	황 기 원	(인)
초빙심사위원	박 순 현	(인)

대전 원도심 내 지역문화자원과 연계 한
충남도청이전부지의 문화적 활용방안 및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김 은 성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및
초빙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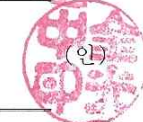
위 원 장

조 경 진



부 위 원 장

유 광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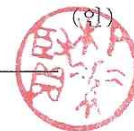
위 원
(지도교수)

홍 개 민



초빙심사위원

박 순 현



국문초록

대전의 원도심은 1905년 경부선 철도의 개설로 대전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도시를 태동시킨 경부선 철도를 따라 남북방향으로 전개되던 대전은, 1932년 충청도청이 공주에서 이 전해 옴으로써 동서방향으로 발전의 방향을 틀게 되었다. 그 후 대전역과 충청도청은 원도심의 중심부인 중앙로를 축으로 하여 도심의 발전을 이끌었고, 현재까지도 중앙로는 대전에서 중심 상업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둔산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원도심의 인구와 상권들이 이동하게 되었다. 1993년에 개최되었던 대전 EXPO는 둔산 신도시의 개발을 더욱 촉진시켰고, 교육청, 상공회의소, KBS방송국, 법원, 검찰청, 시청, 충청체신청 등 각종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원도심의 도심공동화 현상은 더욱 악화되었다.

본 연구는 침체되어 있는 대전 원도심의 재활성화를 위해 충청도청 이전부지의 문화적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충청도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전의 발전을 이끌어 왔고 미래에도 그 역사를 함께 이어갈 대표적인 문화 자산이다. 그러므로 충청도청의 활용은 단순히 물리적 재활용 측면에서만 계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담길 ‘자원’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였고 역사의 흔적인 근대시대 자원부터 전통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예술 문화까지 다양한 문화 자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충청도청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 자원을 연결해주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지역 문화와 시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소통 창구로서의 ‘지역문화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 공간으로 제안하다. 대전 원도심에서의 ‘지역문화

플랫폼’이란 어려운 제도들과 복잡한 중간 단계로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던 기존의 문화 단체의 단점을 개선하고 창작자와 소비자가 다양한 접점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의 도시재생은 문화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도시재생의 주요 매개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은 공간단위의 대상지에서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가 자생적으로 재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충남도청은 ‘지역문화플랫폼’으로써 다양한 문화 과정의 접점에 소비자들을 참여하게 하고 정서를 공유하게 하는 지역 문화 소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지역문화공간’으로써 문화로 재생하는 대전 원도심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
주요어 : 충남도청, 지역문화자원, 도시재생
학 번 : 2011-22342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제2절 연구 범위 및 구성	5
제2장 이론적 고찰	8
제1절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고찰	8
1. 지역문화자원 개념	8
(1) 지역문화의 개념	8
(2) 지역문화자원의 개념적 정의	9
2. 지역문화자원의 요소	10
3. 지역문화자원 활용의 중요성	11
제2절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12
1. 개념정립	12
2. 도시재생에서 문화의 도입	13
3. 문화공간의 역할과 중요성	15
4. 사례조사	16
(1) 대구 중구 근대역사문화유산거리 프로젝트	17
(2) 대학로 문화지구	18
(3) 아일랜드 더블린 템플바	20
(4) 영국 코벤트 가든	22
(5) 문화자산을 활용한 타이베이시의 도시재생정책	25
(6) 소결	27
제3장 충남도청 및 대상 공간 분석	28
제1절 근대건축물로서 충남도청	28
1. 충남도청 개요	28
2. 충남도청 건축적 특징	29

3. 충남도청 현황	30
(1) 건축물 현황	30
(2) 외부 공간 현황	45
4. 충남도청 주변 현황	47
제2절 대상 공간 분석	49
1. 인문 사회적 여건 분석	49
(1) 원도심 형성 역사	49
(2) 인구 변화	50
(3) 산업의 변화	52
(4) 문화자원	54
2. 물리적 여건 분석	57
(1) 공간 구조	57
(2) 교통 및 접근성	57
(3) 시설현황	58
(4)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60
제4장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 계획	62
제1절 계획의 개요	62
1. 기본방향	62
2. 기본구상	65
제2절 계획안 제시	66
1. 원도심 내부 지역문화자원 발굴	66
(1) 대흥동	67
(2) 은행선화동 및 중앙동	73
(3) 지역문화자원 종합도	80
2. 프로그램 계획	83
(1) 지역 문화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 기획 프로그램	83
(2)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프로그램 : 상설 프로그램	86
(3) 소결	88
3. 공간 활용 계획	90
(1) 목표 및 기대효과	90
(2) 건축물 활용 계획	91
(3) 외부 공간 활용 계획	95

(4) 종합계획도	102
(5) 모형 사진	103
4. 운영 관리 계획	104
(1) 브랜드 계획	104
(2) 운영 계획	106
(3) 지역 활성화 계획	108
제5장 결론	110
참고문헌	113
Abstract	115

〈표 차례〉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표 2-1 문화자원 분류표	10
표 2-2 문화관광부의 문화자원 분류표	11
표 2-3 사례1. 대구 중구 근대역사문화유산거리 프로젝트	17
표 2-4 사례2. 대학로 문화지구	18
표 2-5 사례3. 아일랜드 더블린 템플바	22
표 2-6 사례4. 영국 코벤트 가든	23
표 2-7 사례5. 타이베이의 도시재생	25
표 3-1 충남도청의 변화	28
표 3-2 충남도청 개요 공간적 범위	29
표 3-3 충남도청 본관 건축 현황	33
표 3-4 충남도청 신관, 의회청사 건축 현황	40
표 3-5 충남도청 외 건축 현황	43
표 3-6 충남경찰청 건축 현황	44
표 3-7 공공기관 이전현황	50
표 3-8 대전시 인구변화 추이	51
표 3-9 대전시와 동구, 중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현황	52
표 3-10 대전시와 동구, 중구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53
표 3-11 대전시와 동구, 중구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54
표 3-12 대전시와 동구, 중구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56
표 4-1 대흥동 지역문화활동 ‘대흥동립만세’	71
표 4-2 은행선화동 지역문화활동 ‘닷찌플리마켓’	77
표 4-3 인터뷰 개요	81
표 4-4 건축물 배치 계획	94
표 5-1 연구의 한계점	111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5
그림 1-2 연구 흐름도	7

그림 2-1 도시재생의 발전 방향과 3대 키워드	14
그림 3-1 충남도청 실내	30
그림 3-2 충남도청 건축 년도	31
그림 3-3 충남도청이전부지 배치도	32
그림 3-4 충남도청 본관 1층 평면도	34
그림 3-5 충남도청 본관 2층 평면도	35
그림 3-6 충남도청 본관 3층 평면도	36
그림 3-7 충남도청 본관 정면도	37
그림 3-8 충남도청 본관 배면도	37
그림 3-9 충남도청 본관 좌측면도	38
그림 3-10 충남도청 본관 우측면도	38
그림 3-11 충남도청 본관 단면	38
그림 3-12 충남도청 신관 의회청사 층별 평면도	41
그림 3-13 충남도청 동선 현황	46
그림 3-14 충남도청 주변 현황도	48
그림 3-15 대전부약도내 나타난 가로망을 그린 지도	49
그림 3-16 원도심 내 중앙로 일대 대중교통 현황도	58
그림 3-17 중앙로 지상, 지하 시설용도 현황	59
그림 4-1 계획의 기본방향	63
그림 4-2 계획의 구상도	65
그림 4-3 대흥동일대 지역문화자원 분포도	68
그림 4-4 대흥동일대 지역문화자원 거점도	70
그림 4-5 대흥동 문화자원 활용방안 구상(안)	72
그림 4-6 은행선화동 도시환경정비구역	73
그림 4-7 은행선화동 지역문화자원 분포도	74
그림 4-8 중앙동 지역문화자원 분포도	76
그림 4-9 은행선화동 문화자원 활용방안 구상(안)	79
그림 4-10 대전 원도심 지역문화자원 종합도	82
그림 4-11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요	84
그림 4-12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기획프로그램(안)	85
그림 4-13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프로그램 개요	86
그림 4-14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안)	87
그림 4-15 프로그램 종합도	89
그림 4-16 공간 활용 계획의 목표와 기대효과	90
그림 4-17 충남도청의 새로운 성격	92

그림 4-18 도입기능 및 시설	93
그림 4-19 지역문화자원 분포 그래프	93
그림 4-20 Master Plan	95
그림 4-21 동선계획	96
그림 4-22 식재계획	97
그림 4-23 단면도	101
그림 4-24 모형사진	103
그림 4-25 충남도청의 새로운 브랜드 도출	105
그림 4-26 충남도청의 새로운 운영 체계	107
그림 4-27 지역 활성화 계획	109
그림 5-1 문화공간의 역할	11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목적

대전의 중심시가지(이하 원도심으로 기술함)는 1905년 경부선 철도의 개설로 대전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도시를 태동시킨 경부선 철도를 따라 남북방향으로 도시가 형성되었던 대전은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이전해 오으로써 동서방향으로 발전의 방향을 틀게 된다. 도심 형성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역과 충남도청은 중앙로 축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 축을 중심으로 지금은 근대건축물이라 불리는 대전시청(후에 상공회의소, 현재 삼성화재로 사용), 대덕군청(현 삼성생명 자리), 대전문화원(과거 시민관, 현재 갤러리아백화점 자리), 재판소 등의 행정시설, 한국은행(철거됨), 산업은행, 제일은행 등의 금융시설은 물론 병원, 약국, 다방에 이르기까지 도시생활을 위한 시설들이 밀집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당시 중앙로 일대에 재래시장이 7개 이상 밀집해 있어 막대한 크기의 상권을 짐작할 수 있었고, 1990년 중앙로 지하상가가 완공되면서 중앙로는 역사적으로, 입체적으로 명실상부한 대전의 상징적인 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둔산 신도시 개발을 시작으로 원도심의 인구와 상권들이 이동하게 되었고, 1993년에 개최되었던 대전 EXPO는 둔산 신도시의 개발과 원도심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더욱 촉진시켰다. 둔산 신도시는 고층의 아파트와 격자형 가로망 그리고 대규모 상가를 갖춘 고급상업지역으로 대전 각지로부터 인구와 시설을 유인하였다. 특히 원도심에 입지하고 있는 교육청(1993), 상공회의소(1995), KBS방송국, 법원, 검찰청(1998), 시청(1999), 충청체신청(2002) 등 각종 행정기관의 이전과 그에 따른 주변 671개 관련 기관의 연쇄적인 이전은 원도심

지역 전체에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야기 하였다.

원도심 활성화는 1990년대 말 이후 대전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대전 원도심에 ‘오느정이 문화의 거리’를 비롯하여 15개소에 총 길이 6,770m의 특화거리가 조성되는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학계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대전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충청도청이 2012년 말 내포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되면서 대전 원도심의 위기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도청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함에 있어 상업, 업무기능과 함께 도시 활동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이전은 필연적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를 유발하게 되고, 그 변화과정에서 도심기능의 쇠퇴나 도심활력 저하와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지방행정의 제도적 환경으로 인하여 도청사의 이전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그로인해 남게 되는 이전 적지의 활용은 다시 대전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는데 적합한 용도로 활용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전 원도심의 재활성화를 위해 충청도청 이전부지의 문화적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충청도청은 대전의 도시형성과 더불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물리적 기록체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충청도청 이전부지를 근대건축물로서의 충청도청의 건축적 가치를 인식하고 대전 원도심의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지역 문화 공간으로의 활용을 제안 한다. ‘문화 공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간’이 아닌 ‘문화’이다.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고 시민들과 밀착된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어떤 계획된 콘텐츠 보다 견고한 지역 문화 자원을 ‘문화’ 요소로 활용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지역 문화와의

소통 뿐 아니라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광역적으로 도심 재생의 중심점이 되는 지속 가능한 문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충남도청의 이전계획은 이미 몇 해 전 부터 공론화 되었고, 그에 따라 이전부지의 활용에 대해 각 분야의 연구가 선행된 바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복합문화공간, 박물관, 쇼핑센터, 미술관 등의 계획안을 제안하였고, 아직까지 어떤 용도로 활용될지에 대한 사항은 정해진 것은 없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안은 ‘지역문화공간’ 으로의 활용이다. 기존의 연구 중에 ‘복합문화공간’ 으로의 활용 계획과 연구의 거시적인 목적은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계획안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명확히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기존의 선행 연구 중에서 ‘국립박물관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초 연구(2009)’ 와 비교하여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와의 첫 번째 차별성은 문화공간의 콘텐츠에 대한 고려이다. 기존의 연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청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지만, 복합문화공간을 이루는 구체적인 문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즉, 건축적 측면에서 충남도청의 가치에 집중하여 물리적 공간의 활용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물리적인 공간의 활용에 앞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계획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화 자원과, 문화 활동에 집중하였다. 이에 물리적인 개념의 문화 공간의 제안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연계하여 지역과 밀착된 ‘지역문화공간’ 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하겠다.

두 번째 차별성은 연구 방법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고려

의 여부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구 방법도 달라진다고 하겠다.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 모두 문헌조사, 설문조사, 사례조사, 현장조사 크게 네 가지의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대상과, 사례조사 선정에 대한 기준에 차이점이 있다. 기존의 연구는 등록문화재로서의 충남도청의 건축적 가치와 대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적인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주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례 선정 역시 역사적 건축물의 문화 공간 활용을 기준을 삼았다. 이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지역과 밀착되어 작동되는 문화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 자원을 조사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활동가들을 위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문화콘텐츠에 대한 고려	연구방법
선행 연구 국립박물관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초 연구 (2009)	건축적 측면에서 충남도청의 가치에 집중 + 물리적 공간의 활용 방안에 초점 복합문화공간으로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	설문조사 : 전문가집단 사례선정기준 : 역사적 건축물의 문화 공간 활용을 기준
본 연구 대전 원도심내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문화적 활용 방안 및 계획 (2013)	물리적인 공간의 활용에 앞서 실질적 으로 작동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계 획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화 자원과, 문화 활동에 집중	설문조사 : 지역문화활동가 사례선정기준 : 도시재생을 경험함에 있어 지역문화자 원을 활용하여 문화적 방안으로 재생 한 사례

또한 사례 선정은 ‘도시재생을 경험함에 있어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적 방안으로 재생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기존의 연구의 건축물 위주의 접근과 달리 범위를 면적으로 확대시켜 도시 차원의 사례를 참고 하였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구성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근대도시로서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던 경부선 개통(1904년)을 시점으로 1932년 충남도청의 이전과 지금 원도심이 쇠퇴하기까지의 도시변화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 권역 내 도심의 중심부인 중앙로 인접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분석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에 대한 변화를 파악 한다.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남도청과 중앙로를 중심으로 대홍동과 은행선화동은 양편에 형성된 다섯 블록, 중앙동은 중앙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구역은 1990년대 이후 대전역과 대전천 사이에 새롭게 형성된 상업지역(현재 중앙동에 속하는 중앙시장 일대)과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행정 기능의 중심지역이 서로 교차하며 형성된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행정구역상 중구와 동구에 해당하며 중구 법정동인 대홍동과, 행정동인 은행선화동, 동구의 행정동인 중앙동이 포함 된다.

외곽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도심기능의 이전과 원도심의 쇠퇴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더구나 한국 도시는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원도심의 쇠퇴문제가 도시의

규모에 관계없이 광범위 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대전광역시 역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가장 역점에 두고 추진하고 있고 학계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원 등에서도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와 시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 관한조례’를 제정과 200여건이 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정책효과 외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예상하기 힘든 실정이다.¹⁾

본 연구는 대전 원도심의 재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청이전부지의 문화적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충남도청이전으로 인해 대전 원도심은 더욱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오히려 이전부지의 활용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원도심이 지니고 있던 물리적 기록과, 사회적, 문화적 자원을 분석하여 다시한번 도심 활성화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거점이 되도록 계획안을 제시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흐름에 따라 진행한다.

제 1장은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 및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2장은 이론적 고찰로서, 도시재생과 지역 문화 자원에 대해 알아본다. 현재 대전 원도심이 처해있는 모습과 연계된 도시의 쇠퇴, 도심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해결 방안으로서의 도시재생과 도심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살펴본다. 또한 ‘지역’과 ‘문화 자원’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고 지역 문화 자원이 지니는 가치와 그 유형에 대해 고찰 한다.

제 3장은 충남도청 및 대상 공간에 대한 분석으로 충남도청이 지니고 있는 과거 역사적, 장소적 가치를 도시적인 맥락에서 분석하고 등록문화재로서 건축적 특징을 파악한다. 또한 중앙로를 중심으로 양편에 형성된 다섯 블록을 중심으로 공간구조 및 시설 현황 등에 관한 물리적 분석을 진행하고, 원도심이 지니고 있는 역사와 전통, 사람, 문화 등 인문 사회적 여건을 분석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1) 임병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심기능 회복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2005.), p.57.

분석하여 계획의 여건을 파악한다.

제 4장은 충남도청이전적지 문화적 활용 계획으로,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기본구상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문화 공간 활용을 위한 ① 원도심 내 지역 문화 자원의 분석 및 발굴을 하고, 지역 문화 활동의 주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 전체의 문화 지형을 파악한다. ② 파악한 지역 문화 자원들과 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기간, 대상, 자원에 따라 그에 맞는 프로그램의 기준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지역 문화와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 ③ 도입 프로그램과 연계한 공간 활용 계획을 제시한다. 주로 외부공간에 대한 상세 계획으로 물리적, 사회적으로 장애가 없는 공공을 위한 쉼터이지 문화 교류의 장이 되도록 조성한다. ④ 지역 사회의 문화를 대변하는 곳으로 자리 잡고, 지속 가능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제시한다.

제 5장에서는 제시한 계획의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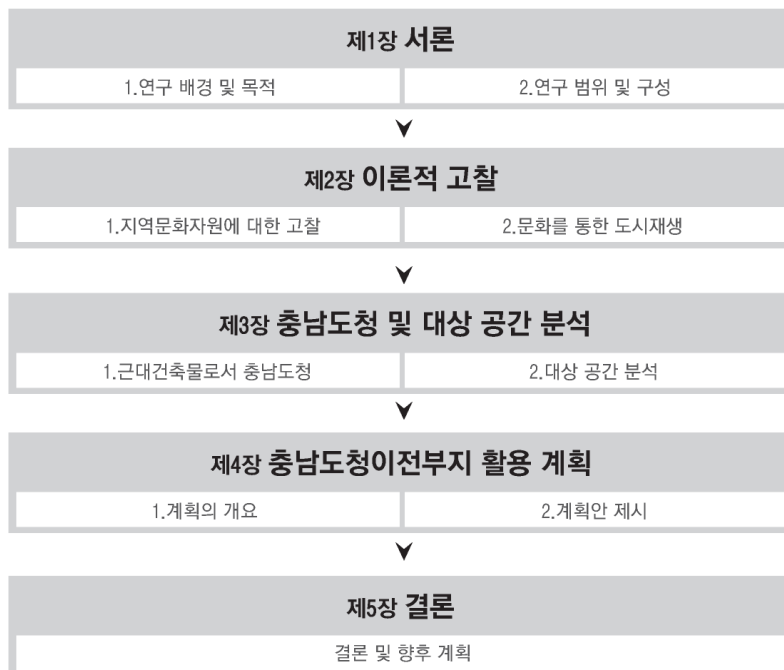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 흐름도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고찰

1. 지역문화자원 개념

(1) 지역문화의 개념

지역과 문화는 개념이 광범위한 만큼 실질적인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다. 특히 문화는 본질적으로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지역적으로 특수성을 지니고 오랜 시간 끊임없이 변하며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지역(Region)이란 구조적으로 종합성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독자성을 지니며 역사적으로 어떠한 응집력을 가진 국토의 부분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지역은 어떤 공통적 또는 상호보완적 특성을 가졌다거나 혹은 광범위한 지역 활동의 흐름으로 묶인 지리적으로 연속된 공간범위를 의미한다.²⁾ 이러한 지역은 규모면에서 확정적이지 않고, 가치와 제도, 그리고 활동 면에서 동질적이며, 특성상 외부 지역과 구별된다. 그리고 지역은 내부적 결집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이 등장하기도 하고, 기존의 지역이 사라지기도 한다.³⁾

또한 지역을 ‘Region’의 개념보다는 ‘Community’⁴⁾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지역 사회의 개념을 지리적, 행정적 경계선에 의한 구분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지역을 독특한 물적,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 또는 다른 공동행위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각 지역은 자기만의 고유

2) 김민향, 지역문화자원을 통한 축제 개발과 지역 활성화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10, pp.22-23.

3) 심응섭, 한국의 지역문화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2005, p.9.

4) 전병태, 『커뮤니티 아트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p.11.

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정체성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을 ‘Community’의 개념으로 이해했을 경우 더욱 의미적으로 견고해지며, 연구자가 정의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의 ‘지역’ 역시 ‘Region’보다 ‘Community’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홍대 문화’를 말할 때 홍대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형성된 문화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우리 인식하고 있는 ‘홍대 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홍대 일대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점유하고 축적해 온 다양한 경험들의 결과로 생겨난 인식과 가치인 것이다. 즉, Community로 인해 형성된 문화가 ‘홍대 문화’인 것이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란 단순히 ‘Region’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형성된 문화 이외에 오랜 시간 역사적, 문화적 토대위에 사람들의 경험과 신념, 인식, 가치의 축적으로 형성된 ‘Community 문화’를 함께 포함하여 ‘지역 문화’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다.

(2) 지역문화자원의 개념적 정의

문화자원은 일반적으로 문화의 근거가 되는 유·무형의 재료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듯, 문화자원의 범주 역시 광범위하다. 찰스 랜들리(Charles Landry)는 “문화자원은 도시와 그 가치 기반의 원자재이고 석탄과 철강 또는 금을 대신할 수 있는 자산이다. 문화자원의 세계가 열리면서 모든 지역이 자신만의 독특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역사적·산업적·예술적 유산과 더불어 ‘무(無)에서 무언가 창조’하는 것 역시 문화자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⁵⁾

문화자원에 대한 가치 판단은 광범위한 ‘문화’의 개념처럼 시대와 시간, 지역과 장소, 종교와 가치관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고, 계속 변화할 수 있다. ‘지역

5) 설연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전략 연구,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pp.13-14.

문화'의 개념과 '문화 자원'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지역문화자원'이란 지역과 문화의 가치를 인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여야 하며, 단시간이 아닌 오랜 시간 경험과 가치에 따라 정립되는 것이다. 또한 장소, 지역, 공간을 바탕으로 보존, 발굴, 활용 등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랜 시간 그 곳에 머문 사람들의 경험과 인식이 반영 되고, 보존, 발굴, 활용의 측면에서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유·무형의 여러 자원을 '지역문화자원'이라 정의 할 수 있다.⁶⁾

2. 지역문화자원의 요소

일반적으로 문화자원은 유형문화자원(Visible Cultural Resources)과 무형문화자원(Invisible Cultural Resources)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유형문화자원은 하나의 현상으로서 시각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무형문화자원은 반대로 시각을 통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자원이다.

표 2-1 문화자원 분류표

문화자원	유형문화자원	역사문화자원(민속자료, 기념물 등)	인적 문화자원 비인적 문화자원
		문화시설자원(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	
		인공경관자원(건축물, 문화광장 등)	
	무형문화자원	특징 유명인물과 관련된 자원	
		무형문화재(연극, 음악, 공예기술 등)	
		문화프로그램(축제, 전시, 공연, 각종 문화행사,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등)	

자료 : 남치호, 문화자원과 지역정책, 대왕사

하지만 문화자원의 범위가 광범위 한 만큼 문화자원의 범주에 따라서 각 단체마다 다른 기준으로의 문화자원 분류도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전통문화자원, 종교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관광문화자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은 문화관광부의 분류체계를 보완하여 주제별 대분류를

6) 남치호, 『문화자원과 지역정책』, (대왕사, 2007), p.26.

①종교신앙 ②학술예술 ③생활민속 ④정치군사 ⑤산업경제 ⑥자연 ⑦종합의 7가지를 제시하고 형태적 분류기준으로 ①인물 ②동식물 ③문화행사 ④축조물 ⑤유적사적지 ⑦시설물 ⑧전적 회화류의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⁷⁾

표 2-2 문화관광부의 문화자원 분류표

대분류	전통문화자원	종교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관광문화자원
중분류	민속,문화,설화,관혼,상제	불교,유교,기독교,천주교,기타	문학,음악,미술,공연,기타	행정,교육,산업,의료,교통,통신,체육,레저	유물,유적,명승지,특산물

문화자원의 분류는 도시의 문화 인프라의 체계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많은 도시들이 미래상으로 ‘문화 도시’를 내걸고 저마다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DB(Data Base)화 하는 작업을 보더라도 ‘문화’가 지닌 힘을 짐작 할 수 있다. 다만 문화 자원을 분류할 때 이미 제시되어 있는 기준에 한정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기준’을 제시하여 문화 자원의 요소를 분류한다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고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된 문화 콘텐츠가 형성될 것이다.

3. 지역문화자원 활용의 중요성

지역문화자원의 활용은 우리사회에서 현재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감소시대, 2018년부터 예상되는 고령화 사회, 현재 진행되고 있는 1,2인 가구의 급증과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뿐만 아니라 전통적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경제구조로 변환, 경제성장률과 개인소득 증가율의 하락, 경제활동인구의 노령화, 소득양극화와 같은 경제적 여건변화는 도시개발수요와 공급이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된다.⁸⁾

7) 남치호, 『문화자원과 지역정책』, (대왕사, 2007), pp.27-30.

이러한 변화로 지금 시대는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 보다 기존의 사회, 경제, 문화적 유무형 자산의 활용을 요구한다. 또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커뮤니티 활력 증대와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 번째 원칙은 지역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다. 대부분 지역문화자산의 활용은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거나, 물리적 노후화로 도시재생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논하게 된다. 재생이 필요한 지역일수록 지역 곳곳에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문화 자원들이 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역의 숨은 자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 원칙은 융통성 있는 관점이다. 지역문화자산을 규정하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면 어떤 것이든 지역문화자산이 될 수 있다는 융통성 있는 관점이 있어야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문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지역문화자산의 발굴과 그에 대한 활용은 반드시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는 것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유의 정서이다. 그러므로 문화를 형성해 온 사람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수반되어야만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제2절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1. 개념정립

8) 이왕건외 5인,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 2011), p.9.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이란, 일차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과 자원을 결합한 지역 산업육성,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적이며 친환경적인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개발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지역개발의 테마로서 문화는 단지 예술적 차원에 국한된 협의의 문화가 아니라 예술적 차원을 포함한 인간의 욕구 차원까지로 확대된 개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는 예술성과 더불어 쾌적성, 경제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의 도시재생은 문화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도시재생의 주요 매개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 정보, 네트워크, 아이디어, 창의성으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문화는 산업적 경제이익을 획득하여 국가 전체의 부에 공헌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조류에 의해 다양한 분야와 상호 교류 하면서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다.

따라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은 공간단위의 대상지에서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가 자생적으로 재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문화를 통한 관련 산업이 파생되어 지속적인 발전이 유지되고 새로운 문화의 발현으로 자생적인 유지가 가능하게 하는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에서 문화의 도입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는 시대가 도래 했다. 경제 성장에 따른 도시화의 진전과 신흥국의 도시인구 증가에 힘입어 2030년경에는 세계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도시는 무한히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 쇠퇴의 징후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삶의 터전으로서 매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과거 도시재생은 행정 당국이 주도해 전면 철거 후 재건축하는 방식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에는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는 식의 단순한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었다면, 지금은 지역의 경제와 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단기적으로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계획을 통해 접근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매개로서 ‘문화’가 주요 요소로 이용되고 있다.

도시재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큰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하드웨어의 개선으로 도시는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보이지 않은 요소가 함께 네트워킹 되어야 견고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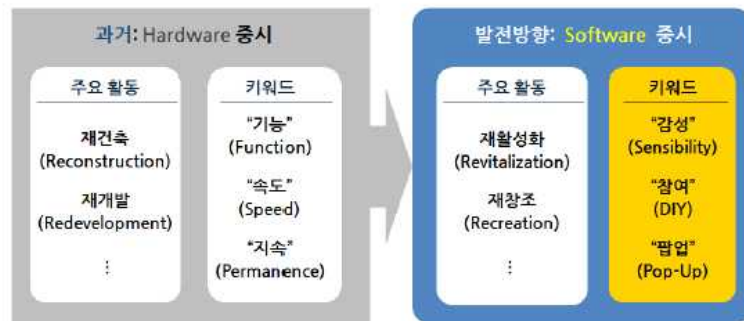


그림 2-1 도시재생의 발전 방향과 3대 키워드

자료 : 박강아, 부활하는 도시의 비결, 도시재생,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영노트

도시재생의 요소로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이를 생산에 내는 인적 자본이 자산이 되고, 한때 최고, 최대를 내세우던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통한 재생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층 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⁹⁾ 또한 도시재생을 신속하게 실행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9) Plaza.B, "The Return on Investment of the Guggenheim Museum Bilbao,"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0(20), pp.459-461.

지역의 커뮤니티의 요구가 부각되면서 주민들의 의사와 참여가 중요시 되고 있다. 지자체 역시 지역사회 재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의 동향이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매개로 ‘문화’가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를 파악하고 그 가치를 발전시켜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시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지역의 발전을 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문화공간의 역할과 중요성

문화공간은 문화예술의 측면에서 창조의 마지막 단계가 완성되는 공간이자 발전의 기초가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대중과 호흡하는 소통의 영역이 되기도 한다. 문화예술 창조의 주체와 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근원 역할을 하는 만큼 문화사회 발전의 기반이 되는 공간으로, 이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기능이 연계된다.¹⁰⁾

문화공간은 지역사회의 결속과 지역 주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매개로서 작용한다. 사회적 공통의 정서와 의미의 공유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문화공간은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넘어 사람들에게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한 중요한 장소로 인식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의 축적으로 자연스럽게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의 핵심 문화 거점으로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은 시민들 간의 공통의 정서를 형성 한다. 이는 지역을 문화적으로 변용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측면이 도시

10) 김관희, 문화공간의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공간의 다변화 현황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08, pp.8-9.

재생에 있어 문화공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례조사

기존 산업의 쇠락이나 부정적인 도시이미지의 개선, 혹은 가치 높은 유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등 다양한 요인이 도시재생의 배경이 되고 있다. 과거의 도시재생이 “하드웨어” 측면인 재건축, 재개발에 초점을 맞춰 도시의 기능 향상과 행정 속도를 중시하며 입지 선택에 다소 경직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최근의 도시재생은 “소프트웨어”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문화예술과 역사 등 감성적인 요소를 인구와 산업의 유인 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게 되면서 주민의 참여 범위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¹¹⁾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의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지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 전통, 사람, 가치 등 ‘지역 문화’가 매개가 되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사례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과정에서 새롭게 조성된 건물(공간)을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이전의 쇠퇴된 건물이나 공공건물의 이전 부지 등을 역사적 자원을 이용한 사례

2. 도시쇠퇴로 노후화 된 특정시설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쇠퇴나 도시 내 일부지역의 쇠퇴를 경험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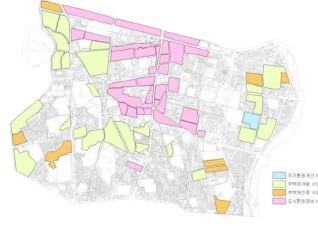
3. 도시재생의 과정에 전통, 역사, 시민, 지역 커뮤니티 및 지역의 문화자원이 함께 연계되어 적용된 사례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를 선정하였다.

11) 박강아, 『부활하는 도시의 비결, 도시재생』 (삼성경제연구소, 2012), p.2.

(1) 대구 중구 근대역사문화유산거리 프로젝트

표 2-3 사례1. 대구 중구 근대역사문화유산거리 프로젝트

대구 중구 근대역사문화유산거리 프로젝트																					
도시재생배경	<p>중구는 대구광역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며 대구 상권의 중심지이자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이 산재된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이다. 면적은 7.06km²로 대구시 전체 면적의 약 0.8%에 불과하며 인구는 약 7만 8천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일어나는 도심이었으나 최근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개발 정책 등으로 상주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1985년 18만 3천 명이었던 인구가 2009년에는 7만 8천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p> 																				
사업추진과정	<p>중구의 경우 특정한 골목을 중심으로 한 투어 등이 시발점이 되어 여러 개의 골목이 가지는 특징과 장소성을 부각시켜 루트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이를 역사문화 벨트로 구축하는 등 중구 구도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과정으로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 style="text-align: center;">축발기 (출발) 2001 ▶</th> <th style="text-align: center;">활성화기 (성장)2007 ▶</th> <th style="text-align: center;">성숙기 (자립)2009 ▶</th> <th></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특정 구간 골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역사,문화자원 축적 동산동~계산동 골목 답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거리문 화시민 연대 창립</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지역 자산 조사 및발 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근대 골목길</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대골목 디자인 개선 사업</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자원 선적 연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벨트 구축 및 재생 사업</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대역사 문화벨트 구축</td> <td style="text-align: center;">도심재생사 업 추진</td> <td style="text-align: center;">▶ 자원 면적 연계</td> </tr> </tbody> </table>		축발기 (출발) 2001 ▶	활성화기 (성장)2007 ▶	성숙기 (자립)2009 ▶		특정 구간 골목	역사,문화자원 축적 동산동~계산동 골목 답사	거리문 화시민 연대 창립		▶ 지역 자산 조사 및발 굴	근대 골목길		근대골목 디자인 개선 사업		▶ 자원 선적 연계	벨트 구축 및 재생 사업		근대역사 문화벨트 구축	도심재생사 업 추진	▶ 자원 면적 연계
	축발기 (출발) 2001 ▶	활성화기 (성장)2007 ▶	성숙기 (자립)2009 ▶																		
특정 구간 골목	역사,문화자원 축적 동산동~계산동 골목 답사	거리문 화시민 연대 창립		▶ 지역 자산 조사 및발 굴																	
근대 골목길		근대골목 디자인 개선 사업		▶ 자원 선적 연계																	
벨트 구축 및 재생 사업		근대역사 문화벨트 구축	도심재생사 업 추진	▶ 자원 면적 연계																	
지역문화자원 유형	<p>중구는 1,000여 개에 달하는 골목과 대구읍성, 동산동 종교지, 계산성당, 이상화 시인 등 다양한 자원을 고루 보유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지역 문화 자원은 '골목길'이다. 현재 골목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자원간 연</p>																				

	계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핵심적 활용 지역 문화 자원	
	구조적자원	공간적자원 시설적자원
	문화적자원	역사적자원
	인적자원	사회적자원
		골목(1000여개) 남성로 한옥밀집지역 대구읍성터, 동산언덕, 동산의료원, 대구제일교회, 아담스 선교사 기념비, 스왓즈 선교사 주택, 챔니스 선교사 주택, 블레어 선교사 주택 등 대구 약령시 축제, 대구 약령시 전) 거리문화시민연대 현) 중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센터
지역문화자원 활용형태	<p>2002년 거리문화시민연대의 창립과 함께 대구의 숨겨진 문화와 명물을 알리고 시민들의 거리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이어 대구 중구 지역 골목들을 ‘대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 화 하기 위해 중구만의 축제를 만드는 ‘대구택리지 프로젝트’가 착수 되었다.</p> <p>2007년에는 역사골목을 명소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근대골목 디자인개선사업’이 추진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골목정비사업이 시작되었다.</p> <p>역사적 장소 개발을 통해 도심에 관광 명소화하고 도심지 및 주변 문화자원과 연결하여 상호 보완적 발전을 유도하며 ‘길’을 중심으로 한 근대역사 스토리텔링, 근대 이미지 재현, 친환경 디자인, 도심 골목투어 등을 시도하였다. 이는 대구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여 골목투어 루트가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되고 있고, 근대역사문화골목은 대구시의 대표브랜드지이자 기존에 없었던 대구시만이 가진 관광 상품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p>	

자료 : 이왕건의 5,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pp.101-113. 재구성

(2) 대학로 문화지구

표 2-4 사례2. 대학로 문화지구

대학로 문화지구	
대학로 발전 과정	<p>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대학로의 독특한 아우라가 형성된 것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생들의 문화와 관련이 깊다. 1975년 3월 서울대학교가 이전을 추진하고 1979년 이전이 완료되면서 서울대학교 건물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처음 학교가 빠지고 난 빈 자리는 대부분 주택공사가 인수해서 택지를 만들어 이 일대를 고급주택지구로 만들 생각이었지만, 서울시는 경제개발 우선 정책 속에서 미</p>

처 확보되지 못했던 문화공간을 조성하자는, 건축가 김수근을 비롯한 각계인사들의 뜻을 받아들였다. 이 시기는 경제발전에 대한 자부심을 도시 공간상에 가시화할 필요성과 여유를 서울시가 의식하게 된 시기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1979년 파랑새극장과 대학로 극장이 개관하고, 문리대 정원으로 쓰이던 공간이 마로니에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81년 문예회관 대극장과 소극장의 개관으로 민간소극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화시설들이 대학로에 들어서고마로니에공원을 둘러싸면서 문화예술의 중심이 된 문화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이전과 이후의 대학로의 발전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균관입지	1398	송교동 명명(동송동연원)	학문의 본신으로서 위치
공업전습소설립	1906		
대한의원 개원	1907		
경성제대 개교	1924		
서울대로 개명	1946		대학 공간화
서울대 이전추진	1975		
서울대 이전완료	1979	마로니에공원 조성 미술회관개관	우범지대화 김수근에 의한 문화적 공간개발
	1981	문예회관 개관	
도시계획안 시행		대학로 유동인구 확산	
대학로 명명	1985		
차없는거리 시행		소극장 확산 청소년 문화공간에서 일탈공간으로 변질	젊은 문화 공간화
차없는거리 중단	1989		
문화의 거리	1990	거리환경개선사업추진 마로니에공원 활성화	
	1991		
	1996	본격적인 소극장 밀집 상업적 연극 출현	공연 문화 공간화
		공연공간의 상업화 확산	
문화지구 지정 검토	2000		
		소비공간화로 인한 공연문화 위축	문화지구 조성
문화지구 지정 준비 착수	2003	예술관련 학과들의 대학로 이전 확산	
		↓	

문화지구 지정

서울시는 종로구와 더불어 지역의 문화적 분위기와 문화 활동 공간으로서 이미지를 지키고자 '문화의 거리' 를 지정하였고, 그 후 급속도로 유동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중 · 후반 공연장 밀집이 본격화되면서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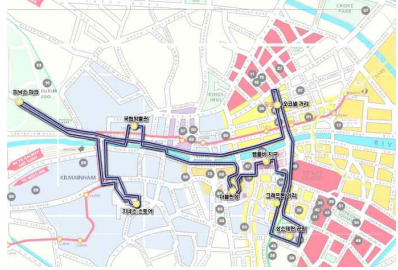
	<p>화지구 지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9년 <문화지구 조성 모델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서 인사동과 더불어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또한 대학로 문화지구조성과 관련하여 종로구청 문화진흥과에서 발제한 추진경위서를 살펴보면 대학로의 문화지구 지정 추진배경을 알 수 있다. 대학로에 각종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연극, 미술, 무용, 음악 등 각종 예술 문화 활동 활성화를 꾀하고, 위험, 퇴폐, 향락업소 등 비문화 시설 및 업종 진입을 억제하여 젊음과 문화의 거리인 대학로가 유흥 및 향락가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고, 공연예술의 진정한 메카로 육성·발전시키고자 대학로를 문화 지구로 조성하고자 하였다.</p>																	
<p>지역문화자원 유형 및 활용</p>	<p>대학로는 국내에서 공연관련시설과 콘텐츠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장소로 그 지역공간까지도 활용가치가 크고 문화적 필수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과 공공 교통 인프라, 각종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하는 문화 전달 플랫폼이 풍부한 지역이다. 관과 민의 계획에 의해 조성된 문화지구의 면모를 지니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역사적 자원들을 거점으로 연극, 소공연, 축제, 이벤트 등이 어우러져 지금의 대학로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p> <p>핵심적 활용 지역 문화 자원</p> <table border="1" data-bbox="523 1088 1299 1505"> <tr> <td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cccccc;">문화적 자원</td> <td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cccccc;">역사적 자원</td> <td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cccccc;">건물(성균관)</td> </tr> <tr> <td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cccccc;">가로</td> </tr> <tr> <td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cccccc;">사회적 자원</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관광적 자원</td> <td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cccccc;">오픈스페이스 (공원+광장) 문화시설 축제, 이벤트,</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인적 자원</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인적 자원</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역사적 유명인 (연극인, 배우, 건축가 등)</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경제적 자원</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기업체 자원</td> <td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cccccc;">정부의 지원(인적, 재정적, 프로그램적)</td> </tr> </table>	문화적 자원	역사적 자원	건물(성균관)		가로		사회적 자원	관광적 자원	오픈스페이스 (공원+광장) 문화시설 축제, 이벤트,		인적 자원	인적 자원	역사적 유명인 (연극인, 배우, 건축가 등)	경제적 자원	기업체 자원	정부의 지원(인적, 재정적, 프로그램적)	
문화적 자원	역사적 자원			건물(성균관)														
		가로																
사회적 자원	관광적 자원	오픈스페이스 (공원+광장) 문화시설 축제, 이벤트,																
	인적 자원	인적 자원	역사적 유명인 (연극인, 배우, 건축가 등)															
경제적 자원	기업체 자원	정부의 지원(인적, 재정적, 프로그램적)																

자료 : 이보희, 문화지구지정의 문화 및 장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학로 문화지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 대학원 pp.38-46. 재구성

(3) 아일랜드 더블린 템플바

표 2-5 사례3. 아일랜드 더블린 템플바

아일랜드 더블린 템플바

<p>개요 및 도시재생배경</p>	<p>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의 문화 지구인 템플바는 더블린을 가로 지르는 리페이(Liffey)강변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50개의 문화기관들이 모여 있는데 혁신적인 문화공간을 통해 현대예술을 제공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리페이 강변에 위치한 '템플바 문화 지구' 는 18세기까지는 복잡한 작은 가로와 골목길로 구성된 지역이었다. 18세기 재구성된 가로와 건물들이 현재의 템플바의 원형이 되었고 이후18세기에서 19세기 동안 상업과 목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전통산업의 쇠퇴와 교외화로 인해 도심과 템플바 지역은 침체되었다.</p> <p>http://driving2europe.tistory.com/(지도사진출처)</p> 						
<p>사업추진과정</p>	<p>1987년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템플바 지역을 기존의 역사적 건축문화 자산을 보존 유지하는 문화지구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들은 '템플바 발전 협의회(Temple Bar Development Council)' 를 결성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기관과 함께 템플바 지역을 문화, 관광, 레크레이션 지구로 개발하는 계획 방향을 제시하였다.</p> <table border="1" data-bbox="523 1077 1289 1585"> <thead> <tr> <th data-bbox="523 1077 778 1149">1차 (1991) ▶</th> <th data-bbox="778 1077 1034 1149">2차 (1996) ▶</th> <th data-bbox="1034 1077 1289 1149">3차 (2004) ▶</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23 1149 778 1585"> <p>지역 재생사업에 대한 건축설계경기 실시</p> <p>① 템플바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 ② 지역의연결성과 보행, 자동차 흐름 통제 ③ 토지이용 계획과 주거지 개발 ④ 기존 공공공간 개선과 확장 ⑤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p> </td> <td data-bbox="778 1149 1034 1585"> <p>역사유적지 발굴 조사를 바탕으로 재생사업</p> <p>① Project Art Centre ② 900호의 주택 개발 ③ 역사적 유적에 대한 혁신적 보존과 재사용 ④ 템플바의 미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존 재생사업 결과의 문서화, 평가, 기록</p> </td> <td data-bbox="1034 1149 1289 1585"> <p>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Urban Framework Plan 2004' 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문화지구 재생사업 실시</p> </td> </tr> </tbody> </table>	1차 (1991) ▶	2차 (1996) ▶	3차 (2004) ▶	<p>지역 재생사업에 대한 건축설계경기 실시</p> <p>① 템플바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 ② 지역의연결성과 보행, 자동차 흐름 통제 ③ 토지이용 계획과 주거지 개발 ④ 기존 공공공간 개선과 확장 ⑤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p>	<p>역사유적지 발굴 조사를 바탕으로 재생사업</p> <p>① Project Art Centre ② 900호의 주택 개발 ③ 역사적 유적에 대한 혁신적 보존과 재사용 ④ 템플바의 미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존 재생사업 결과의 문서화, 평가, 기록</p>	<p>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Urban Framework Plan 2004' 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문화지구 재생사업 실시</p>
1차 (1991) ▶	2차 (1996) ▶	3차 (2004) ▶					
<p>지역 재생사업에 대한 건축설계경기 실시</p> <p>① 템플바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 ② 지역의연결성과 보행, 자동차 흐름 통제 ③ 토지이용 계획과 주거지 개발 ④ 기존 공공공간 개선과 확장 ⑤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p>	<p>역사유적지 발굴 조사를 바탕으로 재생사업</p> <p>① Project Art Centre ② 900호의 주택 개발 ③ 역사적 유적에 대한 혁신적 보존과 재사용 ④ 템플바의 미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존 재생사업 결과의 문서화, 평가, 기록</p>	<p>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Urban Framework Plan 2004' 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문화지구 재생사업 실시</p>					
<p>지역문화자원 유형.</p>	<p>템플바 지역 재생사업의 초기 제안은 기존의 역사적 환경을 무시한 철거를 바탕으로 한 교통시스템 구축이었으나 지역 커뮤니티(특히, Temple Bar Development Council: TBDC)의 강력한 반대와 로비로 무산되었다. 이후 기존의 역사적 건축 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적 공간 활성화(animation policy)를 실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 중심의 문화지구 조성을 위한 재생사업 계획과 함께 주변의 문화적 자원에 대한 활용과 투자가 이루어졌다. 템플바 재생사업지역 지역 자원의 가장 큰 특징은 인접한 리페이 강변과 템플바 지구(district)의 역사적 가로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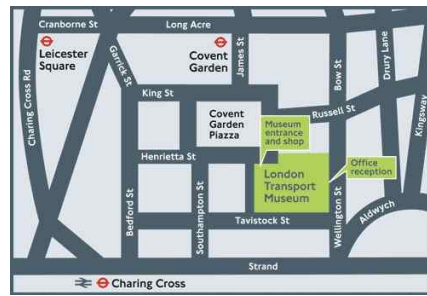
	<p>건축환경의 균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구조적 자산이 핵심자산으로 활용되었다.</p> <p>핵심적 활용 지역 문화 자원</p> <table border="1" data-bbox="523 510 1284 1126"> <tr> <td rowspan="6"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구조적 자원</td> <td rowspan="5"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공간적 자원</td> <td colspan="2">건물</td> <td>기존의 역사적 건물의 현대적 사용</td> </tr> <tr> <td colspan="2">가로</td> <td>역사적 가로의 접근성 향상과 전용 보행공간 조성(2004)</td> </tr> <tr> <td colspan="2">오픈스페이스 (공원+광장)</td> <td>템플바 내의 오픈시네마로 사용되는 광장</td> </tr> <tr> <td>역사적 유물</td> <td>역사적 건물 역사적오브제 역사적 장소</td> <td>역사적 가로의 보존을 통한 장소성 창출</td> </tr> <tr> <td colspan="2">경관</td> <td>리페이강과 템플바의 경계가 되는 수변지역의 역사적 경관을 최대한 활용</td> </tr> <tr> <td colspan="2">장소</td> <td>템플바 지역과 리페이강을 하나의 경관자산으로 인식</td> </tr> <tr> <td rowspan="2"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시설적 자원</td> <td colspan="2">조경</td> <td>수변로와 가로와 연계된 조경에 세심한 디자인과 투자</td> </tr> <tr> <td colspan="2">문화지구</td> <td>역사적인 리페이강과 템플바 문화지구와의 연계</td> </tr> </table>	구조적 자원	공간적 자원	건물		기존의 역사적 건물의 현대적 사용	가로		역사적 가로의 접근성 향상과 전용 보행공간 조성(2004)	오픈스페이스 (공원+광장)		템플바 내의 오픈시네마로 사용되는 광장	역사적 유물	역사적 건물 역사적오브제 역사적 장소	역사적 가로의 보존을 통한 장소성 창출	경관		리페이강과 템플바의 경계가 되는 수변지역의 역사적 경관을 최대한 활용	장소		템플바 지역과 리페이강을 하나의 경관자산으로 인식	시설적 자원	조경		수변로와 가로와 연계된 조경에 세심한 디자인과 투자	문화지구		역사적인 리페이강과 템플바 문화지구와의 연계
구조적 자원	공간적 자원			건물		기존의 역사적 건물의 현대적 사용																						
				가로		역사적 가로의 접근성 향상과 전용 보행공간 조성(2004)																						
				오픈스페이스 (공원+광장)		템플바 내의 오픈시네마로 사용되는 광장																						
				역사적 유물	역사적 건물 역사적오브제 역사적 장소	역사적 가로의 보존을 통한 장소성 창출																						
			경관		리페이강과 템플바의 경계가 되는 수변지역의 역사적 경관을 최대한 활용																							
	장소		템플바 지역과 리페이강을 하나의 경관자산으로 인식																									
시설적 자원	조경		수변로와 가로와 연계된 조경에 세심한 디자인과 투자																									
	문화지구		역사적인 리페이강과 템플바 문화지구와의 연계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문화자원 활용형태</p>	<p>기존의 지역 문화자산을 문화적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활용하였다.</p> <p>① 지역 자원과 문화 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의 강화. 템플바 문화지구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복합용도의 소규모 경제주체들을 집적시켰다. 그리고 재생사업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상업활동을 장려하여 근본적으로 소규모 경제를 활성화 시켰다. 특히, 지역 자원을 재생 사업과정에서 문화 산업과 연계시킨 것이 템플바 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p> <p>② 지역 자원의 24시간/7일 주간,야간 경제 연계를 통한 활성화. 템플바 문화지구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산업과 연계된 쇼핑, 외식, 공연을 비롯한 상업 활동들이 24시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활력 있는 야간 경제를 도모하였다.</p> <p>③ 물리적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보이지 않는 자원인 이벤트, 축제 발굴. 템플바 지역의 50여개의 문화기관이 있고 극장,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문화산업이 집중된 곳으로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이벤트와 축제, 비공식적 이벤트를 활성화 하였다.</p> <p>④역사적 지역 자원의 현대적 사용과 인적자본 유치를 위한 저임대료 템플바 지역의 초기 재생사업시 개보수가 많이 필요한 역사적 건물들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대신 건물의 개보수를 입주자가 하도록 하는 전략을 통해 많은 문화관련 기관을 유치하였다.</p>																											

자료 : 이왕건외 5,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pp.164-174. 재구성

(4) 영국 코벤트 가든

표 2-6 사례4. 영국 코벤트 가든

영국 코벤트 가든										
<p>개요 및 도시재생배경</p>	<p>역사적으로 ‘코벤트 가든’ 은 1세기인 로마시대부터 존재해왔으며 템즈강과 인접해 7세기에는 색슨족의 활발한 무역항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벤트 가든이란 명칭은 13세기 존 왕(King John)의 통치하에 수도원의 대규모 부엌에 속한 정원인 ‘콘벤트 가든(Convent Garden)’ 에서 유래하였다.</p> <p>현대적 개점의 코벤트 가든 도시재생사업과 이와 연계된 지역자원의 활용은 196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60년대 후반 코벤트 가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철거하려는 법령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대런던 협의회는 버려진 코벤트 가든 지역을 인수하여 호텔과 컨퍼런스 센터로 재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자원과 역사적 환경을 무시한 전면적인 새로운 개발계획은 강력한 공공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철거가 아닌 코벤트 가든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는 ‘재보수와 복원’ 형태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p> <p>http://railblue.egloos.com//(지도사진출처)</p>									
<p>사업추진과정</p>	<p>코벤트 가든은 코벤트 가든 내에 위치한 세인트폴 성당의 야채공급을 위한 가든에서 야채와 과일시장으로 변화해 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롭게 조성된 광장을 중심으로 한 야채와 과일시장에서 기존 역사적 환경을 보존하는 위주의 재생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이 주축이 되어 ‘Covent Garde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Guide’ 를 작성하게 되었다. 코벤트 가든의 역사적 자원으로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한 과정은 크게 6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3%;">1단계 ▶</th> <th style="width: 33%;">2단계 ▶</th> <th style="width: 33%;">3단계 ▶</th> </tr> </thead> <tbody> <tr> <td>건축환경 관련 자산 데이터를 구축</td> <td>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역사적 자산의 보존과 수리, 재사용 시도</td> <td>역사적 환경의 현대적 재활용에 대한 계획 수립</td> </tr> <tr> <th>4단계 ▶</th> <th>5단계 ▶</th> <th>6단계</th> </tr> </tbody> </table>	1단계 ▶	2단계 ▶	3단계 ▶	건축환경 관련 자산 데이터를 구축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역사적 자산의 보존과 수리, 재사용 시도	역사적 환경의 현대적 재활용에 대한 계획 수립	4단계 ▶	5단계 ▶	6단계
1단계 ▶	2단계 ▶	3단계 ▶								
건축환경 관련 자산 데이터를 구축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역사적 자산의 보존과 수리, 재사용 시도	역사적 환경의 현대적 재활용에 대한 계획 수립								
4단계 ▶	5단계 ▶	6단계								



	<p>역사적 자원이 만들어 낸 장소성, 정체성과 사람의 운집을 경제활동과 연계</p> <p>지역자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활용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p> <p>지역자산이 바탕이 된 성공적인 재생사업을 위한 유지,관리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p>

지역문화자원 유형	<p>코벤트 가든 재생사업에서는 문화적 자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코벤트 가든 지역의 역사적 자원(건물, 가로, 오픈스페이스, 역사적 유물)의 보존과 현대적 재사용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p> <p>핵심적 활용 지역 문화 자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rowspan="4" style="width: 20%;">문화적 자원</td> <td rowspan="4" style="width: 20%;">역사적 자원</td> <td colspan="2">건물</td> </tr> <tr> <td colspan="2">가로</td> </tr> <tr> <td colspan="2">오픈스페이스 (공원+광장)</td> </tr> <tr> <td style="width: 10%;">역사적 유물</td> <td style="width: 10%;">역사적 건물 역사적 오브제 역사적 장소</td> </tr> <tr> <td>사회적 자원</td> <td>인적 자원</td> <td>인적 자원</td> <td>역사적 유명인 (건축가, 코벤트 가든 소유가문)</td> </tr> </table>	문화적 자원	역사적 자원	건물		가로		오픈스페이스 (공원+광장)		역사적 유물	역사적 건물 역사적 오브제 역사적 장소	사회적 자원	인적 자원	인적 자원	역사적 유명인 (건축가, 코벤트 가든 소유가문)
문화적 자원	역사적 자원			건물											
				가로											
				오픈스페이스 (공원+광장)											
		역사적 유물	역사적 건물 역사적 오브제 역사적 장소												
사회적 자원	인적 자원	인적 자원	역사적 유명인 (건축가, 코벤트 가든 소유가문)												




지역문화자원 활용형태	<p>코벤트 가든 재생사업과정에서 지역문화자원의 활용 방식은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p> <p>① 디자인적 통제와 상세한 지침서를 바탕으로한 접근</p> <p>코벤트 가든이 조성한 역사적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재생사업과정에서 역사적 건물에 대한 고증을 근거로 기존 건물에 상세한 지침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재생사업지역과 주변지역의 현대적 재사용이 이루어지면서 역사적 환경을 그대로 재현 하도록 하였다.</p> <p>② 보존을 넘어선 현대적 재사용(활용방식)</p> <p>과거의 의미를 되살리는 현대적 마켓공간으로 변모하여 소규모 상점, 레스토랑, 카페, 선물가게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복합용도로 활용하였다.</p> <p>③ 도시 디자인과 연계된 접근</p> <p>역사적 가로와 광장, 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공공간에 대한 세심한 도심 디자인 차원의 연계는 성공적으로 공간을 브랜딩 하여 장소성을 최대한 부각시켰다.</p> <p>④ 역사적 자원과 관련한 이벤트와 프로그램 개발</p> <p>역사적 자원에 그 지역 커뮤니티의 문화활동과 사회활동이 모이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특징으로 코벤트 가든의 경우 오래된 마켓빌딩이 문화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역사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는 건물' 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p>
--------------------	---

자료 : 이왕건외 5,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pp.175-185. 재구성

(5) 문화자산을 활용한 타이베이시의 도시재생정책

표 2-7 사례5. 타이베이의 도시재생

타이베이의 도시재생																				
개요 및 도시재생배경	<p>타이베이시 문화국은 1990년대부터 ‘문화로부터 일상생활로’, ‘전통으로부터 현대화로’, ‘지역으로부터 세계로’ 를 내걸고 문화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거점사업’, ‘예술페스티벌행사’, ‘예술촌 조성에 의한 커뮤니티 개발’, ‘공공기관 이전적지의 도시공간 유산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타이베이시 도시재개발사업처는 이와 별도로 도시재생과 결부시켜 문화활동 기지를 만드는 프로젝트인 ‘도시재생전진기지’ 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사업은 대부분 시가지 내 공공기관 이전적지나 보전해야 할 근대 건축물 등 기존 도시공간 및 건축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p>																			
문화자산을 활용한 타이베이시의 도시재생정책	<table border="1"> <thead> <tr> <th>전략</th> <th>형태</th> <th>사례</th> </tr> </thead> <tbody> <tr> <td>문화거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생산과 소비의 혼합 •다른 시간대에 발생하는 복합적 활동 수용과 교육을 즐길 기회 </td> <td> 시먼홍루(四門紅樓) 문화와 창조산업파크 </td> </tr> <tr> <td>예술 페스티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스티벌 기간에 국내외 예술 거래 •페스티벌 장소에 공공미술을 창조하고 문화활동을 도입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이베이 영화 페스티벌 •타이베이 미술 페스티벌 •타이베이 어린이미술 페스티벌 •타이베이 변방미술 페스티벌 </td> </tr> <tr> <td>예술기지 조성을 통한 커뮤니티 개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 속에서 국내외 예술가들의 장기체류 예술촌 조성 •정부지원 비영리민간조직에 의한 문화와 비즈니스 활용성 결합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이베이 예술촌 •보장암 예술촌 •초산 예술촌 •도심부의도시재생전진기지(URS) •창조구역을 위한 타이베이 프로그램 </td> </tr> <tr> <td>도시공간의 유산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자산을 도시재생도구로 이용 •과거 향수를 불러일으키거나 역사적 장면을 연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재생 목표를 달성 •영화장면이 되도록 문화자산을 활용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피랴오 고건축물 역사 지구 •설탕산업문화공원 •사사남촌(四四南村) 군부대 이전적지 </td> </tr> <tr> <td>거대 프로젝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재생을 위한 거대행사추진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타이베이 국제화훼엑스포 •2011 IDA 회의 </td> </tr> </tbody> </table>		전략	형태	사례	문화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생산과 소비의 혼합 •다른 시간대에 발생하는 복합적 활동 수용과 교육을 즐길 기회 	시먼홍루(四門紅樓) 문화와 창조산업파크	예술 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스티벌 기간에 국내외 예술 거래 •페스티벌 장소에 공공미술을 창조하고 문화활동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이베이 영화 페스티벌 •타이베이 미술 페스티벌 •타이베이 어린이미술 페스티벌 •타이베이 변방미술 페스티벌 	예술기지 조성을 통한 커뮤니티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 속에서 국내외 예술가들의 장기체류 예술촌 조성 •정부지원 비영리민간조직에 의한 문화와 비즈니스 활용성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이베이 예술촌 •보장암 예술촌 •초산 예술촌 •도심부의도시재생전진기지(URS) •창조구역을 위한 타이베이 프로그램 	도시공간의 유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자산을 도시재생도구로 이용 •과거 향수를 불러일으키거나 역사적 장면을 연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재생 목표를 달성 •영화장면이 되도록 문화자산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피랴오 고건축물 역사 지구 •설탕산업문화공원 •사사남촌(四四南村) 군부대 이전적지 	거대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재생을 위한 거대행사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타이베이 국제화훼엑스포 •2011 IDA 회의
전략	형태	사례																		
문화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생산과 소비의 혼합 •다른 시간대에 발생하는 복합적 활동 수용과 교육을 즐길 기회 	시먼홍루(四門紅樓) 문화와 창조산업파크																		
예술 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스티벌 기간에 국내외 예술 거래 •페스티벌 장소에 공공미술을 창조하고 문화활동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이베이 영화 페스티벌 •타이베이 미술 페스티벌 •타이베이 어린이미술 페스티벌 •타이베이 변방미술 페스티벌 																		
예술기지 조성을 통한 커뮤니티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 속에서 국내외 예술가들의 장기체류 예술촌 조성 •정부지원 비영리민간조직에 의한 문화와 비즈니스 활용성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이베이 예술촌 •보장암 예술촌 •초산 예술촌 •도심부의도시재생전진기지(URS) •창조구역을 위한 타이베이 프로그램 																		
도시공간의 유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자산을 도시재생도구로 이용 •과거 향수를 불러일으키거나 역사적 장면을 연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재생 목표를 달성 •영화장면이 되도록 문화자산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피랴오 고건축물 역사 지구 •설탕산업문화공원 •사사남촌(四四南村) 군부대 이전적지 																		
거대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재생을 위한 거대행사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타이베이 국제화훼엑스포 •2011 IDA 회의 																		

<p>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p> <p>_예술기지 조성을 통한 커뮤니티 개발</p>	<p>예술가와 마을의 만남 : 예술촌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촌 조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베이 예술진주(藝術進駐, Arts-in-Residence Taipei)는 기존 커뮤니티 속에 만든 예술촌으로 타이완 예술가와 외국 예술가의 교류 및 지역커뮤니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됨 • 현재 타이베이시에는 타이베이국제예술촌(Taipei Artist Village: TVA), 초산(草山)국제예술촌(GAV), 보장암국제예술촌(THAV) 등 3개의 예술촌이 조성되어 있음 ■ 보장암국제예술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암지구는 대륙에서 건너온 피난민들이 하천변에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살던 곳으로 점차 거주자들이 노령화하면서 쇠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자들을 입주시킴 • 잔류희망 주민은 그대로 둔 채, 퇴거희망자는 타이베이시가 보상하여 이주시키고 남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토속적 생활풍경을 유지하여 예술촌 경관을 만들어냄 • 노령화한 잔류주민들과 새로 들어온 젊은 예술가들이 교류하면서 지역 사회 전체가 건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함 <p>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전진기지 만들기 (URS: Urban Regeneration St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공공건축물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전진기지로 조성 • URS13: 주석접시공장을 그대로 재사용하면서 여가와 공연을 위한 팝음악장소 등 다중이용공간으로 개조됨 • URS21: 1930년대 건축된 담배전매공사 이전적지로서 장소이미지를 지역의 상징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각종 전시공간으로 활용 • URS27: 1989년 철도지하화로 버려진 지상부의 철도플랫폼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대형녹색지대의 문화전시공원을 형성 • URS44, URS127: 청나라 시대부터 조성된 바로크와 모더니즘의 절충식 건물이 남아있는 디화가(迪化街) 전통시장거리(건어물과 약재상)를 보전하고 일부 건물은 매입하여예술전시공간으로 만듦(디화가의 77개 근대역사건물 중 44번지와 127번지 가게를 매입하여 갤러리로 사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e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바로크형 건축물을 보존하여 활용한 URS44</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거리와 직접 개방된 URS127</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URS127의 내부전시물로 남강대학 건축학과가 운영중</p> </div> </div>
---	---

자료 : 민법식의 1, 문화자산을 활용한 타이베이의 도시재생, 국토연구원, pp.5-6. 재구성

(6) 소결

국내외 사례들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 지역 문화 자원의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지침의 중요성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문화적 활용 계획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요건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 자원들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전개하고, 역량과 조직성을 갖춘 핵심적인 실행 조직이 필요하다. 두 번째, 지역 문화 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하기에 앞서 지역 문화 자원의 조사와 이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에서 현재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세 번째, 도시재생에 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핵심 문화 자원이 정해졌다면 이러한 자원을 장소 브랜딩으로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장소 브랜딩은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극대화하고 주변의 다른 유형의 자원들과 연계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네 번째 프로그램 발굴의 중요성이다. 물리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반영한 문화 자원과의 연계 프로그램은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시키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 이는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광역적으로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제3장 충남도청 및 대상 공간 분석

제1절 근대건축물로서 충남도청

1. 충남도청 개요

대전의 중심시가지는 1905년 경부선 철도의 개설로 대전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이 전해 옴으로써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원래 도청소재지였던 공주는 도청이전에 대해 격렬한 반대를 했지만 결국 도청이전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공주는 중소도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도청의 이전은 주변지역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 검찰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 입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은행,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집단판매시설 등도 자리하게 되었다. 이후 둔산 신도심의 개발로 기존도심의 인구나 상권이 둔산 지역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기존도심은 시설이전과 상권쇠퇴, 인구감소라는 연쇄적인 악순환을 경험하면서 대전시에서는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등을 지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표 3-1 충남도청의 변화



자료: “인터넷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812933
(검색일 : 2012년 8월30일)

현재 충남도청이전예정 부지는 중구 중앙로 155일원에 대지면적 29,770㎡의 규모로 충남경찰청과 함께 위치하고 있다. 현재 충남경찰청은 둔산 신도심으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일반상업지구에 속해있는 충남도청은 2002년 5월 31일, 본관 1,2층 4,799㎡가 등록문화재¹²⁾ 제 18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1931년 6월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이 발표가 된 후 이듬해 5월 30일 1년도 채 안된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되었다. 공사는 일본 건설회사 스스키사에서 맡아 시공하였고 건축양식은 아치형 현관의 벽면들을 요철모양으로 파내어 장식적 요소를 가미하여, 건물 자체에 조형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건물의 하중을 받치는 기둥과 기단의 각은 곡선 처리하여 유연성을 살리고 있다. 당시 유행한 스크래치 타일이 사용된 점등에서 1930년도에 중공 된 평안남도 도청과 유사하다.

표 3-2 충남도청 개요 공간적 범위

위치	중구 중앙로 155일원
설계	조선 총독부 영선계
시공	일본 건설회사 스스키사
대지면적	29,770m ² (소유자별: 충남도청 25,456m ² + 경찰청 4,314m ²)
건축연면적	37,570.99m ² (충남도청 26,85.68m ² + 경찰청 11,385.31m ²)

2. 충남도청 건축적 특징

본관건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고전적 배치의 ‘ㄷ’ 자의 대칭적 구성을 이루며 가운데 중정을 이루고 있다. 입면의 전체적인 구성은 하대(Socle)위에 벽체를 올려 놓고 지붕부분에 벽돌로 코니스(Cornice)를 수평으로 돌려주어 전체 입면에 안정성을 주고, 창, 출입구, 층 사이 중간띠 등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하는 르네상스 양식의 벽면으로 되어있다.¹³⁾

1991년 건물 외부에 붙여진 문양이 조선총독부를 상징했던 오동나무 꽃문양이라는 주장에 의하여 일부 철거되기도 하였으나, 정사각형을 엮 비켜서 8각으로 나타내어 원과 2등변 세모꼴을 배열한 단순한 문양이라는 의견으로 그대로 존치되었다.

12) 등록문화재 : 근대문화유산 중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한 문화재

13) 최보령, 충남도청 본관의 전용계획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1994, p.20.

평면과 입면에 있어 중심을 이루는 현관부분이 특징을 이루며 리세스(Recessed)된 장방형 아치이다. 개구부는 외면에 고르게 배치되어 있으며 모두 같은 형식인 장방형으로 되어 있으며, 외부면 수직창 사이를 한번 접어 깊이감을 준 것 등이 해방 전 건물에 나타나는 수직창의 디테일을 일부 담고 있다.¹⁴⁾



그림 3-1 충남도청 실내

자료 : 충남도청 제공

또한 내부는 중앙 계단을 중심으로 천장에서 바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아치형 구조를 이루고 있고, 창틀과 계단의 디테일은 간소화된 르네상스 양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18세기말에서 19세기에 이르는 건축양식의 전이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건축양식이 일본에 들어온 이후 변질되어진 절충주의적 양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¹⁵⁾

3. 충남도청 현황

(1) 건축물 현황

충남도청의 건축물은 중앙로 축 선상에 본관이 위치하고 있고 그 후면에 별관

14) 김유진, 지역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청 리노베이션 활용방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09, p.28

15) 최보령, 충남도청 본관의 전용계획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1994, p.27.

과 신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건물 사이에 중정이 형성되어 있으나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기 위해 포장 되어 있다. 또한 충남경찰청이 같은 부지 내에 입지하고 있고 그 남서쪽에 7층의 현대식 건물인 후생관이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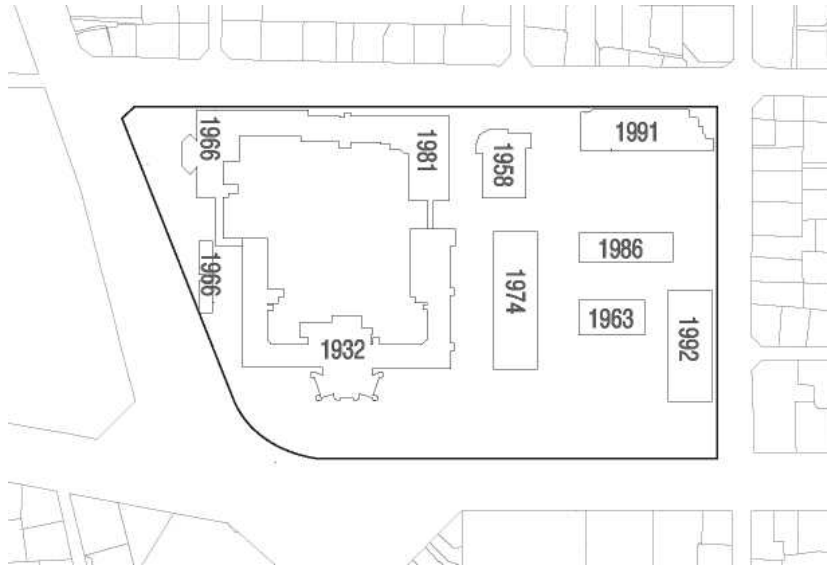


그림 3-2 충남도청 건축 년도
자료 : 충남도청 제공

현재의 건물은 6.25전란 이후 일부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면서 1960년 5월 3층을 증축한 것으로 현재 원형 사용 중 이다. 일제의 권위적 성격의 청사건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에서 건축물의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2002년 5월31일 3층을 제외한 본관 1,2층은 등록문화제로 지정되었다.

충남도청 이전부지 안에는 다양한 규모의 약 11채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 충남경찰청 부지와 합하면 14채의 건물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충남도청 본관과 신관, 의회청사를 위주로 구체적인 건물의 공간 구조와 평면, 입면 등에 대해 분석하여 역사적 의미로서의 충남도청의 가치를 인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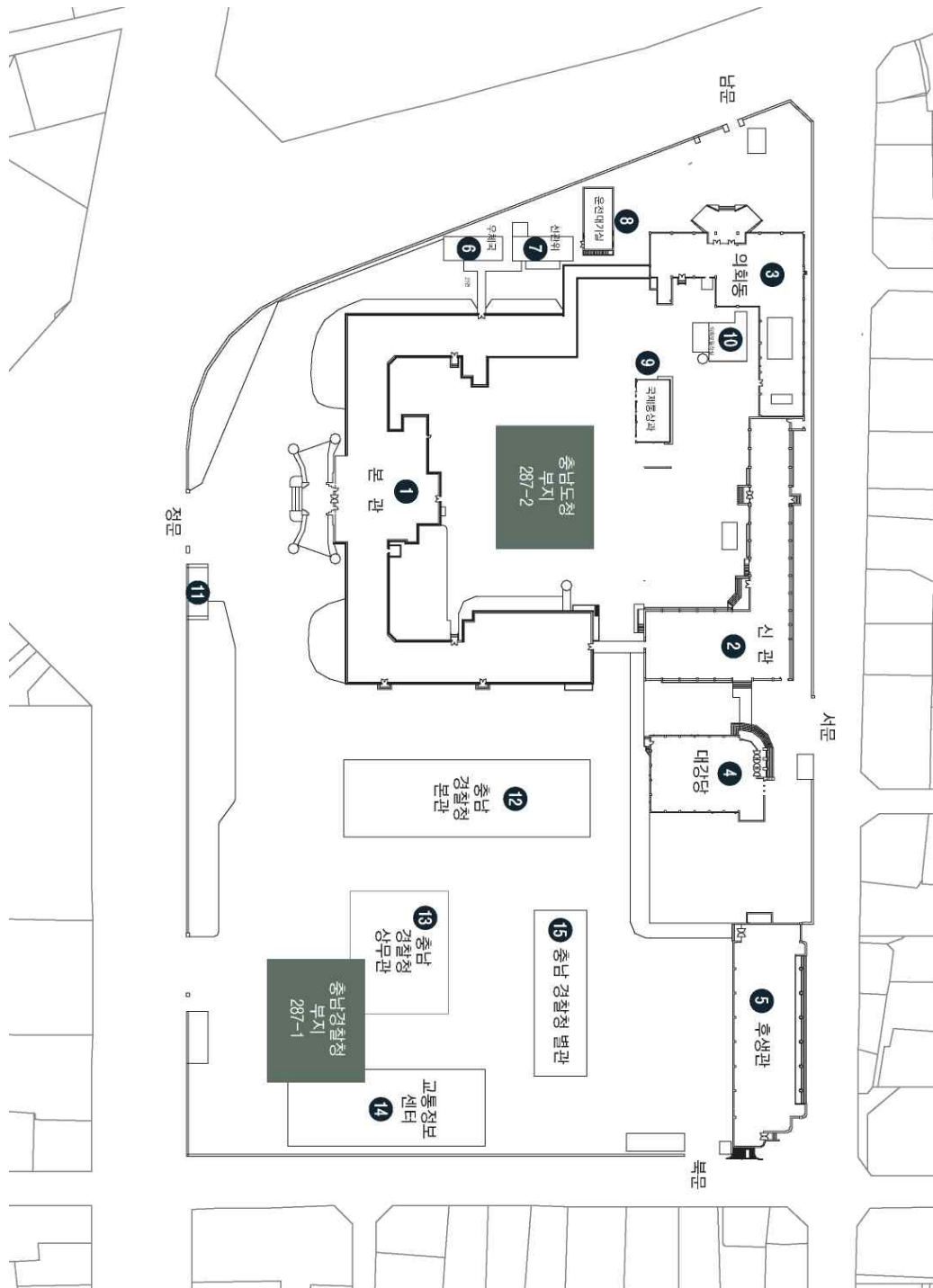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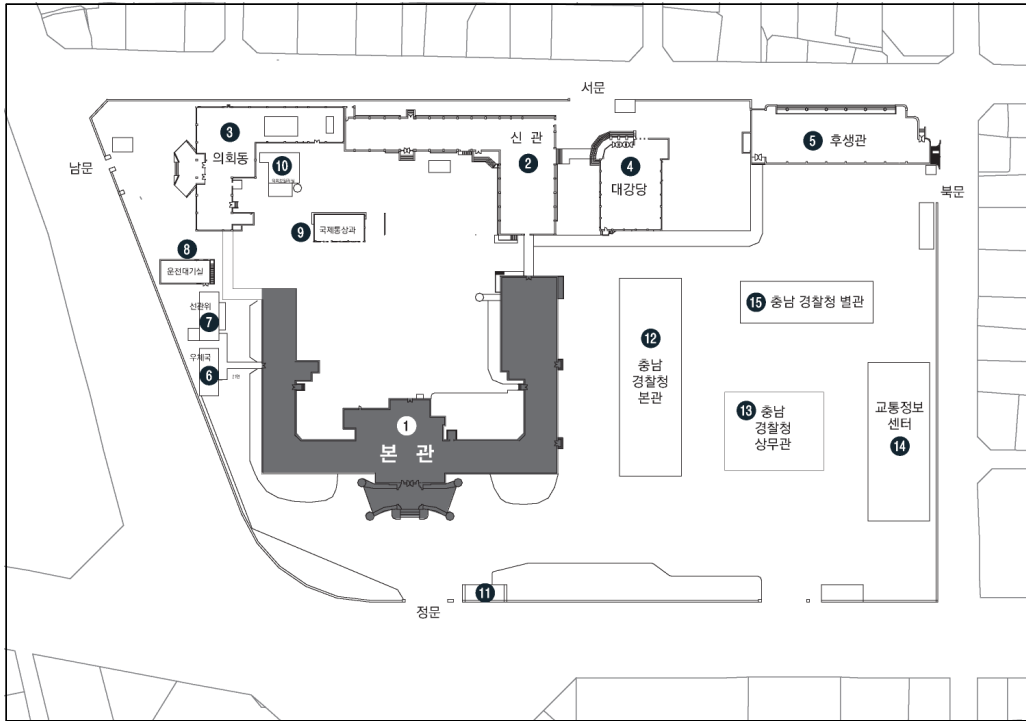


그림 3-3 충남도청이전부지 배치도

[본관]



① 건축 개요



본관은 현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벽돌조이나 본래는 부분 지하1층, 지상2층의 벽돌조적조(연와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면적 7,112.39m²로 주로 사무실, 방송실, 선관위, 창고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3-3 충남도청 본관 건축 현황

대지위치	연면적m ²	지역	지구	주구조	주용도	층수	소유자 현황
1 본관	7,112.39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 중심미관지구	철근콘크리트, 새벽돌, 연와조	사무실, 방송실, 선관위, 창고	부분 지하1층, 지상3층	충남도지사 (1965년 소유자 등록)

자료 : 김효정, 충남도청 청사 활용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② 공간구성 및 평면

본관은 증축된 부분을 제외하면 좌우 대칭형으로 ‘ㄷ’ 자의 좌우대칭의 평면은 대지의 2면에 면하여 가운데 중정을 갖는 편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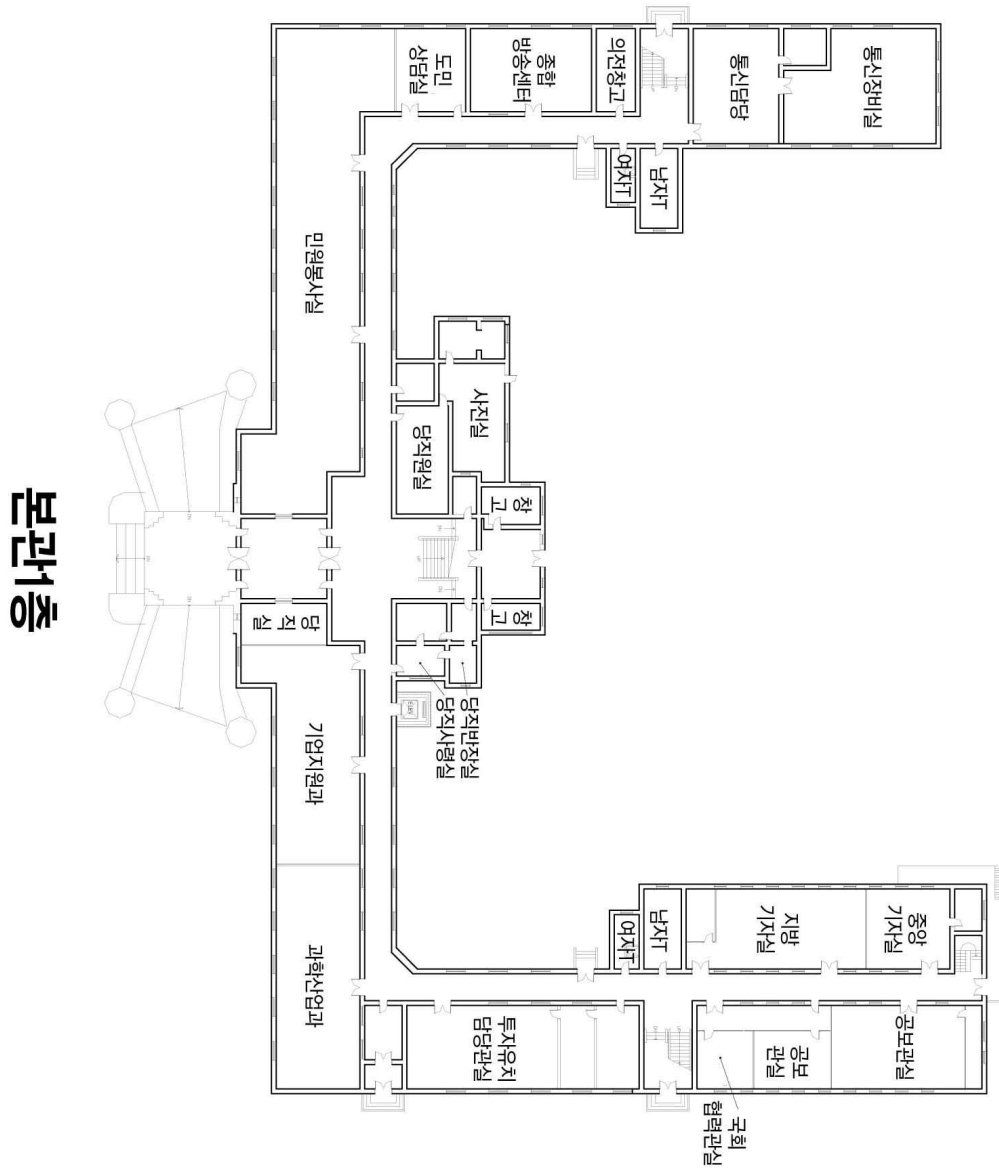


그림 3-4 충남도청 본관 1층 평면도

자료 : 충남도청 제공

사용되는 주출입구는 본관 동측 1개소이며, 부출입구는 주출입구의 맞은편인 서측에 1개소, 좌익부에 2개소, 우익부에 3개소이다. 3층 증축부의 평면구성은 1,2층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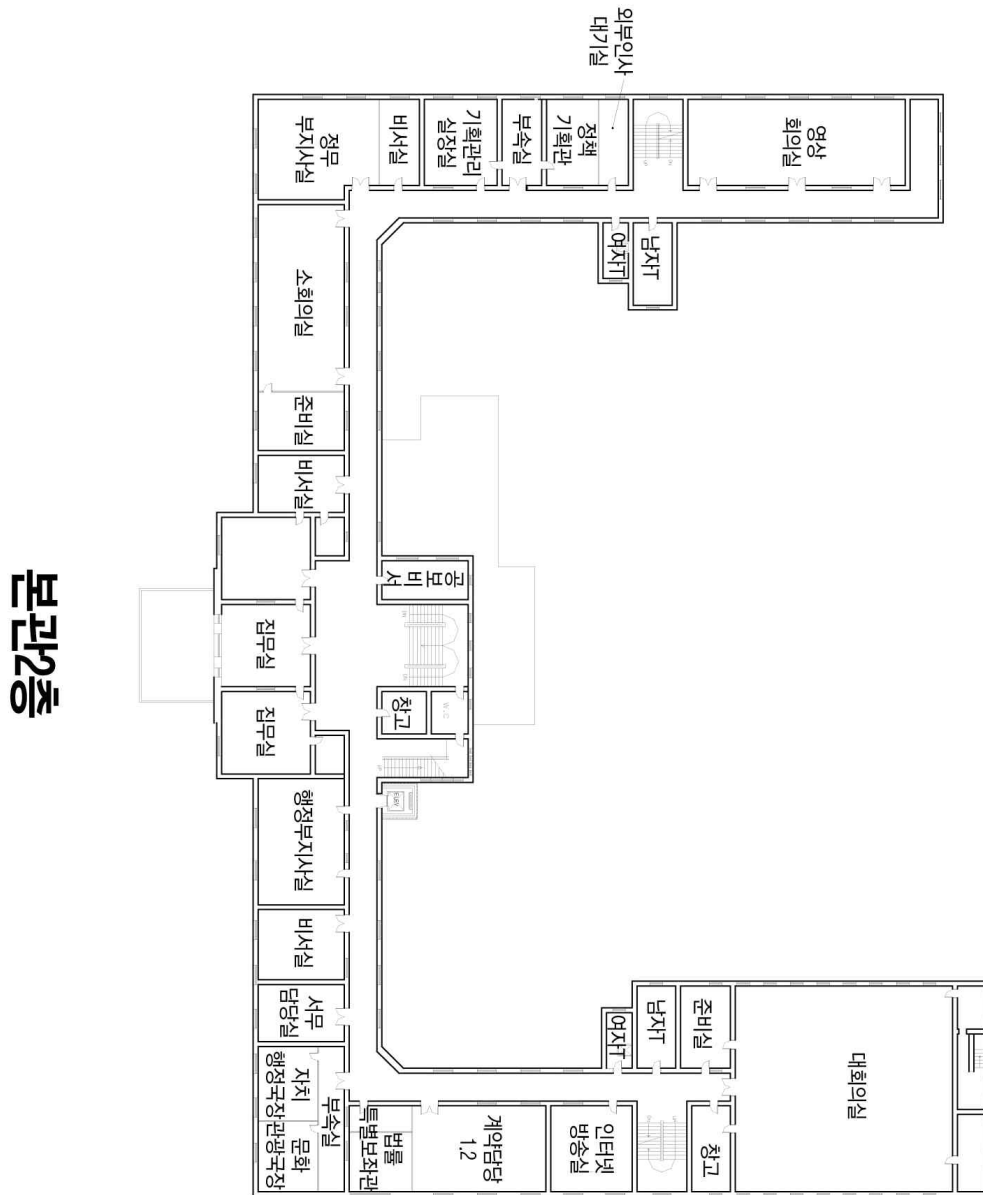


그림 3-5 충남도청 본관 2층 평면도

자료 : 충남도청 제공

본관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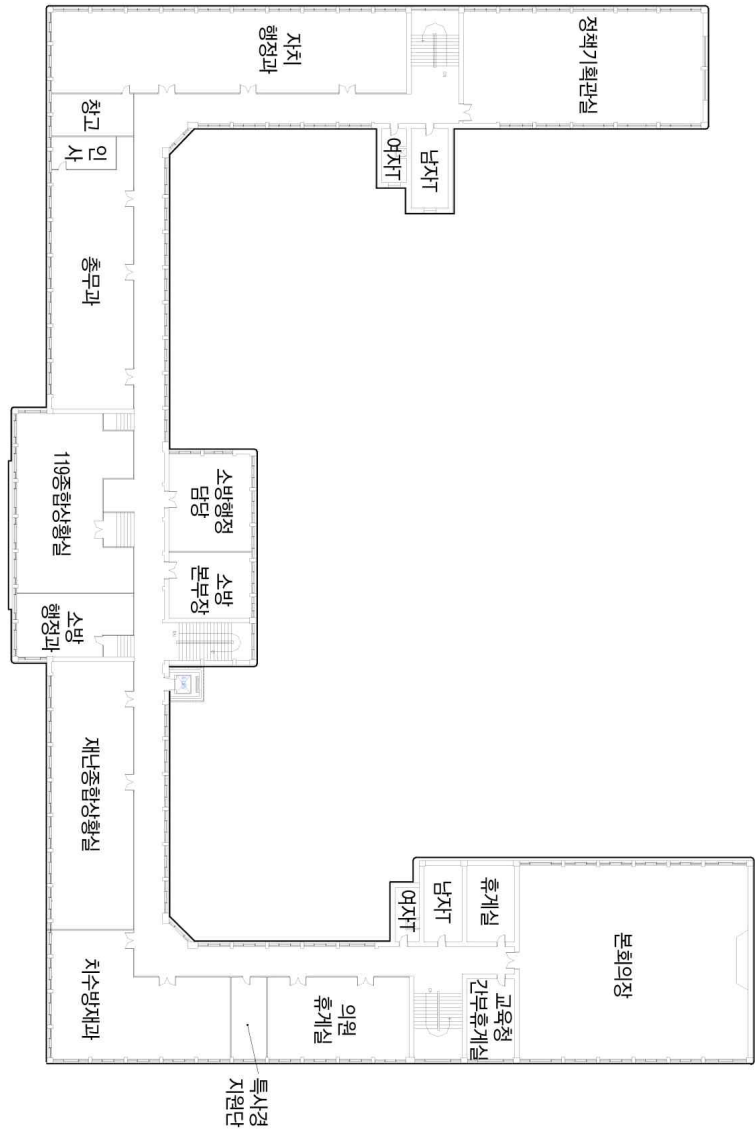


그림 3-6 앵남도서관 본관 3층 평면도
 자료 : 앵남도서관 제공

③ 입면

외벽은 지표면을 기준하여 약 30cm정도 노출된 지대석이 설치되어 있다. 그 위에는 타일 마감으로 되어 있으며 지붕에는 코니스(Cornice)가 단순화되어 남아 있다. 좌, 우익부의 부출입구 상부 창문에는 발코니가 있으며, 우익부 2층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벽면에는 단순화시켜 벽면에서 10cm정도 돌출 시켰다. 창문의 위치는 현관을 중심으로 외관의 균형 및 구조적 내구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크기의 수직선상으로 건물의 정면, 측면, 배면 등에 고르게 배치되어 있다. 16)



그림 3-7 충남도청 본관 정면도

자료 : 충남도청 제공



그림 3-8 충남도청 본관 배면도

자료 : 충남도청 제공

16) 최보령, 충남도청 본관의 전용계획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1994,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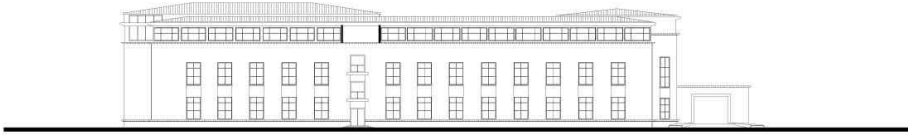


그림 3-9 충청도청 본관 좌측면도
 자료 : 충청도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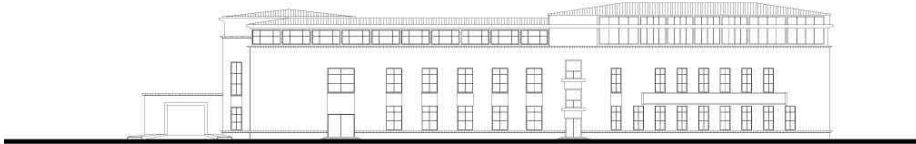


그림 3-10 충청도청 본관 우측면도
 자료 : 충청도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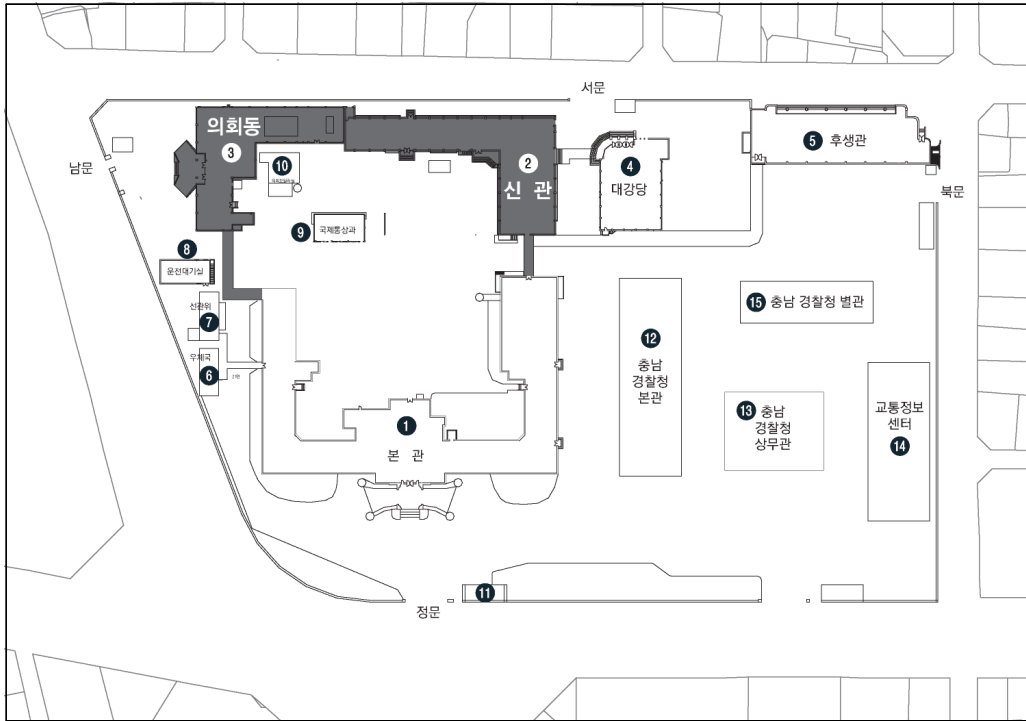
④ 단면



그림 3-11 충청도청 본관 단면
 자료 : 충청도청 제공

특징적인 단면구성은 보이지 않으며 다만, 중앙 홀 부분이 주변 공간보다 약간 높게 올려져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3층 증축부에서 강당부분의 층고가 주변보다 높다.

[의회청사 + 신관]



① 건축 개요



신관 :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건립된 신관은 1981년에 지어진 건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철근 콘크리트 조 + 외부 치장벽돌 쌓기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단순한 입면과 외부형태, 별관과는 또 다른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하였다. 그밖에도 새로운 기능설정에 따른

리노베이션 계획에 있어 주변 지역과 단절을 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의회청사 : 1966년에 지어진 건물로 규모는 지상4층이며 철근 콘크리트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관공서 건축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권위적인 입면형태와 직접

적인 진입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건물 정면으로는 대전의 지하철 건립이후 생겨날 수 있는 새로운 유동인구에 대한 잠재적인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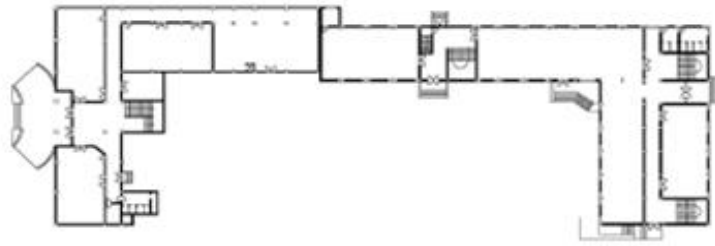
표 3-4 충남도청 신관, 의회청사 건축 현황

대지위치		연면적m2	지역	지구	주구조	주용도	층수	소유자 현황
2	신관	9395.93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 중심미관지구	철근콘 크리트, 경량철 골조	사무실,	지상3층	충남 도지사
3	의회 청사						지하1층 지상5층	

자료 : 김효정, 충남도청 청사 활용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②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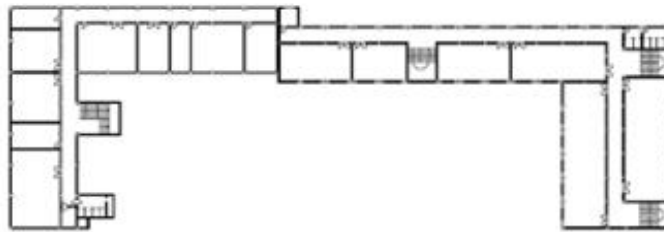
별관과 신관의 평면적 특징은 각각 ‘ㄴ’ 자의 좌우 대칭적인 형태를 가지며 순차적으로 건립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신관의 일부를 제외하곤 편복도 형식의 평면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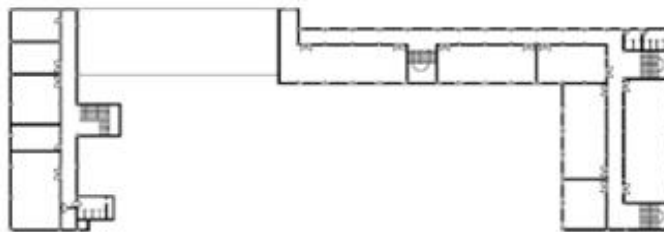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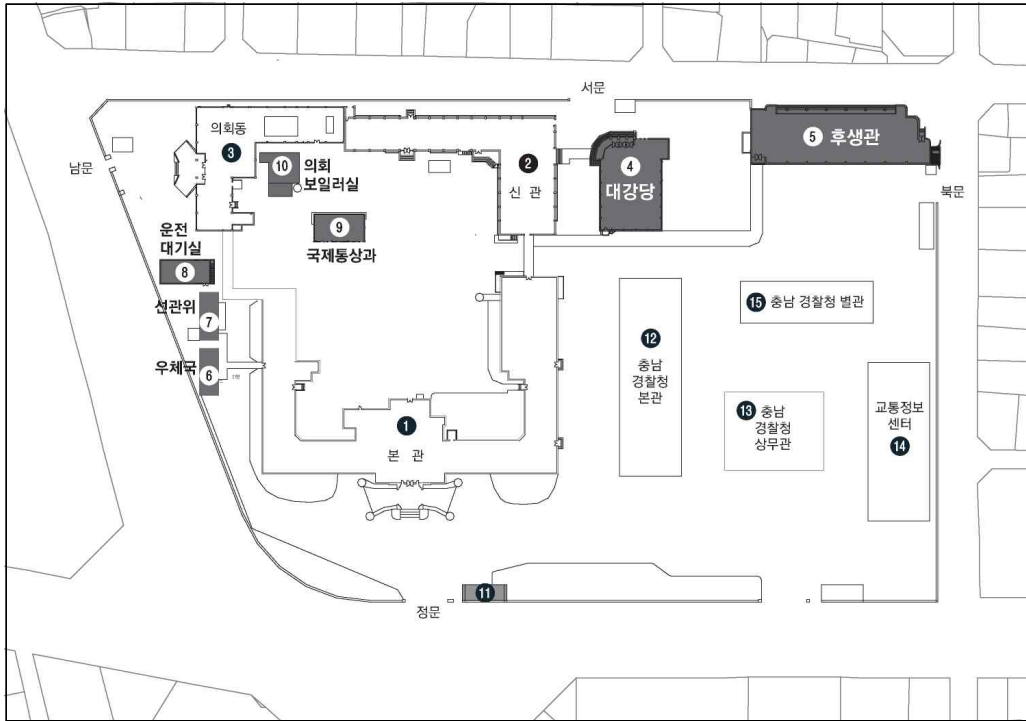
4층 평면도



그림 3-12 충남도청 신관 의회청사 층별 평면도

자료 : 충남도청 제공

[기타 건물]



후생관



대강당

충남도청 부지 안에는 본관과 신관, 의회청사 외에도 대강당, 후생관, 우체국, 선관위, 별관2, 보일러실, 별관3, 창고, 정문초소 건물이 있다. 후생관을 제외하고는 지상 2층 규모의 작은 건물로서, 주로 도청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로 이용되고 있다. 후생관은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도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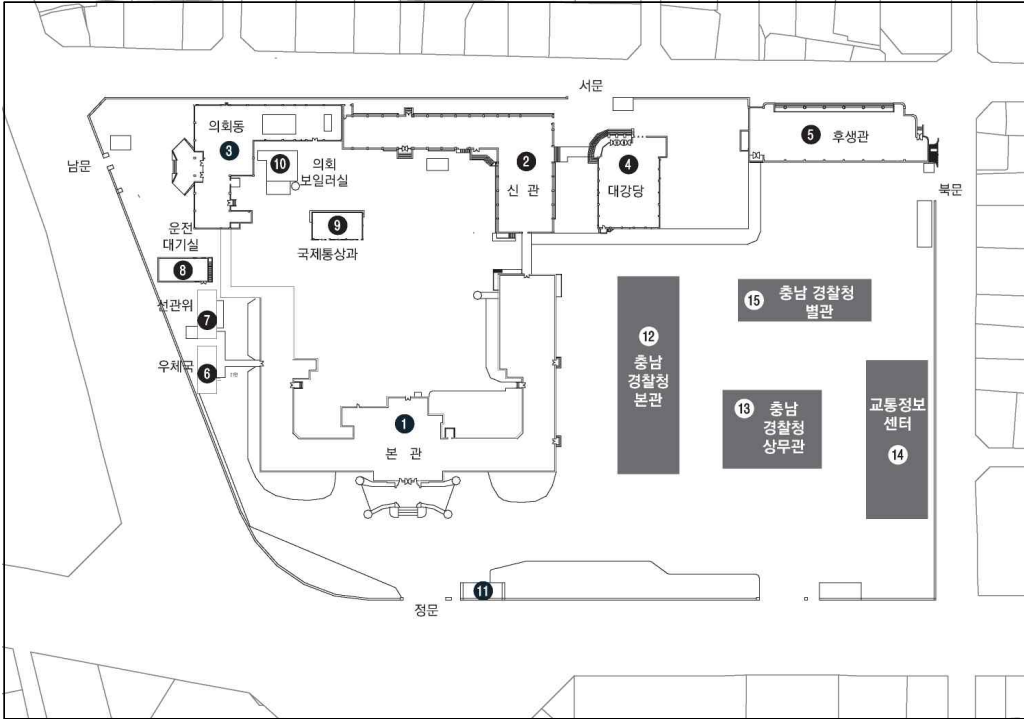
서 업무시설, 관리시설, 판매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청 별관1(선화동 373번지)과 별관2(임대건물)은 대상지 밖에 위치하여 제외하였다.)

표 3-5 충남도청 외 건축 현황

대지위치		연면적m2	지역	지구	주구조	주용도	층수	소유자 현황
4	대강당	979.30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 중심미관지구	철근콘 크리트, 새벽돌, 연와조	대강당	지상2층	충남 도지사 (1965년 소유자 등록)
5	후생관	7,424.71		중심미관지구	철근콘 크리트	업무시 설(사무 실), 관리사 무실,판 매시설(매장)	지하1층, 지상7층	충남 도지사 (1991년 소유자 등록)
6	우체국	217.94		일반미관지구 + 중심미관지구	철근콘 크리트, 새벽돌, 연와조	우체국	지상2층	충남 도지사 (1965년 소유자 등록)
7	선관위	353.71				우체국 과 별관3사 이의 사무실	지상2층	
8	운전자 대기실	229.74				사무실	지상2층	
9	국제 통상과	240.00		일반미관지구 + 중심미관지구	철근콘 크리트, 경량철 골조	사무실	지상2층	충남 도지사
10	보일러실	86.84				의회청 사 보일러 실	지상1층	
11	정문초소	114.87				철근콘 크리트, 새벽돌, 연와조	사무실	

자료 : 김효정, 충남도청 청사 활용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충남경찰청건물]



충남도청 이외에 충남경찰청 부지 안에 총 4채의 건물이 있다. 도청 부지의 건물보다 비교적 면적과 층고가 높아 추후 활용 계획에 있어 공간 확보 측면에서 좋은 여건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철근콘크리트의 구조로 되어 있고 별관을 제외하고 지하 1층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사무실, 공공업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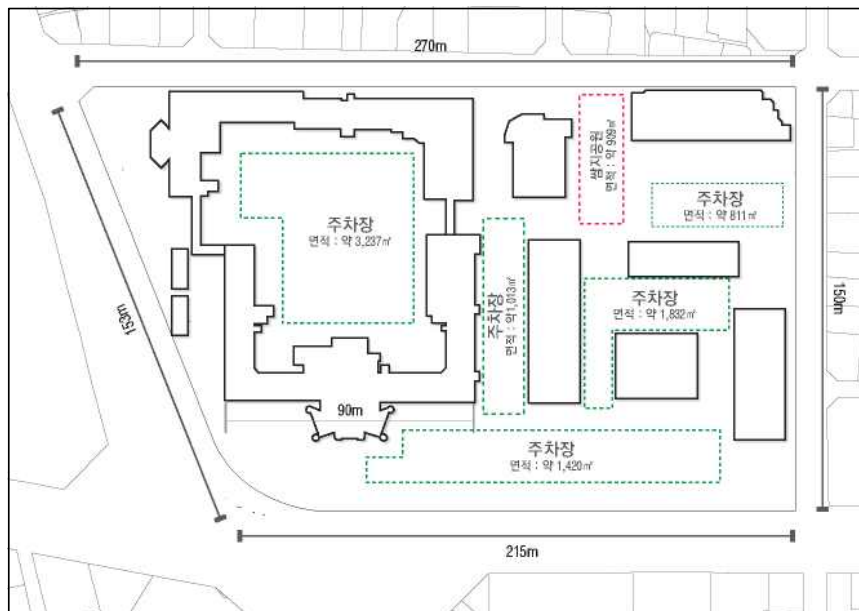
표 3-6 충남경찰청 건축 현황

대지위치	연면적m2	지역	지구	주구조	주용도	층수	소유자 현황
12 본관	6,177.08	일반상업 지역 2종일반주 거지역	미관3종	철근콘 크리트, 연와조	사무실, 경목식, 경찰국 청사	지하1층 지상4층	(국)관리청 경찰청 (1992년 소유권 이전)
13 상무관						지상1층	

14	교통정보센터	2,825.99		일반미관지구	철근콘크리트조	공공업무시설	지하1층 지상5층	관제센터-대전광역시장속영시설-국(경찰청)
15	별관	2,442.24	일반상업지역	최저고도지구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조	사무실	지상2층	(국)관리청 경찰청

자료 : 김효정, 충남도청 청사 활용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외부 공간 현황



충남도청 이전부지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충남도청 정문 방향(동쪽)으로 215m, 후면(서쪽)으로 270m의 길이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외부공간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중정형 구조의 충남도청 배치로 인해 비교적 넓은 규모의(약 3,237 m²) 오픈스페이스가 확보되어 있다. 대강당과 후생관 사이는 작은 규모의 쌈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부지는 건물과 건물사이 공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차장 이외에 휴식을 위한 공간은 조성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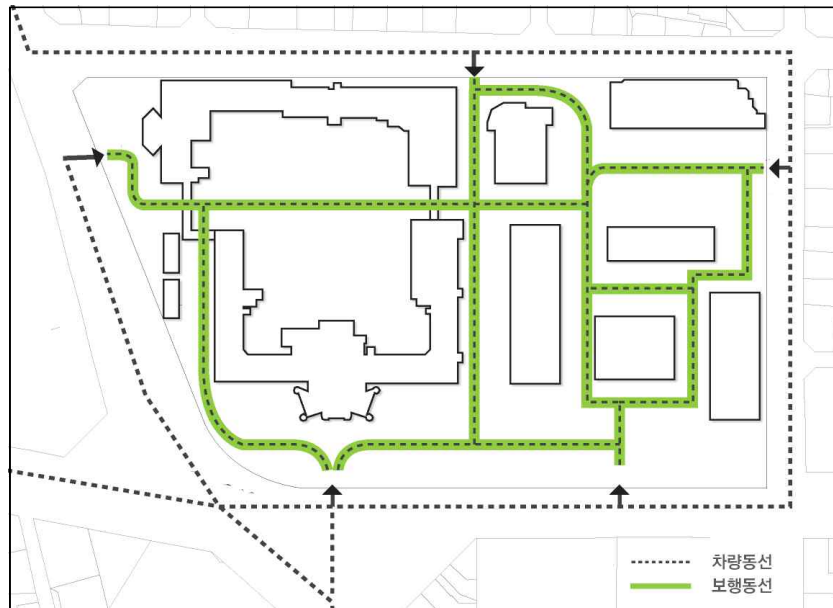


그림 3-13 충남도청 동선 현황

차량과 사람이 부지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는 다섯 곳으로 모두 차량과 사람 모두 통행이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경계가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출입이 불가하다. 하지만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부지 내에서도 혼잡함을 야기하고 있고 추후 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개선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4. 충남도청 주변 현황

충남도청은 대전의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중구 선화동에 입지하고 있다. 대전시의 주요 간선도로인 중앙로와 보문로에 위치하고 있고 북동측으로 1km 떨어져 대전역 및 중앙시장이 위치하고 있다. 대전 중앙시장은 대전의 역사와 함께 형성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은 도시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때 맨 처음 뚫린 원동과 인동방향의 길 좌우에 생긴 시장이 오늘날의 대전 중앙시장이다. 동일한 방향으로 500m권에는 대전의 주요 백화점중 하나인 갤러리아 백화점이 위치하고 있고 은행동 로데오 거리라 불리는 중심 상업거리가 위치하고 있다.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동일 방향으로 200m권에는 으능정이 거리라 불리는 문화의 거리가 있고 특화 거리로 지정되어 현재 대전시에서 가로 정비 및 디자인을 시행하였다. 한편 충남도청 남측으로 인접하여 중구청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남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 시설이 입지 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

대전의 가장 상징성 있는 가로인 중앙로가 동서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다. 이 중앙로는 동북측으로 대전역으로 연결되며, 대전역과 충남도청은 원도심의 중요한 거점 및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동서방향으로 중앙로의 지하에는 대전의 도시철도 1호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또한 충남도청에서 대전역에 이르는 중앙로 지하에는 2개소의 지하상가가(신지하상가, 구지하상가) 형성되어 있다. 이 지하상가 역시 중앙로, 은행동 문화의 거리, 으능정의 거리와 연결되며 중심 상업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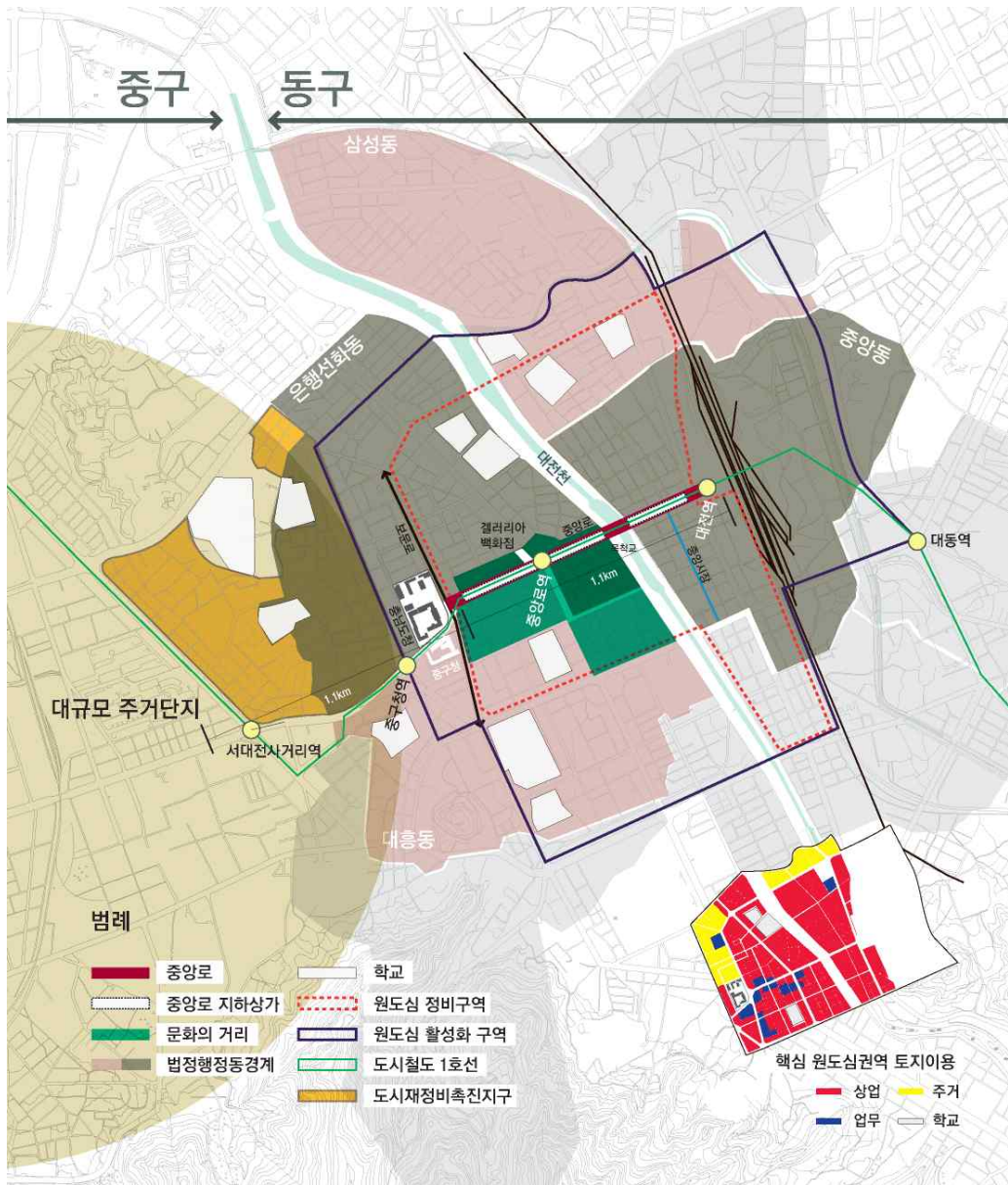


그림 3-14 충남도청 주변 현황도

제2절 대상 공간 분석

1. 인문 사회적 여건 분석

(1) 원도심 형성 역사

대전 도시 형성의 시작은 대전역이다. 1905년 경부선 대전역이 개통되면서 대전시 도시발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대전역 앞 부근인 원동, 중동, 정동 지역에 일본인 상가가 번창하며 일본식 시가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시가는 1912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폭 5.45m, 길이 70m의 목척교가 가설되자 대전천을 지나 은행동과 선화동으로 확대되었다. 1914년 3월22일 호남선이 개통됨에 따라 호남선의 역인 서대전역이 설치되었다. 대전은 도시 안에 경부선 역과 호남선 역을 따로 가진 유일한 도시가 되었고 호남선 철도의 부설은 대전의 발전을 축을 남북방향에서 동서방향으로 돌려놓은 시발점이 되었다. 이와 함께 1932년 5월 30일 대전역에서 서쪽으로 1.1km떨어진 곳에 충남도청 건물이 이전함에 따라 교통도시 대전은 지방행정의 중심도시라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 도청 이전 이후 법원, 검찰청 등 관련 행정 및 업무기능이 이전 되면서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오늘날의 도심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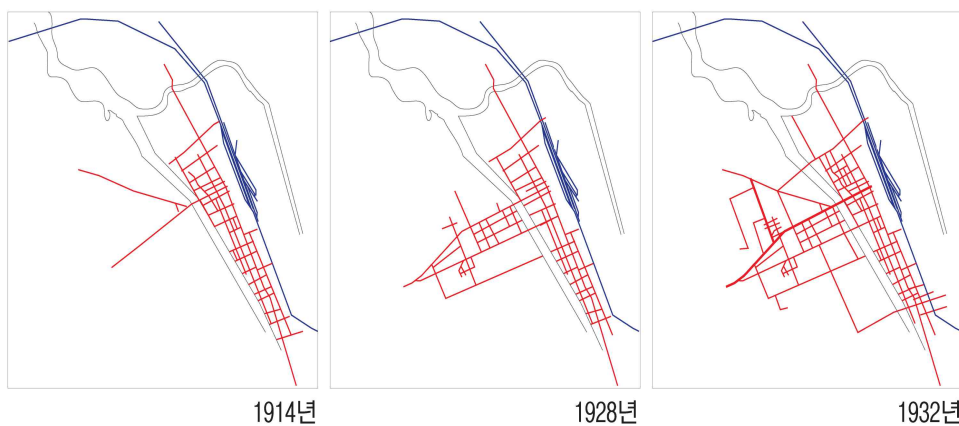


그림 3-15 대전부역도내 나타난 가로망을 그린 지도

대전시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의 주요한 원인중 하나는 원도심 내 공공기관의 둔산 신도심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전시청과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의 이전은 주변의 많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의 이전을 동반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를 일으키고 도심기능의 쇠퇴로 도심활력을 저하시킨다.

대전 원도심은 1993년 대전시 교육청의 이전을 시작으로 1995년 상공회의소, 1998년 대전법원, 1998년 대전시청, 2002년의 충청체신청까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둔산 신도심으로 이전하였다. 원도심 쇠퇴의 주요 원인인 공공기관 이전의

표 3-7 공공기관 이전현황

기관명	이전시기	이전지
대전시교육청	1993.7	둔산 신도심
한국통신충남본부	1994.	둔산 신도심
상공회의소	1995.7	둔산 신도심
수협	1996.8	둔산 신도심
대전노동청	1996.12	둔산 신도심
KBS	1998.5	둔산 신도심
대전법원	1998.10	둔산 신도심
대전검찰청	1998.11	둔산 신도심
대전시청	1998.12	둔산 신도심
충청체신청	2002	둔산 신도심

자료 : 대전시 자료

과급력은 1998년 법원·경찰청의 둔산 신도심 이전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그 당시 법원·경찰청의 둔산 신도심 이전은 관련기능의 이전을 유발하여 주변 671개 기관·업소중 108개 업소가 이전했으며, 업무공간에 대한 수요의 감소로 건물의 공실률이 3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혜천,2002).

(2) 인구 변화

도시가 성장해 가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에 따라 주거 인구의 변화도 나

타나게 된다. 이에 도심 내 인구 변화는 도시의 쇠퇴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대전시 행정구역은 1971년 4개 출장소(동부, 북부, 중부, 서부)가 설치된 이후, 1977년 동구와 중구가 설치되었다. 1984년 1개 출장소(유성)가 추가 설치되었고, 1988년 서구청이 설치되었다. 1989년 대전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현재의 5개 자치구가 설치되었다. 그 중 원도심은 대전천을 중심으로 동구와 중구에 포함되고 주요 동으로는 동구는 중앙동, 삼성동 중구는 은행신화동, 대흥동이 있다.

전체 대전시의 인구는 1995년 1,268,432인에서 2005년 1,442,856인으로 2010년에는 1,518,540인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성장률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 원도심이 속해있는 동구의 인구는 1995년 272,705인에서 2000년 247,381인으로 2005년에는 232,673인으로 계속해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252,160인으로 증가 하였다. 중구 역시 1995년 266,071인에서 2000년 253,990인으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는 255,962인으로 2010년에는 267,429인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중구와 동구 이외에 서구와 대덕구, 유성구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고, 그 중 둔산 신도심이 위치한 서구는 인구의 33.1%로 구별 인구 비중이 가장 높다.

표 3-8 대전시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합계	1,268,432	1,390,510	1,442,856	1,518,540
동구	272,705	247,381	232,673	252,160
중구	266,071	263,990	255,962	267,429
서구	406,210	470,797	509,420	503,247
대덕구	202,461	233,778	222,162	209,598
유성구	124,684	162,261	222,649	286,106

자료 : 대전시 자료

원도심인 동구와 중구의 인구는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를 보이다 2005년부터 다시 소폭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원도심의 재활성화를 위해

1990년대 대전시가 추진한 도심재생사업과 2003년 제정한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등 다각도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구가 소폭 증가한다 해도 동구, 중구의 도심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대전시 전체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동구, 중구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더 웃돌고 있어 동구, 중구 내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도심의 고령화는 인구 및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는 생산가능 인구 계층이 도심 외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원도심 쇠퇴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3-9 대전시와 동구, 중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현황

연도	대전시			동구			중구		
	인구 (명)	고령 인구 (명)	비율 (%)	인구 (명)	고령 인구 (명)	비율 (%)	인구 (명)	고령 인구 (명)	비율 (%)
2000	1,390,510	75,769	5.4						
2007	1,487,836	114,209	7.7	246,911	24,858	10.1	266,773	25,997	9.7
2008	1,495,048	120,178	8.0	248,983	26,013	10.4	266,167	27,124	10.2
2009	1,498,665	124,737	8.3	249,367	27,188	10.9	265,467	28,599	10.8
2010	1,518,540	130,245	8.6	252,160	28,419	11.3	267,429	29,948	11.2

자료 : 대전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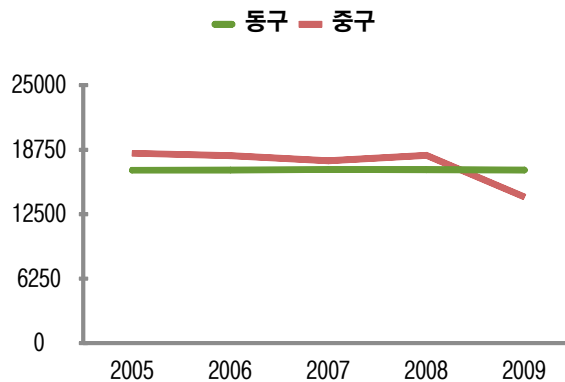
(3) 산업의 변화

사업체 및 종사자수의 변화 추이는 도시의 경제적 쇠퇴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이다.

표 3-10 대전시와 동구, 중구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연도	대전시		동구		중구	
	사업체수 (개소)	종사자수 (명)	사업체수 (개소)	종사자수 (명)	사업체수 (개소)	종사자수 (명)
2005	90,366	405,311	16,758	52,184	18,401	74,323
2006	89,851	412,889	16,769	53,332	18,171	74,696
2007	91,097	429,296	16,822	55,208	17,677	76,166
2008	92,548	450,857	16,804	55,723	18,197	79,152
2009	93,219	468,055	16,774	61,175	14,162	63,498

자료 : 대전광역시, 각 년도 대전통계연보, 구별 통계연보



1990년대 이후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체수가 소폭 증가하였지만 계속 유지하지 못 하고 감소하고 있다. 이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른 해결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충남도청 반경 300m 주변지역은 기타 서비스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감소하였고, 반면에 보험 및 연금업,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증가하였다. 또한 반경 500m 주변지역은 영화, 방송 및 공연사업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에 운송업과 금융보험 및 관련서비스업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앙로 지하상가의 경우, 기술서비스업이 감소하였으며 수리업(옷,가방

등)과 기타 새로운 트렌드로 사주카페 및 네일샵 등의 소매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¹⁷⁾

(4) 문화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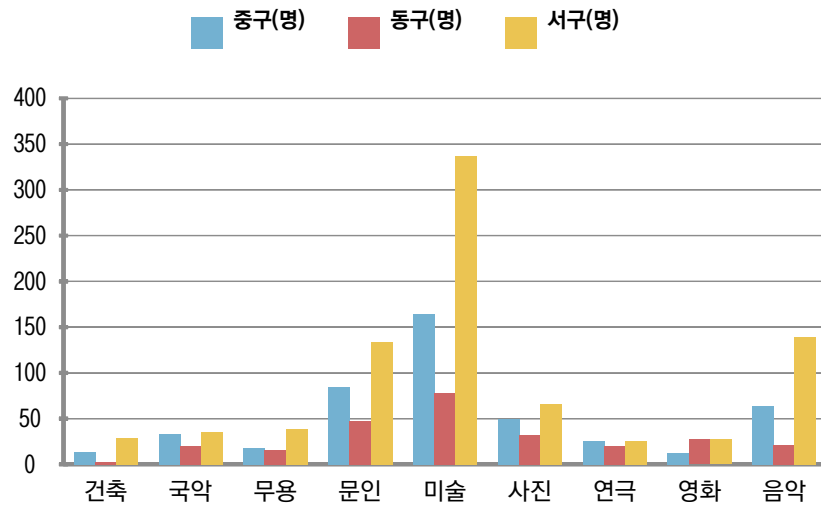
문화자원 현황을 한 도시의 문화 인프라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통계 수치로 표시되는 계량화된 지표를 통해 문화자원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문화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대전광역시에서 수행해 온 문화자원 현황조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¹⁸⁾ 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문화시설(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등) 분류를 토대로 일반적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거나 일부 문화예술단체를 언급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언급하는 문화자원의 자료는 한국예총대전시연합회(이하 대전예총)와 대전충남민예총에 등록된 회원과 단체를 대상으로 했음을 말한다. 대전예총은 개인별로 가입해 구성된 협회가 모여 연합체를 이루고 있고 회원은 10개 협회에 정회원으로 2,271명이 소속되어 있다. 대전충남민예총은 8개 소속 분과로 나뉘어 개인별로 가입해 있다.

표 3-11 대전시와 동구, 중구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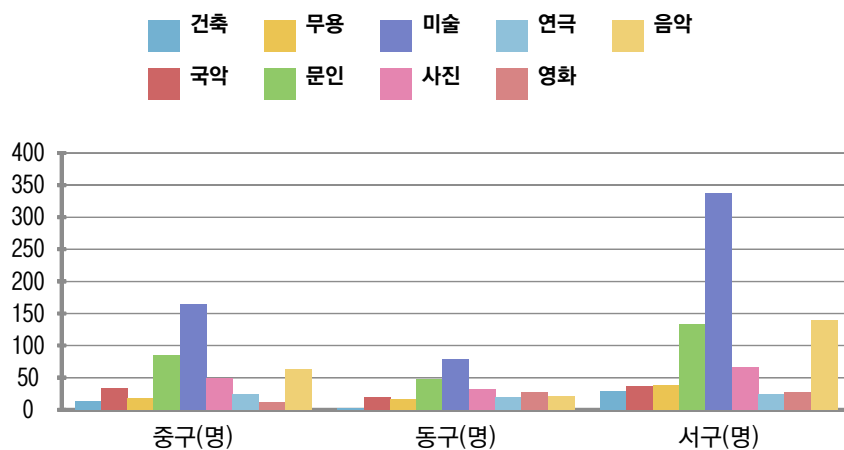
	중구(명/비율)	동구(명/비율)	서구(명/비율)
건축협회	14(22.2%)	3(4.8%)	29(46.0%)
국악협회	33(32.0%)	20(19.45%)	36(35.0%)
무용협회	18(18.2)	16(16.2%)	39(39.3%)
문인협회	84(26.1%)	47(14.6%)	134(42.6%)
미술협회	164(21.2%)	78(10.1%)	337(43.5%)
사진협회	49(25.8%)	32(16.8%)	66(34.7%)
연극협회	25(24.8%)	20(21.5%)	25(30.1%)
영화협회	12(24.2%)	27(17.2%)	27(55.1%)
음악협회	64(24.4%)	21(8.0%)	139(53.1%)
구별인구구성비(%)	18.1%	16.3%	34%

17) 김흥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 (대전발전연구원, 2009), p.28-33.

18) 대전광역시, 『대전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 (대전광역시, 2004).



대전시 예술 전문 인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전예총 회원의 거주 분포도를 분석하면, 특정 구에 편중되어 있어 사회 양극화 현상이 문화예술 인력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하지만 원도심인 중구도 예술 전문 인력 비율이 중구 인구구성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원도심의 문화적 역사성과 전통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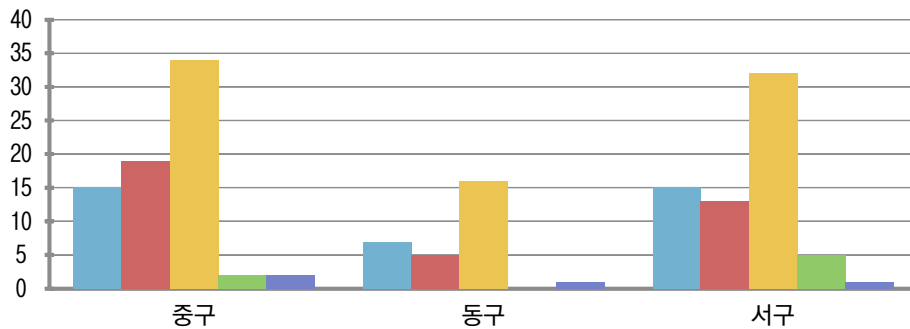


다른 구에 비해 중구와 서구가 상대적으로 예술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 장르에 따라 유의미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영화와 음악협회는 절반이 회원이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연극·연예협회는 인구 비율을 밑돌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구의 경우는 모든 장르의 예술인이 인구 비율을 사회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다른 구에 비해 문화 예술의 생산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다.

표 3-12 대전시와 동구, 중구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구분/계	총 소계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문고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소계	공연장	영상관	야외악당	소계	박물관	화랑	미술관	조각공원	소계	도서관	문고	소계	문화의집	소계	지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중구	72	15	9	3	3	19	2	17	0	0	34	6	28	2	2	2	1	1	0
동구	29	7	5	2	0	5	3	2	0	0	16	6	10	0	0	1	1	0	0
서구	66	15	9	4	2	13	2	6	3	2	32	4	28	5	5	1	1	0	0

■ 공연시설 ■ 도서관/문고 ■ 문화보급전수시설
■ 전시시설 ■ 지역문화



구별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중구가 72개인 29.4%로 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집중된 인적 자원 분포와는 달리 서구의 기반시설은 상대적으로 적은 66개인 26.9% 나타났다. 이는 중구가 둔산 신도심 개발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 대전의 문화 중심지였던 것을 의미 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2. 물리적 여건 분석

(1) 공간 구조

충남도청과 대전역을 직선으로 잇는 중앙로는 대전시 원도심의 중심축이며, 중앙로를 따라 중심업무기능과 함께 다양한 도시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중앙로는 대흥동, 은행선화동을 지나며 서쪽으로는 서대전4거리로 연결되지만 동쪽으로는 2005년 12월 대전역사 아래로 동서 관통로가 뚫리기 전까지는 경부선 철도를 지나기 위해서는 원동지하차도(굴다리)나 삼성동 지하차도를 지나야 했다.

중앙로의 가장 큰 공간적 특징은 지상과 지하의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대전천이 그 위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하상가는 대전역에서 충남도청에 이르는 1.1km 구간에 지난 81년 개발된 구지하상가(대전역부터 목척교)와 96년 새롭게 조성된 신지하상가(목척교부터 충남도청)로 나뉘어져 있고, 구지하상가와 신지하상가는 형성된 배경이나 주변 용도에 따라 입점되어 있는 시설의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중앙로와 함께 원도심의 중심 상업시설 축으로 각인되어 있다. 또한 충남도청부터 대전천까지는 으느정거리를 포함하여 대흥동, 은행선화동지역의 중심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대전천부터 대전역까지는 대전 최대 시장인 중앙시장과 맞은편의 동중산업으로 특화된 특화거리(인쇄골목, 한복거리, 한의약 거리 공구거리 등)가 형성되어 있다.

(2) 교통 및 접근성

원도심은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고 있다. 충남도청 남쪽으로 중구청역, 충남도청부터 목척교 구간에 중앙로역, 목척교부터 대전역 구간에 대전역이 있다. 약 1.2km 거리 안에 3개의 역이 연결되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지상에는 경유 버스노선 18개, 급행 2개, 간선 21개의 노선이 지나고 있어 원도심은 명실상부 대전 교통의 중심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앙로의 지하상가는 주말 약 25,000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모이는 곳으로 은행선화동의 으느정이 거리, 은행동 로데오 거리와 함께 젊은이들이 밀집하는 대표적인 보행자 축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원도심의 역사와 함께 한 대전 최대의 재래시장인 중앙시장과, 대전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주력하고 있는 대전 역세권 개발, 한복거리, 인쇄거리, 한의약 거리 등의 특화거리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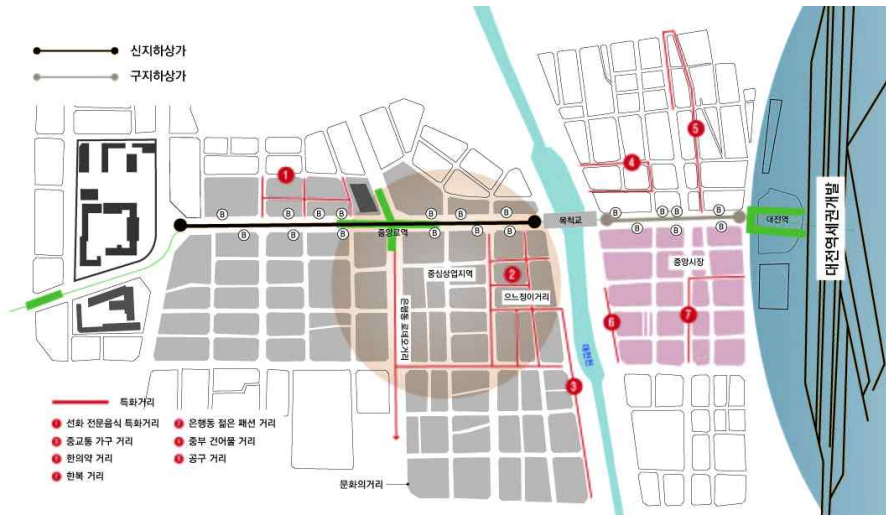


그림 3-16 원도심 내 중앙로 일대 대중교통 현황도

(3) 시설현황

중앙로의 시설 용도는 지상부와 지하부, 대전천을 중심으로 대전역 방면과 충남도청 방면으로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지상부는 대전의 핵심 도심의 중심부로서 도시기능이 집중된 C.B.D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빈도가 높은 순으로 학원과 의류, 신발 등의 고급소매 그리고 생활관련의 병원, 약국 업무관리의 사무실 등의 빈도가 고르게 나타나고, 대규모 상업시설과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도심의 중심축을 이루는 중앙로의 토지이용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사교오락기능을 제외한 모든 도시기능이 집중된 것을 나타낸다. 층별로 보면 1층은 의류, 신발 등의 고급소매기능이 탁월하다. 2층은 특히 병원이 3

층은 학원과 병원의 빈도가 높았다.(4,5층 포함) 4층 이상은 전체적으로 사무실의 빈도가 고르게 나타나는데 충남도청, 옛 대전시청, 옛 법원 등 관공서에 인접한 관련 사무실과 금융기관의 고층사옥 및 사무실, 기업체의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결과이다.¹⁹⁾ 결론적으로 중앙로 충남도청 ↔ 중앙로역(갤러리아백화점) 구간은 행정기관과 인접하여 금융기관, 기업체 사무실 등의 업무기능이 두드러지며, 중앙로역 ↔ 목척교(대전천)구간은 문화의 거리가 배후지역으로 원도심의 모습이 살아있는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대전역 ↔ 목척교 구간은 배후지역이 대전의 도,소매 최대 시장인 중앙시장과 맞은편 특화거리를 접하고 있어 건물의 층수가 비교적 낮고 노후화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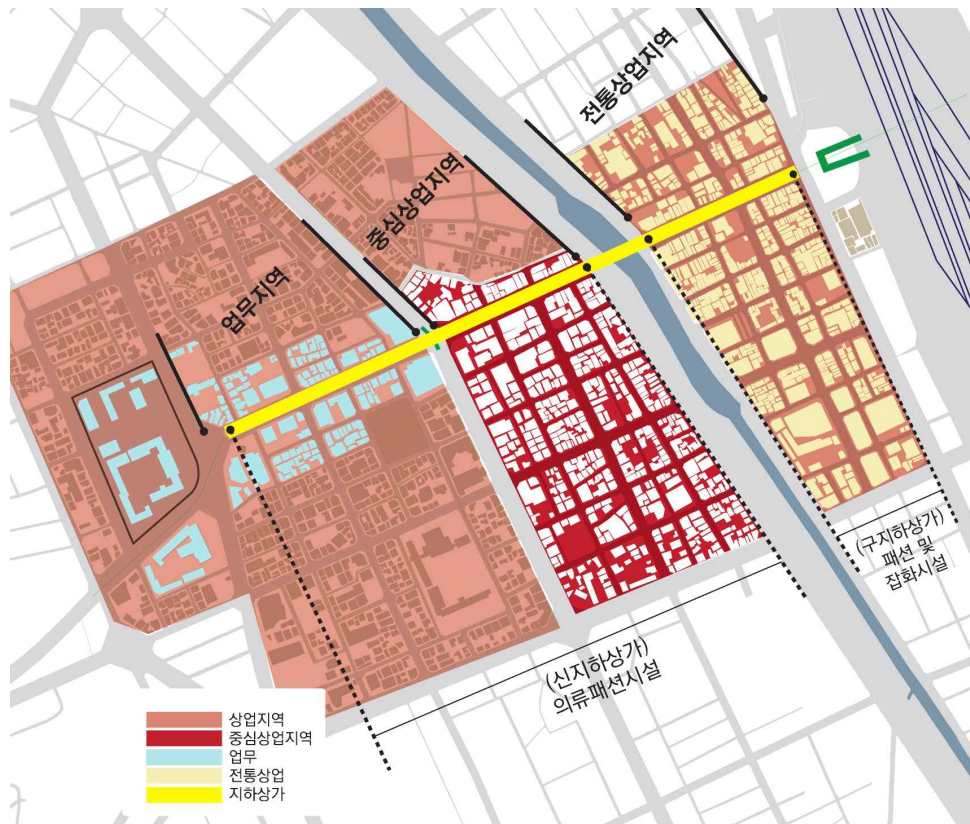


그림 3-17 중앙로 지상, 지하 시설용도 현황

19) 김정태,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충남도청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발 전학회지』, 34(2), 2009, pp.223-235.

코엑스 보다 긴 1.1km의 지하상가는 과거 대전의 행정, 문화, 상업 교통의 중심지로 동구 중앙시장과 쌍벽을 이루는 상권이었지만 대전시청, 법원, 검찰청의 이전으로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상권 분석의 주 대상자인 소상공인 수가 아직까지 여느 상권보다 많아 시장 잠재력이 충분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시 도심지하상가에 대한 2005년 2월 조사 결과, 구 지하상가에는 134개, 신 지하상가에는 461개의 점포가 분포하고 있고 2009년 9월 조사결과, 신 지하상가 432개의 점포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 지하상가는 재래시장인 중앙시장과 한약 및 인쇄 등이 특화거리와 접해 있어 신 지하상가에 비해 상업보다는 보행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상권은 의류나 휴대폰 및 잡화 등이 산재해 있어 상권의 큰 특징이 파악되지 않는다. 또한 공실률도 신 지하상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지하상가 상권은 구 지하상가와 달리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젊은이의 거리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충남도청 서부권의 대규모 주거단지와 밀집되어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인해 학생들의 유동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지하상가에 입점 되어 있는 상점으로는 의류, 신발 판매 251개 지점으로 패션거리를 형성하고 있고 휴대폰 판매가 52개 지점으로 동종판매의 집적을 나타낸다. 그 외 업무관리의 공공시설은 분수공간과 컴퓨터, 화장실을 포함하고 사교오락 시설과 귀금속 및 잡화, 생활관련 화장품, 음식점 등이 입점 되어 있다.

(4)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행정과 업무 기관이 밀집해 있고, 대전의 중심 상업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원도심은 도심 속 오픈스페이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공원은 대흥동에 우리들 공원과 대흥공원이 전부이며, 중앙동 부근은 재래시장으로, 은행선화동은 상업 시설로 가득 채워 있다. 대부분의 야외 지역 문화 활동은 우리들 공원을 거점으

로 거리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고, 은행선화동의 ‘닷찌 플리마켓’ 이란 지역 활동 역시 재래시장인 목척시장 길을 따라 열리고 있다.

반면 중앙로 지하상가에는 중앙 분수광장을 비롯하여 곳곳에 쉴 수 있는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충남도청 방향으로 지하상가가 끝나는 부분에는 간이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다. 중앙로 지하상가는 지하철역과 이어져 원도심 내에서 유동인구의 많이 몰리는 곳 중 한 곳으로 오픈스페이스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충남도청이전부지의 문화적 활용에 있어서, 원도심내 주요 활동들이 면적인 공간이 아닌 ‘길’ 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충남도청의 외부공간의 활용 측면에서는 주요 거리와의 연계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충분한 쉼터를 제공하고 충남도청 앞에서 끊긴 지하 중앙로 지하상가와와의 연결을 통해 쾌적한 지하 공간 활용과 도심 내 활력을 부여하는 오픈스페이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4장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 계획

제1절 계획의 개요

1. 기본방향

2012년 12월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으로 인해 대전 원도심권은 다시 한번 공간적 변화와 산업, 사회, 문화 등의 전반적인 도시 활동의 변화가 예상된다. 게다가 80년 동안 대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상징적인 공간이 이전 된다는 사실만으로 원도심의 쇠퇴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각 종 국가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관한 다양한 활용 계획을 발표 하였고, 복합문화공간, 문화예술백화점, 종합박물관, 예술 창조센터 등 ‘문화 공간’ 으로의 활용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문화공간에 도입하고자 계획된 미술관, 공연장, 음악당, 도서관, 쇼핑센터 등은 단순한 문화시설의 나열일 뿐 도입하고자 하는 기능과 시설에 있어서 대전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문화에 대한 고려를 간과하고 있다. 즉, 반드시 대전 원도심이 아니고 어느 도시에 조성 되어도 무방한 대규모의 복합 문화 센터의 계획이다. 이러한 문화공간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는 있지만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 일상생활 등과 연계되지 않는 한 그 지속성과 진정성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충남도청 활용에 대한 계획 중에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대전역과 함께 대전을 상징하는 장소적 의미로서의 ‘문화 공간’ 활용은 연구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계획과 그 뜻을 같이 한다. 그러나 문화공간을 완성하는 도입기능 및 시설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문화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이다. 그러므로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지역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지역문화자원’ 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진행하고자 한다. 문화 공간이란 기본적으로 대전 원도심의 본연의 ‘문화’를 담아내는 ‘공간’으로서 조성되어야 한다. 즉, 둔산 신도심의 예술의 전당, 시립 미술관, 광주의 아시아 문화전당과 같이 다른 도시의 복합문화 공간들과 차별화 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전 원도심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역사, 문화, 사람, 생활양식, 지역 활동과 같은 지역문화자원의 발굴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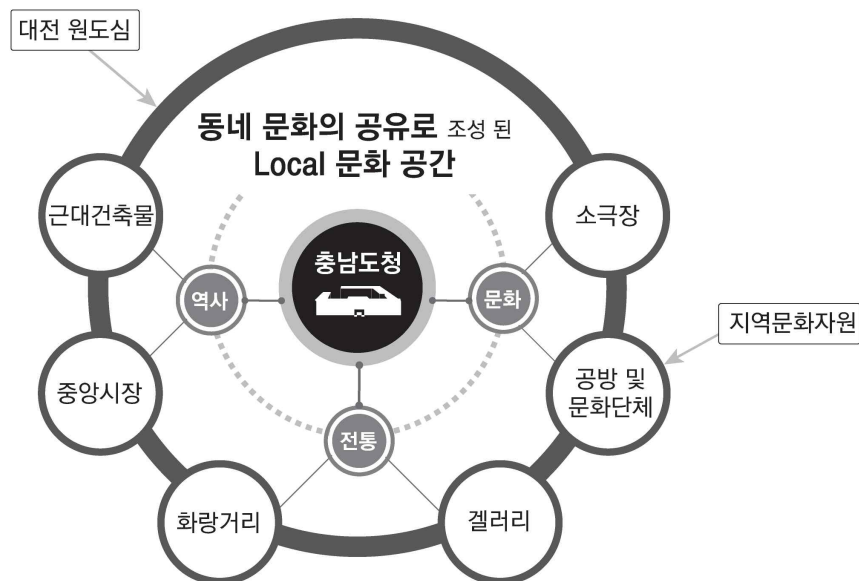


그림 4-1 계획의 기본방향

또한 발굴한 지역문화자원들과 충남도청이 기능적, 공간적으로 어떻게 소통하고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와 충남도청을 연결 하는 지역단체 및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도심 활성화를 위해 명확한 범주와 목적을 기반으로 한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브랜딩에 대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원도심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지역 활동가들에게는 원도심 내에서

문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자연스럽게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대전의 정체성과 지역 문화의 색깔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의 장을 제공하게 하고 나아가 원도심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문화 공간으로 발전하게 할 것이다.

충남도청이전부지의 ‘문화 공간’ 으로서의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전제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첫째, 대전 원도심만의 결을 발굴한다.

오랜 시간을 지나 형성된 고유의 지역 문화는 어떤 계획적 콘텐츠 보다 견고하다. 어느 도시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획일화된 모습의 문화공간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담을 수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발굴 한다.

둘째, 충남도청이 지니고 있는 공공기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물리적, 사회적 무장에 공간을 조성한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장소적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남녀노소, 계층에 상관없이 공간과 프로그램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공공성을 유지한다.

셋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존재가치를 느끼게 한다.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의 삶에 대해 만족 하는가는 지역 활성화 및 도심 재생의 시작이며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다. 화려하고 웅장한 랜드마크적인 공간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외부인들의 유입을 이끌 수 있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맥락과 동떨어진 콘텐츠들은 결국 일회성의 관심으로 끝나 버린다. 내재된 역사와 가치, 일상의 생활과 문화를 반영한 공간을 통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그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한다.

2. 기본구상

대전 원도심 구역 중 핵심 원도심 활성화 구역은 중앙로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대흥동, 북쪽으로 은행선화동, 동쪽으로 중앙동이 위치하고 있다. 충남도청은 은행선화동에 속해 있으며 약 1.1km의 중앙로를 따라 정면에 대전역이 위치하고 있다. 오랜 역사의 쉼을 담고 있는 대전 원도심은 곳곳에 근대 시대 건축물이 남아 있으며, 근대건축물 중 카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소실된 근대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어 지자체 및 역사 단체에서 근대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대전 도시형성의 역사적 맥을 같이하는 충남도청은 원도심의 대표적인 근대건축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사람들은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물과 연관 지어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충남도청 이전부지는 도시의 고유문화를 반영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지역 문화 공간으로의 조성이 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자원과의 소통과 연계를 통한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계획안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4-2 계획의 구상도

첫 번째, 대흥동, 은행선화동, 중앙동의 경계를 기준으로 내재되어 있는 문화자원을 수집한다. 또한 그 지역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화 활동에 집중하여 참여하고 있는 지역 활동가, 예술가, 전문가, 학생 등 주체가 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내부의 동향을 분석한다.

두 번째, 문헌조사, 현장조사,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문화자원과 활동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남도청 이전부지와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프로그램은 시간, 장소, 주체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계획되어지며, 지역문화자원인 콘텐츠와 충남도청 이전부지인 공간적 요소가 서로 한쪽 방향으로만 연계되는 것이 아닌, 양쪽이 모두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순환 구조의 프로그램으로 기획한다.

세 번째, 지역문화자원의 수집과 주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획된 프로그램과 물리적인 연계를 계획하고 활용 안을 제시한다. 물리적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충남도청 이전부지와 원도심 내 주요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앞서 기획된 프로그램과 함께 연계하여 제안할 광역적 차원의 도시 투어 프로그램, 공공성을 담고 있는 충남도청의 장소적 가치를 담아 공공을 위한 외부공간 활용 계획을 제안한다.

네 번째, 원도심을 대표하는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획된 문화 공간 운영체계를 제안하며, 더 나아가 대전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대전 고유의 색깔을 지닌 도시 문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명확한 범주와 목적을 지닌 브랜딩을 기획한다.

제2절 계획안 제시

1. 원도심 내부 지역문화자원 발굴

대전 원도심에 대한 범위는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설정하고 있다. 그 중 연구의 범위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양편에 형성된 다섯 블록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다섯 블록은 1990년대 이후 대전역과 대전천 사이에 새롭게 형성된 상업지역(현재 중앙동에 속하는 중앙시장 일대)과 충남

도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행정 기능의 중심지역이 서로 교차하며 형성된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도심 내부의 문화자원 조사는 중앙로 양편의 다섯 블록을 기준으로 법정동인 대흥동과, 행정동인 은행선화동과 중앙동의 중앙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 한다.

(1) 대흥동

1) 지역문화자원

대전광역시 중구에 속한 법정동인 대흥동은 도심 중심지역으로 외부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주요 기관과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이 위치한 상업 및 주거 발달지역이다. 특히 원도심 내에서 현재 젊은이들의 거리 문화 활동이나 지역 예술 단체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대부분의 소극장, 전시공간, 문화단체들이 밀집해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대흥동 내에서 발견한 문화자원은 ①근대건축물 ② 등록문화재 ③ 공방 및 출판사 ④화방 ⑤공연장 ⑥카페 ⑦전시공간 ⑧문화단체와 같이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문화자원으로 인식한 카페는 단순히 음료만을 파는 것이 아닌 공연 및 전시, 축제의 홍보 등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카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대흥동에 문화자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이다. 대흥동은 충남도청과 중구청 사이 도시철도 1호선 중구청역과, 중앙로 사거리에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이 위치해 있다. 이는 실제로 젊은이들이 원도심으로 접근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지하철이라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지역문화자원들의 밀집의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전 원도심 구역은 중심 상업지구 및 업무시설의 밀집으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근대건축물	등록문화재	공방 및 출판사	화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구청사 2. 남기철가옥(대흥동 496-2) 3. 제일화재(한화손해보험) 4. 대한의사협회 5. 가톨릭문화회관 6. 대흥동성당 7. KT 대전지사 8. 좋은부동산 9. 금복주 대전사무소 10. 영창상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남도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손수/그린빈 2. 손끝공예 한지필방 3. 책만드는 여자 4. 월간도마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백제필방 2. 한국화방 3. 서울화방표구 4. 제일화방 5. 일신필방
공연장	카페	전시공간	문화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톨릭문화회관 2. 상상아트홀 3. 소극장 금강 4. 팔로미노 5. 소극장고도 6. 소극장햇도그 7. 벗피 라이브홀 8. 소극장 마당 9. 드림아트홀 10. 예술합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호다방 2. 도시여행자 3. 초록지붕 4. 설당수박 5. 느린나무 1호점 6. 테라스 J 7. 청춘다방 8. 햇비 9. 북카페 이데 10. 봄(bom) 11. IL VINO caffe 12. 비둘 13. 느린나무 2호점 14. 모모제인 15. 네스트791 16. 앳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의사회관 2. 덕린갤러리 3. 스페이스씨 4. 쌍리갤러리 5. 현대갤러리 6. 쌍암이용원 7. 산호여인숙 8. 대전프랑스문화원(분원) 9. 대전평생학습관/대전갤러리 10. 이공갤러리 11. 우연갤러리 12. 이안갤러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문화연대 2. 대전중구문화원 3. 대전프랑스문화원분원

그림 4-3 대흥동일대 지역문화자원 분포도

하지만 대흥동에는 우리들 공원과 대흥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젊은이들의 문화 활동 및 축제의 주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들 공원은 각종 활동의 주요 홍보 거점이 되는 곳으로 지역 젊은이들의 축제 이외에도 각종 단체들의 연합 행사의 장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문화 자원의 밀집과 접근성의 편리함 등을 바탕으로 대흥동은 대전 원도심 내 다른 법정, 행정동 보다 지역 문화를 형성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계획되어진 콘텐츠로 움직이는 문화가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 온 문화가 현대의 젊은이들과 만나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는 점은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문화 공간 활용에 현실적인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2) 지역문화활동

대흥동 내 밀집된 지역 문화 자원 중 일부는 이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흥동립만세’ 라는 지역 문화 활동을 이끌고 있었다. ‘대흥동립만세’ 란 자발성에 기초하여 개별 혹은 집단의 창의성이 병렬로 결합해 동 시간, 동 장소에서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방출하는 조직 없는 축전을 표방한다. 그러므로 축제를 위한 조직이나 후원을 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순순히 지역 활동가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대흥동립만세’ 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활동가들의 인터뷰 결과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이루어지는 만큼 사람들의 참여에도 크게 얽매이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5회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지나치게 ‘끼리 문화’ 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고 하였다. 대흥동에 분포된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인터뷰와 현장조사를 통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역문화자원을 연결하고 활동을 주관하는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4-4 대흥동일대 지역문화자원 거점도

내부적 네트워크는 카페(거점1), 공연장(거점2), 소극장(거점3) 세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주로 대흥동에서 일어나는 문화 활동의 기획, 홍보, 진행을 맡고 있고 연구자가 방문하기 훨씬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을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토론해 오고 있었다. 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가들이 사회에 요구하는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 방안은 무엇보다 충남도청이 상업화 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원도심을 상징하는 역사적 건축물이자 미래의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충남도청이 권력이 많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로운 문화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와 예술을 위한 ‘문화 예술 학교’로의 활용을 언급하였다.²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문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지역 내의 문화 활동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있는 문화 활동가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 충남도청의 활용 계획안에 타당성을 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20) 제한된 인터뷰 대상자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모든 문화 활동가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은 아님.

표 4-1 대흥동 지역문화활동 ‘대흥동립만세’

대흥동립만세 (대흥동 지역 문화 축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흥동립만세’ 는 자발성에 기초해 개별 혹은 집단의 창의성이 병렬로 결합해 동시간, 동장소에서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방출하는 축전 · ‘독립’ 을 보장안 조직없는 축전을 표방함
대흥동립만세에 참여 한 지역문화자원 지도	
	
<p>* 대흥동립만세는 매년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로 해마다 참여 업체들이 달라진다. 또한 ‘조직 없는 축전’ 을 표방하여 축제를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소개지 대신 각 공간 마다 자발적인 홍보물을 준비하였다. 위의 지도는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참여 대상지를 표시한 것으로 기록되지 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p>	
<p>장점 : 자발적 참여로 인한 활동으로 예술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같은 뜻으로 참여 하고 있음.</p> <p>한계 : 지나친 ‘끼리 문화’ 로의 확대.</p> <p>충남도청이전부지활용 :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학교의 용도로 활용되기를 바램.</p>	

3) 소결

대흥동 지역문화자원 분석 및 지역 활동가들의 관찰을 통해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문화 공간 활용과 연계할 수 있는 요소는 세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측면에서 지역 활동가들과 같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되는 풍부한 인적 자원의 확보이다. 전시 공간, 소극장, 카페, 화방 등 다양한 자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재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있어 이미 관심을 가지고 논의가 되었다. 무엇보다 문화 공간으로의 활용 의견은 향후 충남도청이전부지의 문화 공간 활용에 있어서 주체가 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제안하는데 적합한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림 4-5 대흥동 문화자원 활용방안 구상(안)

두 번째, 공간의 측면에서 지역 문화 활동의 거점이 되는 ‘산호 여인숙’ 과 ‘월간 토마토(북카페 이데)’, ‘우리들 공원’ 은 향후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문화 공간 조성에 있어 광역적 차원의 연계를 계획할 수 있는 거점 요소이다. 이는 영역의 확장 및 원도심 전체의 문화 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더 나아가 아동, 청소년 및 다른 동네 시민들,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에게 대전의 주요 문화 요소를 탐방 할 수 있는 문화 탐방 코스로 제안이 가능하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세 번째, 운영의 측면에서 지역 문화 활동의 주체들과, 문화 단체들을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활용한 문화 공간의 운영 조직과 연계하여 계획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주체들과 문화단체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 된다. 지역 활동가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대전시와 문화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지향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 운영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새로운 운영 체계는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운영 뿐 아니라 대전 원도심 전체의 문화 영역에 있어 원도심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2) 은행선화동 및 중앙동

1) 지역문화자원

① 은행선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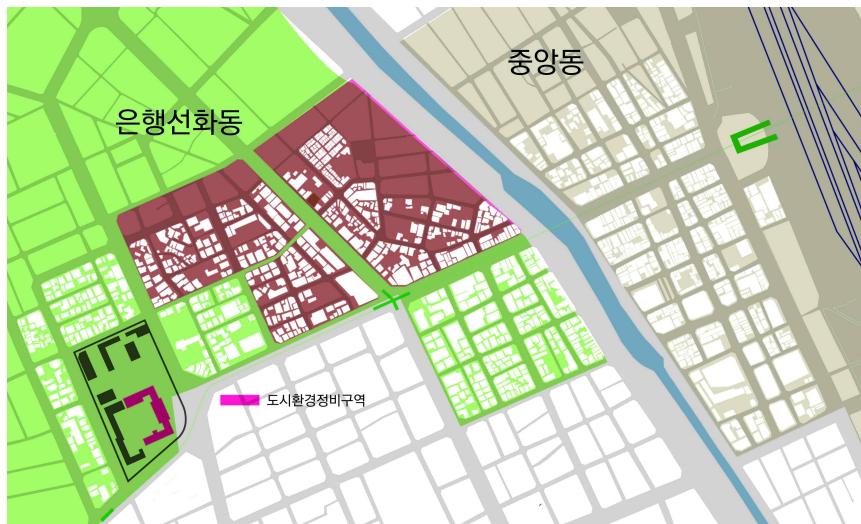


그림 4-6 은행선화동 도시환경정비구역

대전광역시 중구에 속한 행정동인 은행선화동은 법정동인 은행동과 선화동을 포함하고 있다. 은행선화동은 충남도청 등 주요 기관이 위치하고 있고 은행동 로데오 거리, 으느정이 문화거리, 선화동 전문음식거리 등 전문화된 특화거리가 지

정되어 있다. 대흥동에 비해 문화 시설보다는 상업시설 위주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은행동 지역은 중심 상업지역, 선화동 지역은 현재 상당 구역이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은행 선화동에서 찾을 수 있었던 지역 문화 자원의 대부분은 근대 건축물 이었다. 주로 선화동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미 카페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빈집, 웨딩홀 등 상업 공간으로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목적시장과 인접한 목적시장 일식가옥촌은 향후 문화 공간과 연계하여 활용하기 좋은 요소로 파악된다.



그림 4-7 은행선화동 지역문화자원 분포도

은행동의 가장 큰 지역 문화 자원은 ‘은행동 문화의 거리’, ‘으느정이 거리’와 같은 상업 특화거리를 꼽을 수 있다. 은행동 특화거리는 대전을 대표하는 특화 거리로서 하루 유동인구가 약 14만 명에 달한다. 또한 중앙로 지하상가의 의류 및 패션 잡화 거리와 인접하여 대흥동, 중앙동과 차별되는 중심 상업 지구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은행동과 함께 패션 특화거리로 유동인구가 밀집되는 중앙로 지하상가는 현재 지하철과 연결되어 원도심 내 주요 도심 보행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주요 업종은 주로 의류업종으로, 이용자의 대부분이 젊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충남도청으로 유동인구를 유도할 수 있는 동선의 연계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중앙동

대전광역시 동구에 속한 행정동인 중앙동은 경부고속철도의 개통과 관련해 원도심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었지만, 지금은 대흥동, 은행선화동에 비해 가장 노후화 되어 있는 동네이다. 하지만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을 비롯하여 역전시장, 국제시장, 신중앙시장 등 8개의 재래시장이 있고 동구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6개의 특화거리 중 5개(한복거리, 공구거리, 한의약거리, 인쇄거리, 중부건어물거리)가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동은 대전역과 가장 인접하고 역사의 흔적을 가장 오래 유지하고 있어 대전 원도심의 전통적인 문화를 체험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열악한 주변 환경과 쇠퇴한 도시 기반 시설은 그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근대건축물

- 18. 우리은행대전중앙지점
- 19. 주원빌딩
- 20. 대전중앙시장(주)
- 21. 대영종합상사

등록문화재

- 3. 다비치안경원(대전우체국)
- 4. 신한은행대전역금융센터

특화거리

- D. 중부건어물 거리
- E. 인쇄거리
- F. 한의약거리
- G. 공구거리
- H. 한복거리

그림 4-8 중앙동 지역문화자원 분포도

2) 지역문화활동

① 은행선화동


은행선화동 내의 근대건축물 중 구 대전시장의 관사로 사용되었던 건물은 지금 ‘카페 안도르’ 라는 대안 문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카페 안도르’ 를 중심으로 은행선화동의 대표적인 지역 문화 활동인 ‘닷찌 폴리마켓’ 이 진행되고 있고 이는 목척시장 길을 따라 한 달에 두 번 시행되고 있다. ‘닷찌 폴리마켓’ 은 대전의 소비자와 작가들이 문화적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인들 간의 교류를 위한 예술벼룩시장을 표방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트마켓, 벼룩시장, 공연, 전시, 관객 참여형 콘텐츠가

있으며 매 시간 최대 1500명 이상 까지 몰리며 성공적인 지역 문화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목척시장 일대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카페 안도르’ 역시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에 대한 압박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만나본 ‘닷찌 플리마켓’의 주체자들은 재개발이 진행되어 쫓겨난다 해도 지금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대전시와 지역 문화 활동가들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문화재단’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지자체의 지원에 기대하기 보다는 지역 활동가들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문화 예술 지원 정책의 컨설팅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기획과 체계적인 계획 없이 따라 하기 식의 예술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점 이었다. 이러한 단발적인 프로그램들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의미마저 와해시키고 단지 일회적인 이벤트성의 축제로만 각인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강조하였다.²¹⁾

표 4-2 은행선화동 지역문화활동 ‘닷찌플리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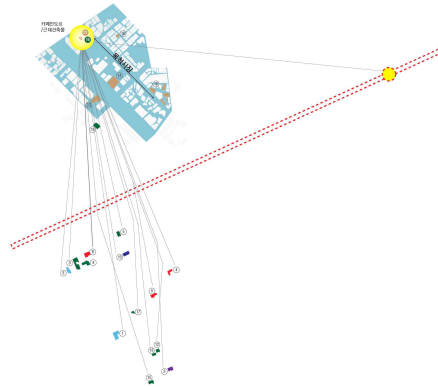
닷찌플리마켓 (은행선화동 지역 문화 축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닷찌 플리마켓은 대전의 소비자와 작가들이 문화적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인들 간의 교류를 위한 예술벼룩시장 · 장소 : 대전시 중구 은행동 목척시장길 · 기간 : 3월~11월 매달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1시~6시 · 내용 : 아트마켓 + 벼룩시장 + 공연 + 전시 + 관객 참여형 콘텐츠
닷찌플리마켓 지도 및 이미지	

21) 2012.9.17.-23 동안 진행한 현장 인터뷰 및 서면 인터뷰 개요는 표 4-3을 참고.

카페안도르
/근대건축물



다른 동네와의 네트워크



닷찌 프리마켓의 홍보는 은행선화동 뿐 아니라 대흥동, 중앙로 지하상가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대흥동은 '대흥동립만세'에 참여했던 곳에서 전부 홍보를 돕고 있었다.

* 닷찌프리마켓은 '안도현'이라는 개인 작가에 의해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2010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시간 당 15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참여하며 즐기는 명실상부 은행 선화동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문화 축제이다.

장점 : 자본의 논리가 침범하지 않은 자율성이 보장 된 활동.

한계 :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기획하는 유사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본질이 침범 당하고 있음.
무분별한 기획은 중단 되어야 함.

충남도청 이전부지활용 : 무엇보다 문화 활동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② 중앙동

중앙동은 지역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문화 활동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대전천을 중심으로 은행선화동, 대흥동 일대는 젊은 이들을 위한 문화 시설 및 상업지역, 축제들이 기획 되고 있었지만, 중앙동 일대는 대부분 전통 재래시장의 구역으로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이 이용하며 특화거리로 지정된 것 이외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 하지만 8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대표 재래시장으로서 그 곳에는 20~30년 같은 자리에서 일해오고 있는 상인들이 대부분이다. 즉, 다른 지역 활동가보다 원도심의 변화된 모습과 지나온 역사에 대해 잘 아는 지역 역사의 살아 있는 증인으로서, 향후 아동 및 청소년, 외부인들에게 대전 원도심의 옛 흔적을 돌아보며 생생하게 안내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3) 소결

은행선화동과 중앙동 지역의 문화자원 분석 및 지역 활동가들의 관찰을 통해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문화 공간 활용과 연계할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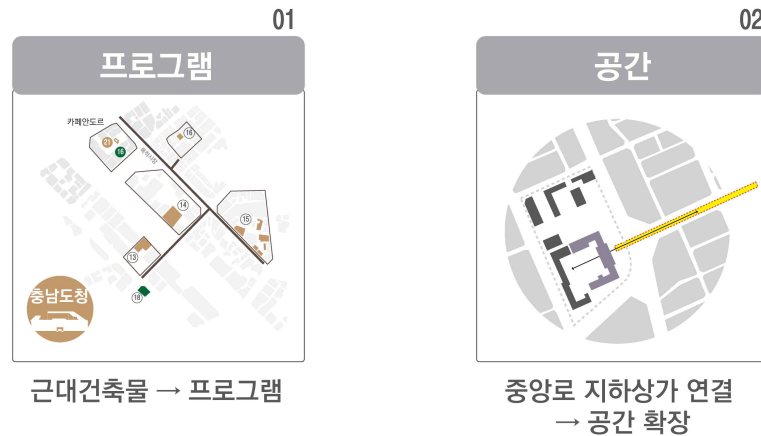


그림 4-9 은행선화동 문화자원 활용방안 구상(안)

첫 번째,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대안 공간으로의 활용 이외에 현재 비어있는 상태의 근대 건축물을 대상으로 충남도청과 연계하여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 할 수 있다. 이는 둔산 신도심과 가장 명확히 비교되는 원도심만의 역사 경관으로 원도심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활용 가능 하다. 또한 역사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가이드 역할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30년 이상 원도심 내에서 시장을 운영한 상인들을 함께 연계

하여, 생생한 역사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 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공간적인 측면에서 원도심 내 가장 변화한 중심 상업 거리인 은행동과 중앙로 지하상가 패션거리의 유동인구를 충남도청으로의 유입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남도청 앞에서 끊긴 중앙로 지하상가를 충남도청이전부지까지 확대하여 공간적인 연계를 계획 한다. 또한 공간적 확장을 통한 접근성의 개선 뿐 아니라 확장된 구역과 현재 담으로 막혀 있는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외부공간을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활용 한다.

(3) 지역문화자원 종합도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충남도청 활용을 위해 대흥동, 은행선화동, 중앙동일대의 문화 자원을 분석하고 현장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장 조사를 통해 근대건축물 21곳, 등록문화재 4곳, 전시 공간 13곳, 문화단체 3곳, 공방 및 출판사 4곳, 공연장 10곳, 카페 18곳, 화방 5곳을 도출하였다. 이는 문헌 및 분야별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업종에 관계없이 문화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곳을 추가로 문화자원으로 선정하여 종합하였다. 또한 문화 자원 이외에 축제와 같은 지역 문화 활동을 파악하고 그들의 관계망을 파악하여 원도심 내의 문화 활동의 거점이 되는 지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현재 원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문화자원은 이미 내부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역사적 자원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문화의 켜들이 21세기의 젊은 문화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근대건축물의 활용 뿐 아니라 예전부터 조성되었던 화방, 갤러리 거리에는 젊은 작가들의 유입되면서 예술 창작공간들이 자리 잡게 되었고, 오랜 역사의 가톨릭 문화회관을 필두로 작은 소극장들도 들어서게 되었다.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축제를 형성하게 하였

다. 이러한 변화는 침체된 원도심을 문화로써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공간로서 충남도청이 무엇보다 ‘지역 문화’에 공간을 두고 조성되어야 한다는 계획안에 타당한 근거가 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충남도청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앞서 도출한 지역문화자원들이 주요 콘텐츠가 되고 지역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즉, 충남도청의 주요 프로그램은 단순한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이 아닌 것이다.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 자원들의 전시와 공연이 연계되어 이루어지거나 도출된 문화 자원들이 서로 연합하여 지역 문화의 색깔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지역문화자원이 주요 콘텐츠가 되는 프로그램이 진행 되어야 한다.

표 4-3 인터뷰 개요

기간	2012.9.17 - 2012.9.23	
방법	현장 인터뷰/서면 인터뷰/월간지 인터뷰 발췌	
장소	대흥동, 은행선화동 일대	
드림아트홀	대흥동 502-15	소극장
햇도그	대흥동 208-3	소극장
극단 금강	대흥동 227	소극장
마당	대흥동 159-3	소극장
이공갤러리	대흥동 183-4	갤러리
쌍리갤러리	대흥동 249-2	갤러리
이안갤러리	대흥동 153-5	갤러리
대미갤러리	선화동 140-33	갤러리
스페이스 씨		전시 및 문화 공간
대전창작센터	은행동 161	문화단체
월간 토마토	대흥동 185-11	카페 및 문화 공간
대흥동립만세		지역 축제
산호여인숙	대흥동 185-11	게스트하우스/전시공간
대전 문화연대		문화단체
대흥동지팡이		축제
닷찌 프리마켓		축제
한남대 예술문화학과		학교
카페 안도르	은행동 21	카페 및 문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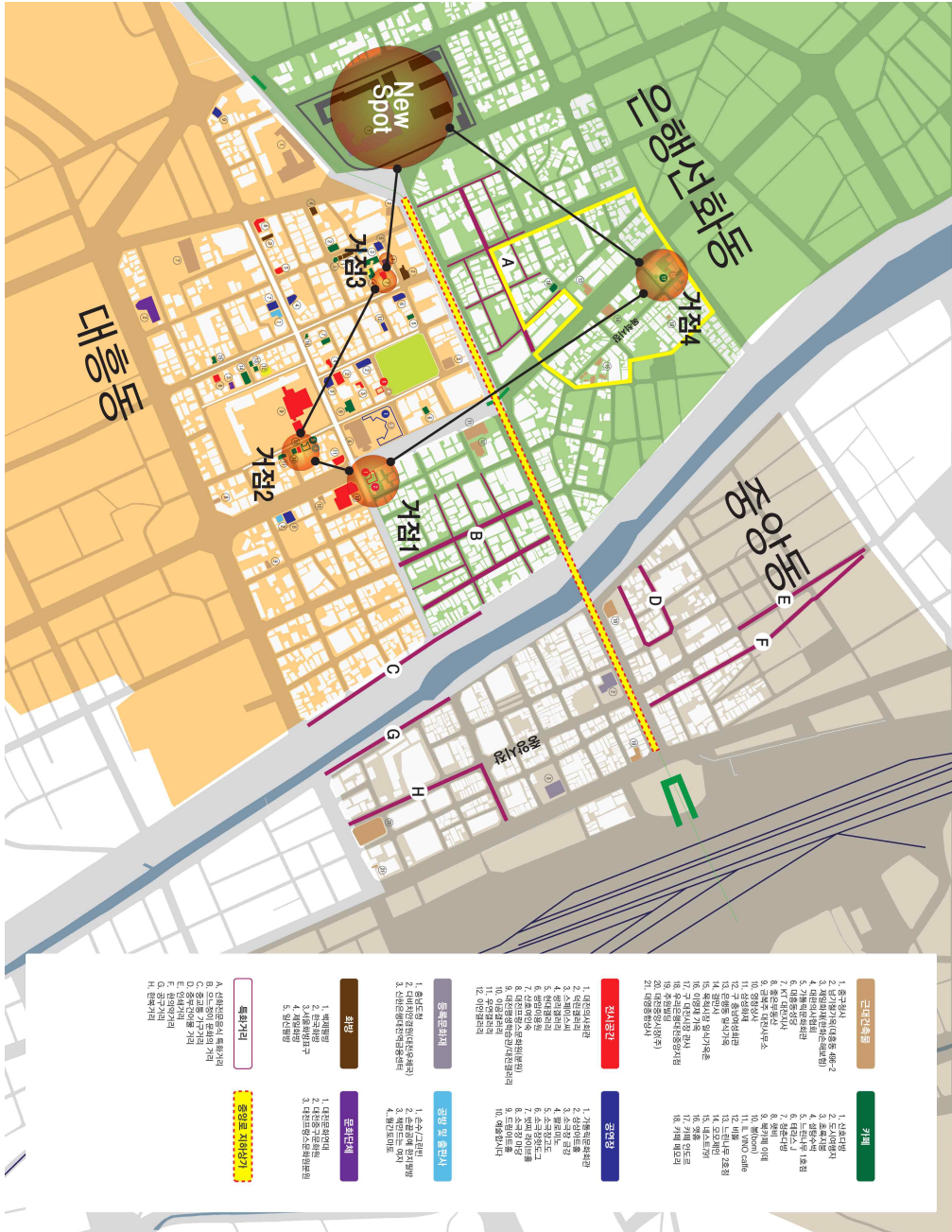


그림 4-10 대전 원도심 지역문화자원 종합도

2. 프로그램 계획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프로그램은 현장 조사, 문헌 조사,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원도심 내 지역문화자원과 연계 하는 방안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제안한다. 또한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원도심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광역적 차원에서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프로그램을 함께 제안한다.

즉, 지역 문화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형성하는 기획 프로그램과 공공의 시민들을 위해 계획 되어진 상설 프로그램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 기획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은 현재 원도심 내에서 지역 문화를 창조하고 기획하고 있는 지역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독립을 전제로’ 예술가들이 전달하고 싶은 창의적 메시지와 프로그램 기획의 자율성을 보장 한다. 또한 지자체와 활동가들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로서 현 ‘대전문화연대’에 지역 활동가들이 전문 인력으로 참여하여 틀에 박힌 행정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예술성과 창의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들에게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대신 활동가들은 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의 재능을 활용한 교육 및 실습 지도나, 충남도청 이전부지 문화 공간 내에서의 자원 봉사 등과 같은 순환 프로그램을 필수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자제들을 중앙동의 공구거리, 가구거리, 인쇄거리, 중앙시장을 활용하게 하여 지역 상권 활성을 함께 도모하는 등 ‘연대와 협력’의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즉, 기획 프로그램은 ‘독립을 전제로 한 연대와 협력’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는 일방적인 문화 생산과, 문화 소비의 구조를 개선하고 서로가 생산과 소비의 장을 공유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최소화 하며 문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그림 4-11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요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통해 찾은 지역 문화 자원들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기획프로그램(안)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원도심 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소극장(공연장)과 근대건축물을 함께 연계하여 근대건축물에서 펼쳐지는 릴레이 연합 공연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건축물은 대전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고 현재 도심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공연을 관람하며 도심 곳곳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색다른 컨셉의 공연으로 외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도 대전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밖에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토대로 다른 곳에서는 접할 수 없는 대전 원도심 지역만의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기획한다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뿐 아니라 지역문화공간으로써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

다. 이는 거시적 관점으로 대전 원도심의 재활성화 효과와 함께 ‘문화’로 대표되는 대전의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문화자원과 연계 한 기획프로그램(안)



그림 4-12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기획프로그램(안)

(2)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프로그램 : 상설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이외에도 공공의 시민들을 위한 상설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는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건축물 이외의 외부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기획 프로그램 및 그밖에 다양한 문화 활동을 담을 수 있도록 조성한다. 외부 공간의 세부적인 계획안은 다음 항인 3. 공간 활용 계획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4-13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프로그램 개요

상설프로그램의 주체는 공공에서 관리 운영하며 상황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서 임시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원도심 내 부족한 오픈스페이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한 넓은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남녀노소,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쉬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사회적, 물리적 무장애의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설 프로그램의 주된 영역인 외부 공간은 대전 원도심의 거점 역할을 하는 대표 오픈스페이스로 조성된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우리들 공원, 근대건축물등과 같이 현재 지역 문화 활동의 거점이 되고 있는 공간과 연계하여 문화 영역의 확장과 자원의 연결을 도모하는 고리 프로그램의 구조를 계획한다.

또한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본관 3층을 Roof Garden으로 조성한다. 이는 원도심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조망점으로 대전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도 좋은 방문 코스가 될 것이며, 쉽터 이외에 다양한 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폭 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설프로그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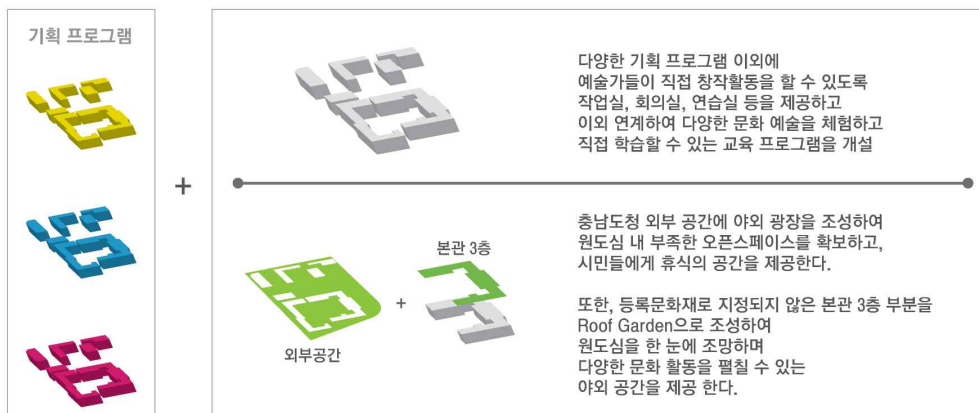


그림 4-14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안)

내부 공간에서의 상설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이 직접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업실, 회의실, 연습실 등을 제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을 체험하고 직접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한다.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강해 나간다.

(3) 소결

도심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충남도청이 지역과 밀착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단기, 중기, 장기의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먼저 단기적 계획으로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충남도청이 지역 문화 공간으로 정착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작업으로써 문화 공간 프로그램 뿐 아니라 도심 재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의 기반이 될 것이다. 중기적 단계는, 파악된 지역문화자원을 토대로 충남도청의 대표 프로그램을 계획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역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소통이다. 한쪽 입장의 일방적인 문화 생산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 할 때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 등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안정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충남도청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장기적으로 외부 지역과의 문화 교류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브랜드 계획, 홍보, 마케팅 계획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운영 관리 도입을 위해서 기존의 문화단체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문화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운영 체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와 같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프로그램, 축제, 이벤트 등은 도시의 대표 이미지를 형성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과거의 도시재생이 건축물을 활용하여 도시 이미지를 부여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21세기에는 잘 기획되어진 문화 프로그램, 축제, 이벤트 등이 과거의 건축물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건축적

활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대전 원도심의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면 공간과 콘텐츠를 모두 겸비한 대표적인 문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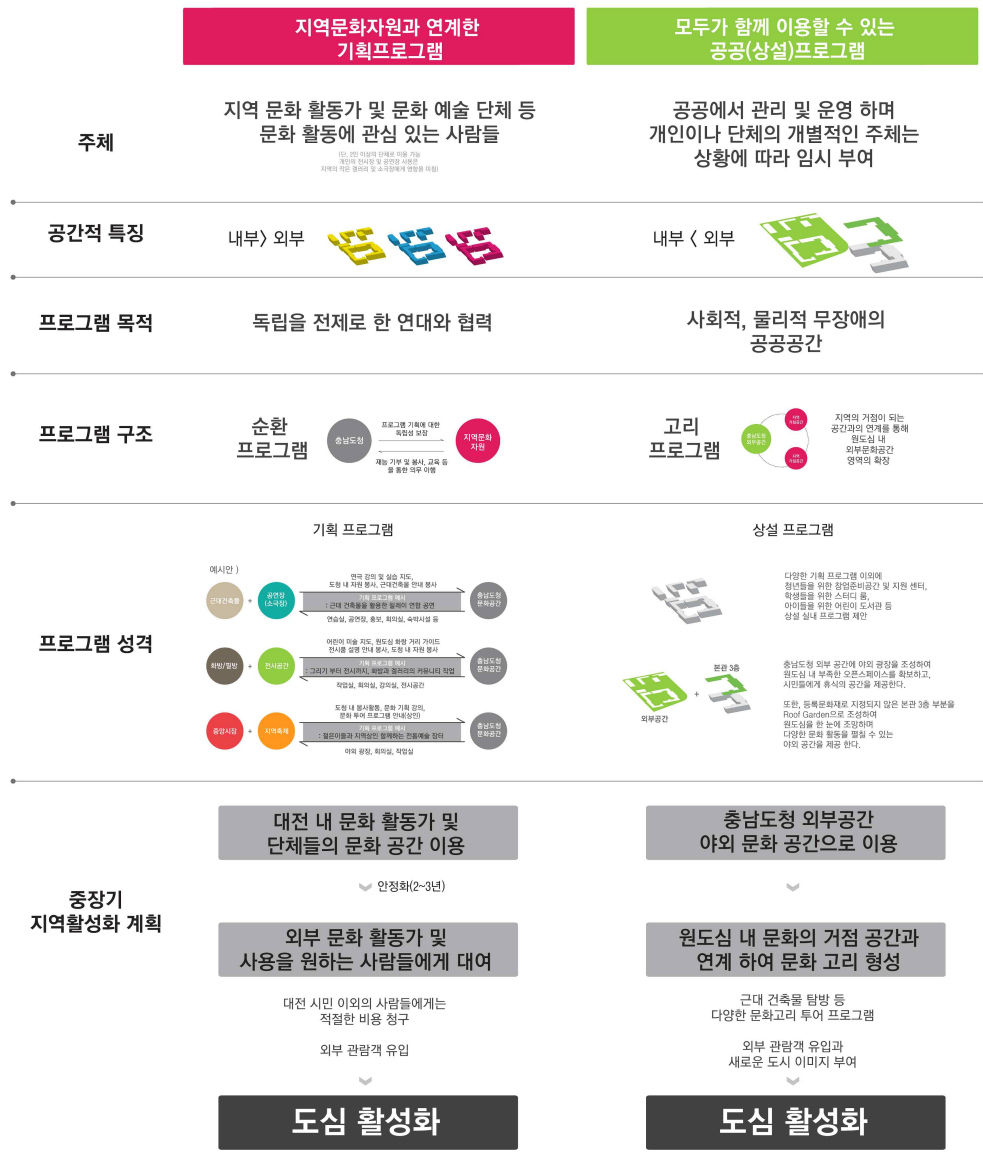


그림 4-15 프로그램 종합도

3. 공간 활용 계획

(1) 목표 및 기대효과

앞서 계획한 프로그램의 주요 계획은 고정적 성격이 아닌 주체와 참여자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되고 운영되는 기획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기획 프로그램은 도청의 내부 뿐 아니라 외부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더욱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 활동가, 시민, 방문객 등 다양한 사용자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외부 공간 활용 계획은 충남도청의 문화적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충남도청의 외부 공간 활용 계획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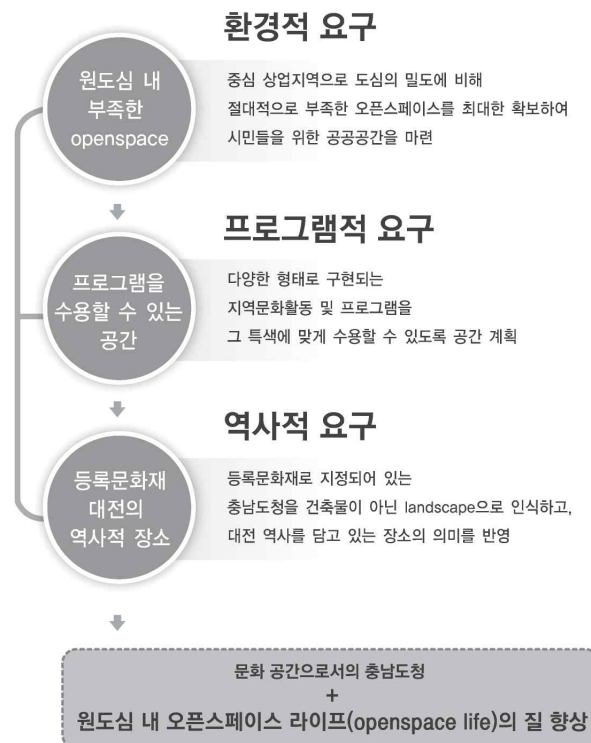


그림 4-16 공간 활용 계획의 목표와 기대효과

첫 번째는 환경적 측면의 목표이다. 현재 원도심은 중심상업지구로서 도심 밀도에 비해 오픈스페이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므로 충남도청 이전부지 내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적 측면의 목표이다. 프로그램은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담은 공간 역시, 고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프로그램 주제와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장소로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형태의 디자인을 제안한다. 세 번째는 역사적 측면의 목표이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충남도청을 단순히 건축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의 역사를 담고 있는 landscape으로 인식하여 그 장소성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제안한다.

(2) 건축물 활용 계획

1) 기본 성격

현재 충남도청 이전부지 내에는 14채의 건축물이 있다. 14채의 건축물은 도입되는 프로그램과 외부공간의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활용 형태가 정해지게 된다. 앞서 제4장 2절 2항에서는 충남도청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 자원, 문화 활동 및 콘텐츠와 밀착되어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계획된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충남도청의 전체적인 건축물의 성격을 제안한다.

충남도청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 자원을 연결해주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 제공되며 그로 인해 지역 문화와 시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즉 문화 소통 창구로서의 ‘지역문화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 원도심에서의 ‘지역문화플랫폼’이란 어려운 제도들과 복잡한 중간 단계로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던 기존의 문화 단체의 단점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운영주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생산 주체, 문화를 전파하는 활동 주체를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 활동가들이 직접 담당하여 창작자와 소비자가 다양한 접점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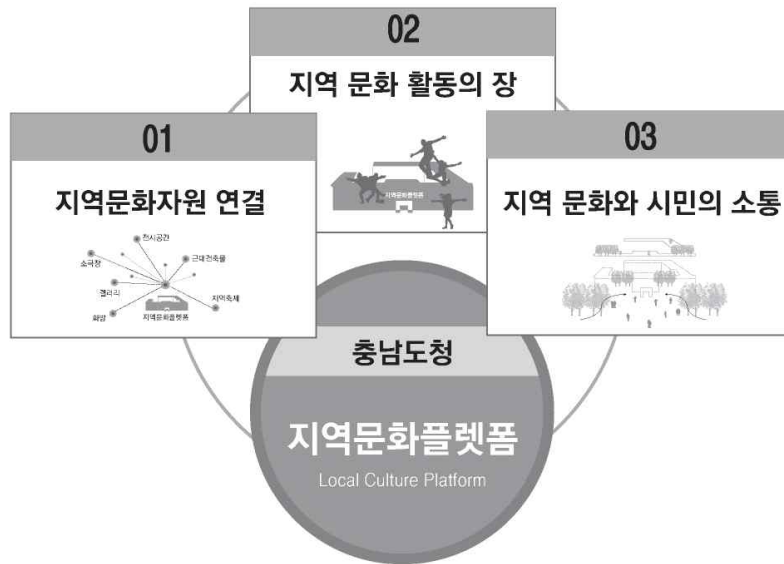


그림 4-17 충남도청의 새로운 성격

문화는 기획의 단계부터 결과를 함께 공유하기 까지 모든 과정이 각각의 개별 문화이다. 충남도청은 ‘지역문화플랫폼’으로써 다양한 문화 과정의 접점에 소비자들을 참여하게 하고 정서를 공유하게 하는 지역 문화 소통의 통로가 될 것이다.

2) 도입 기능 및 시설

‘지역문화플랫폼’으로서의 충남도청에 도입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이다.

- ① 지역 활동가들 및 예술가들이 문화를 만들어 내는 ‘문화 창작관’
- ② 지역 활동가들과 예술가들이 직접 기획한 문화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인 ‘문

화공유관’이다.

두 공간에 반영되는 주요 시설은 제4장 제2절의 1항에서 발굴한 지역문화자원을 토대로 계획하였다. 현재 원도심 내 지역문화자원은 분포의 정도에 따라 소극장, 전시 공간, 화방, 공방 등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근대건축물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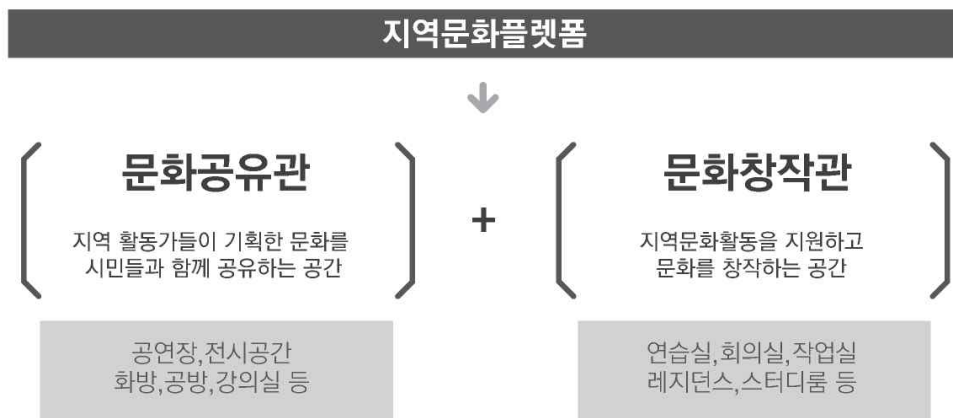


그림 4-18 도입기능 및 시설

먼저 ‘문화공유관’의 주요 시설로는 지역문화자원의 분포 현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지역축제를 이끌고 있는 주체가 되고 있는 공연장을 위주로 배치한다. 공연장은 지역 내의 소극장이나 라이브 공연장 등의 공연 및 문화 콘텐츠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 시스템을 계획한다. 그밖에 다양한 규모의 전시 공간과 공방, 화방, 판매시설, 시민들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강의실, 스튜디오 등의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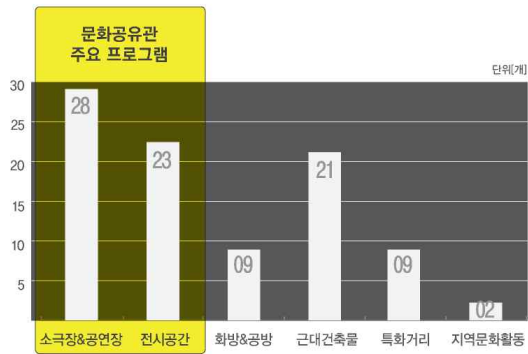


그림 4-19 지역문화자원 분포 그래프

을 계획한다.

두 번째, ‘문화창작관’은 지역 활동가들이 다양한 문화를 기획하고 창작할 수 있는 연습실, 회의실, 작업실, 스터디룸, 레지던스 등을 계획한다. 또한 예술가들의 문화 창작 과정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공간을 도입한다.

그 밖의 기타 기능으로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관리동이 있다.

3) 건물 배치 계획

표 4-4 건축물 배치 계획

새로운 기능		활용 건축물(조성 방법)
1	문화공유관	충남도청 본관 (3층 리노베이션)
		충남도청 신관 및 의회청 (증축, 리노베이션)
		충남도청 대강당 (리노베이션)
2	문화창작관	충남도청 후생관 (증축, 리노베이션)
		충남경찰청 본관 (증축, 리노베이션)
		충남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증축, 리노베이션)
3	관리동	우체국 (증축, 리노베이션)
		선관위 (증축, 리노베이션)
철거 건축물		운전자대기실
		국제통상과
		충남경찰청 별관
		충남경찰청 상무관

(3) 외부 공간 활용 계획

1) maste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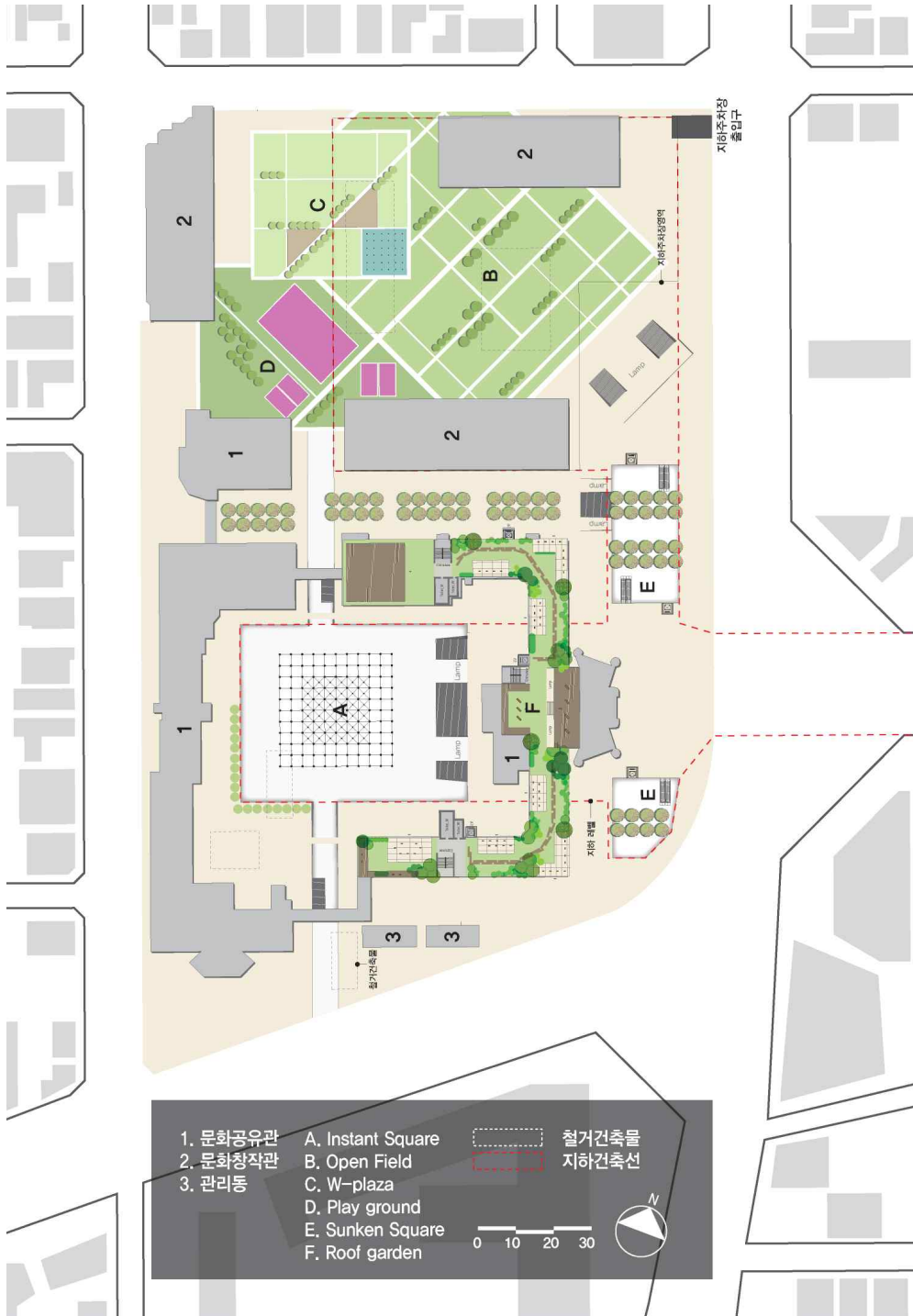


그림 4-20 Master Plan

2) 동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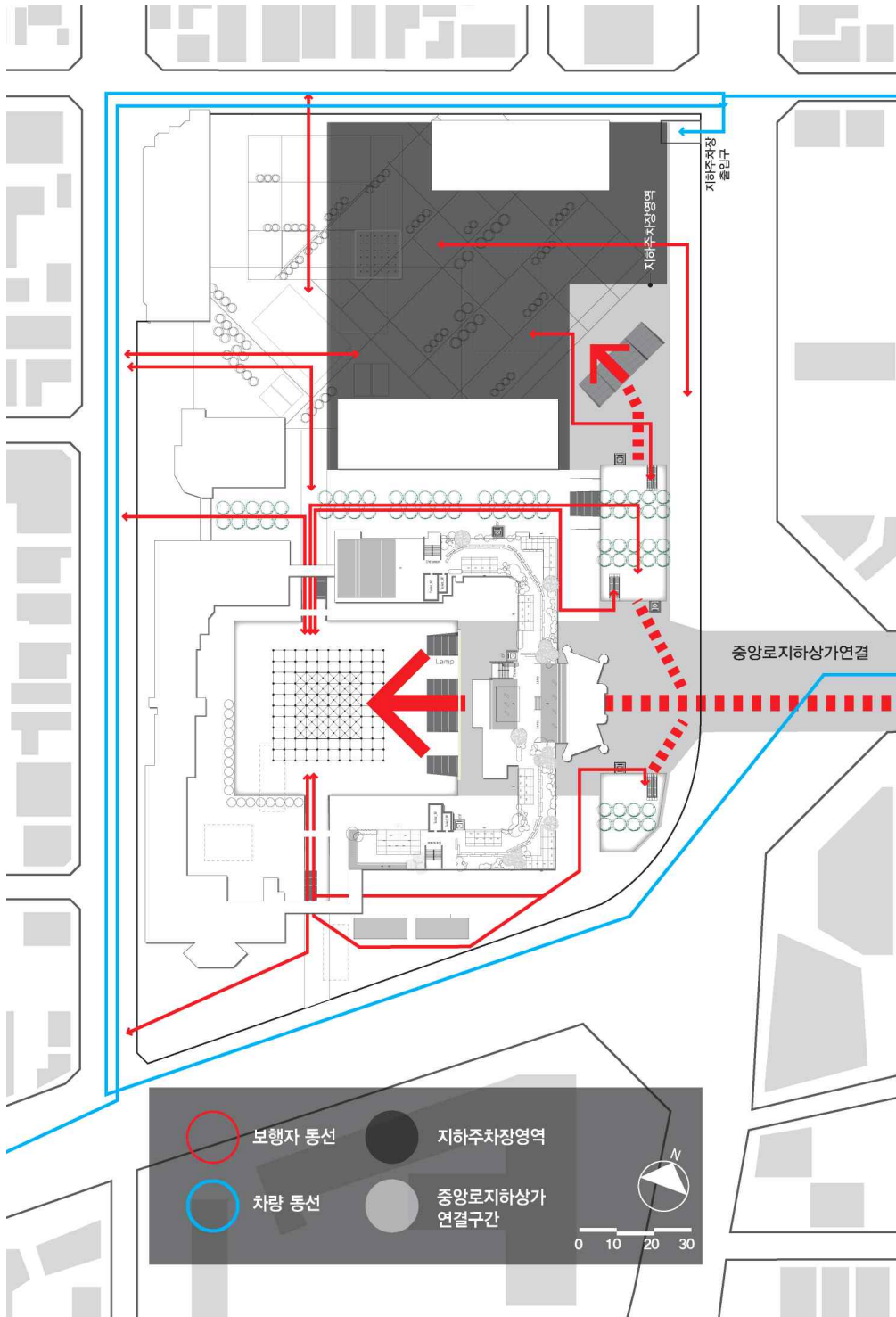


그림 4-21 동선계획

3) 식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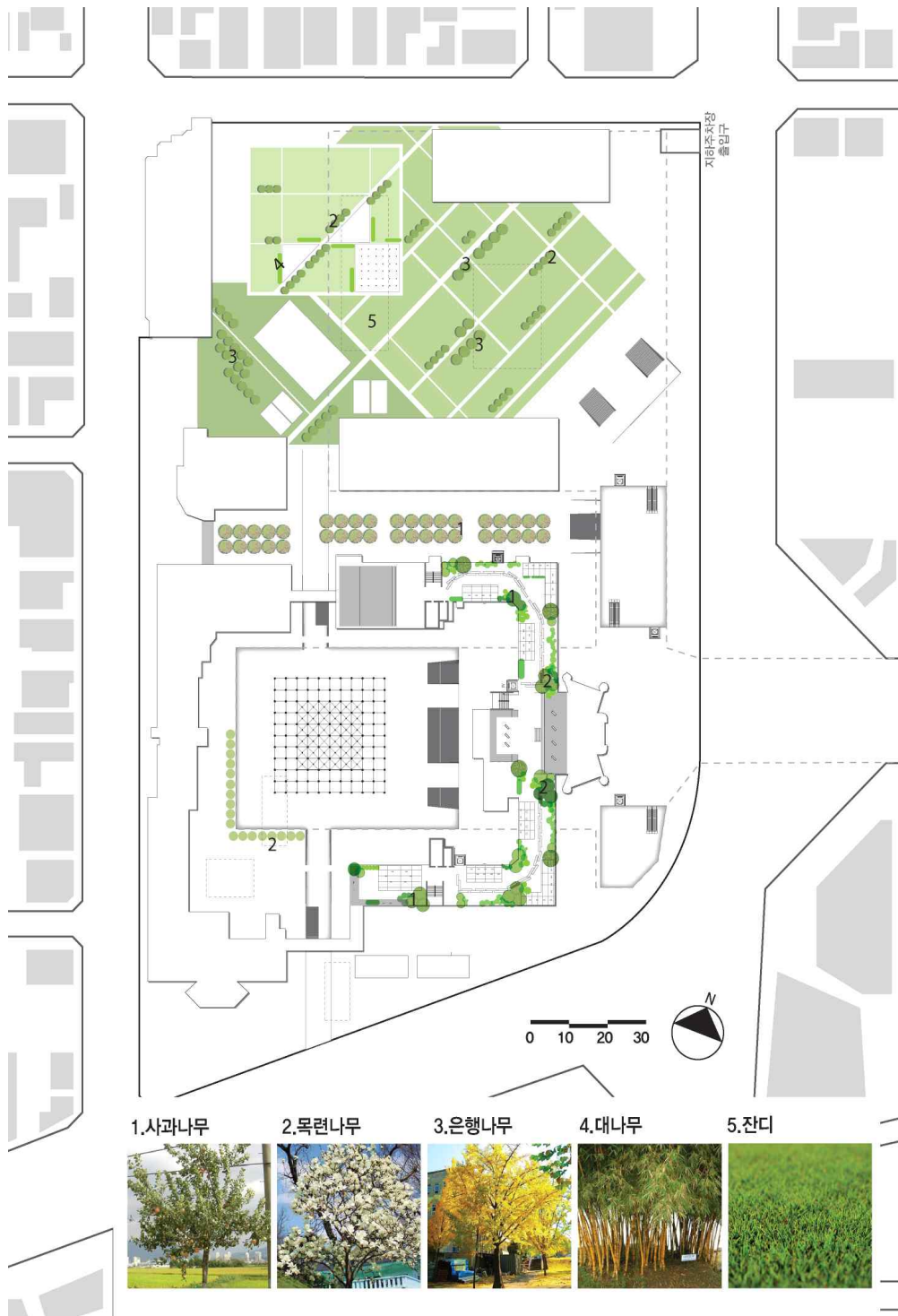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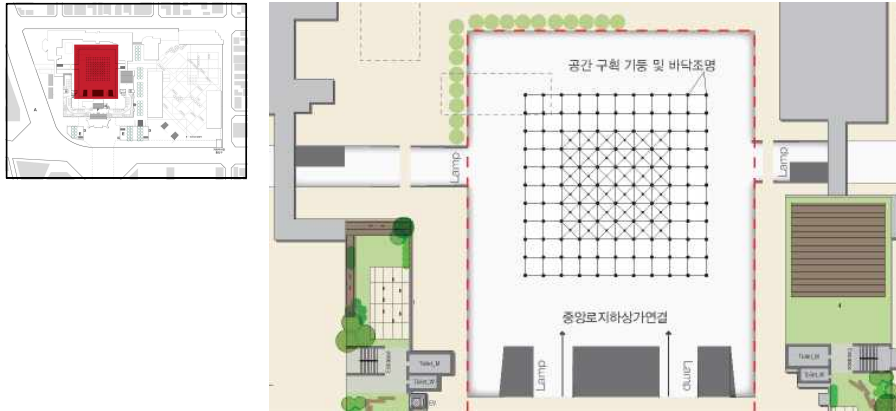


그림 4-22 식재계획

4) 세부 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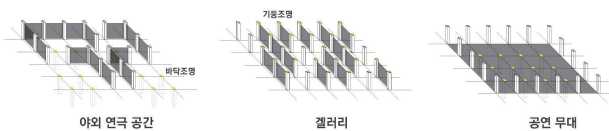
① Instant Square : 충남도청 본관, 별관, 의회청(문화공유관) 사이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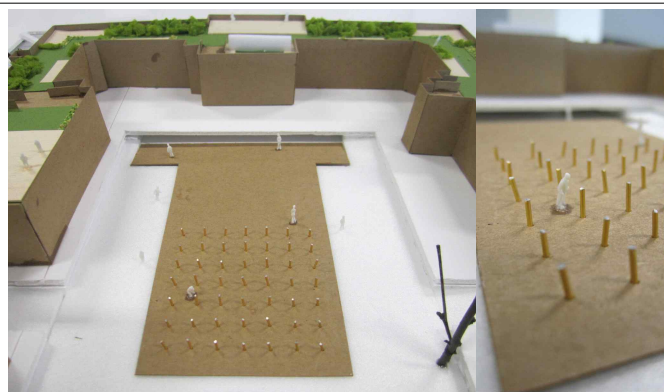
설계 개념

- 프로그램에 따라 공간의 형태가 변형되는 가변적 공간
- 다양한 장소가 구현되는 가변적인 공간으로 영역과 기능간의 명확한 구분보다는 이를 넘나드는 컨버전스형 문화공간으로 설계
- 현재 원도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활동과 축제들이 연계되어 대상지 내에서 가장 Active한 문화 공간

개념 이미지



모형 이미지



예상 프로그램

공연, 축제, 장터, 전시회, 광장 등

② Open Filed & W- Plaza & Play Ground

: 충남도청 후생관 및 충남경찰청 (문화창작관) 사이 공간



설계 개념

Open Filed

대전(大田)을 의미하는 밭 모양의 형상의 잔디 광장 I
 대상지 내 오픈스페이스 중 시설물 설치가 가장 적고, 잔디와 수목으로만 이루어진 공간으로, 원도심 내 시민들과 직장인들, 방문객들의 휴식을 위한 대표 공간.

W- Plaza

대전(大田)을 의미하는 밭 모양의 형상의 잔디 광장 II
 잔디와 바닥 분수, 데크가 어우러진 공간

Play Ground

대전(大田)을 의미하는 밭 모양의 형상의 잔디 광장 III
 잔디광장과 함께 스포츠 및 놀이를 할 수 있는 활동 공간

개념 이미지

대전
 ‘大田’

큰 밭, 한 밭
 대전의 상징하는 밭 형상의
 넓은 잔디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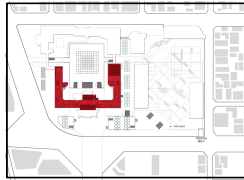
모형 이미지



예상 프로그램

공연, 축제, 장터, 전시회, 광장 등

③ Roof Garden : 충남도청 본관(문화공유관) 3층



설계 개념

- 충남도청 3층 공간을 Roof garden으로 조성하여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확장.
- 대전을 내려다보며 역사를 함께 알 수 있는 memory board를 설치하여 역사적 의미를 담아 주요 조망점으로 계획
- view point 지점을 선정하여 내려다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 조성
- 옥상에서도 공연 및 전시 등 문화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데크를 사용해 옥상무대 조성

모형 이미지



예상 프로그램

휴식, 산책, 만남, 공연 등

5) 단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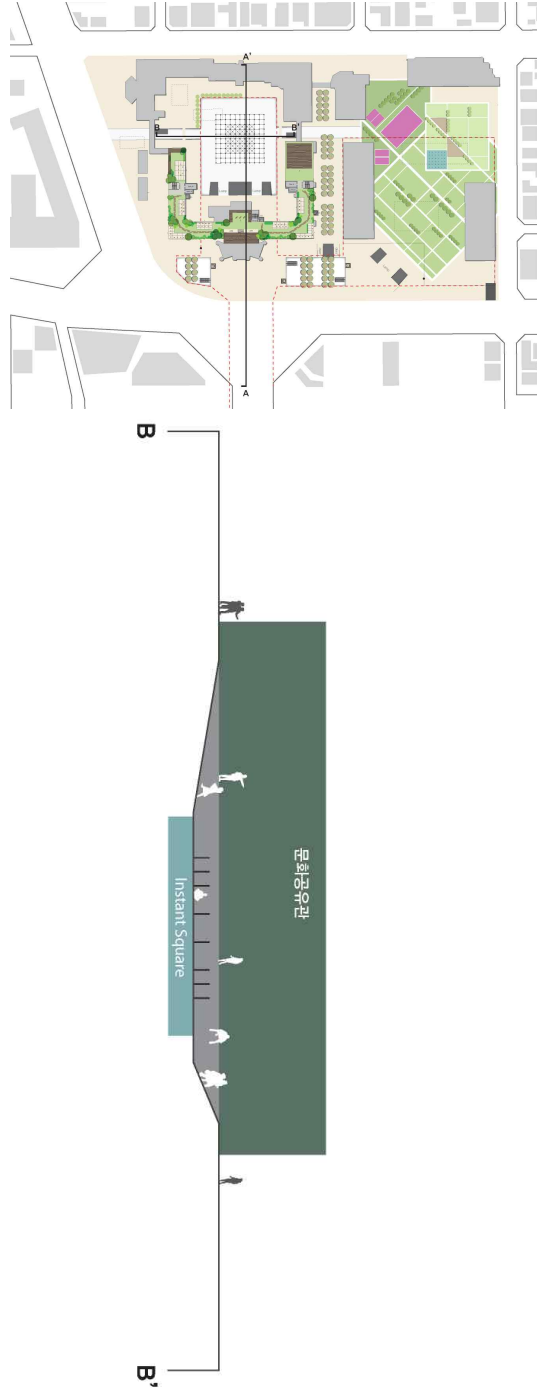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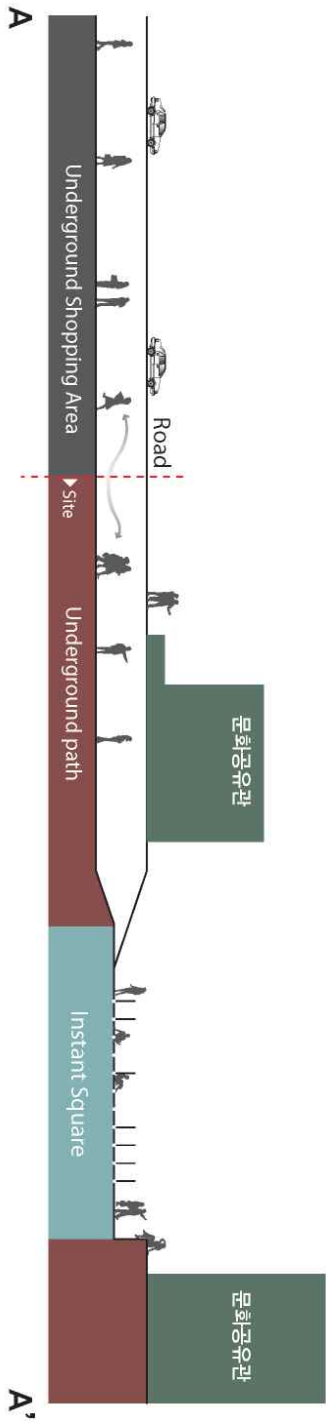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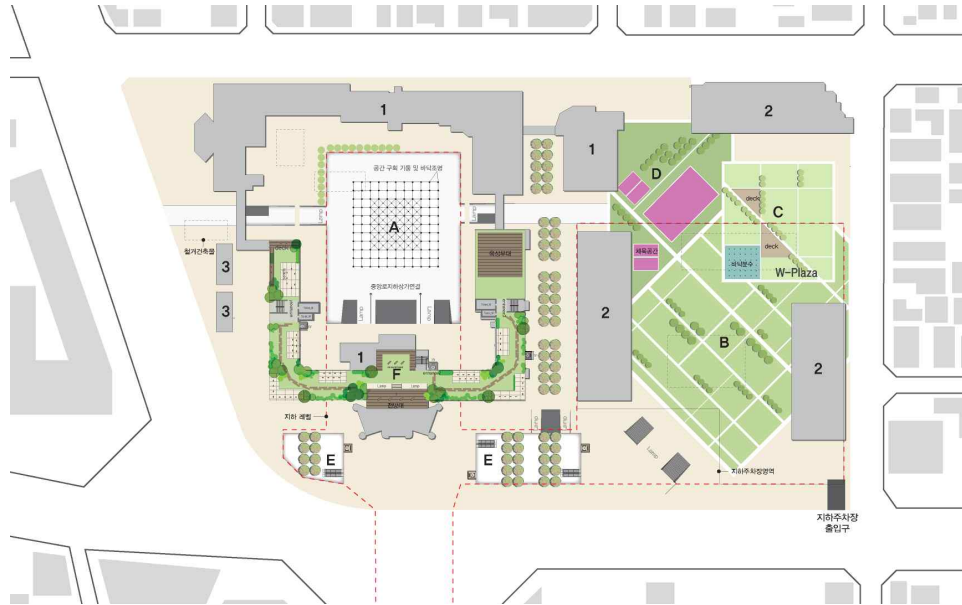


그림 4-23 단면도

(4) 종합계획도



건축물 활용 계획

새로운 이름		활용 건축물
1	문화공유관 (공연장, 전시장, 화방, 공방, 강의실 등)	충남도청 본관 (3층 리노베이션) 충남도청 신관 및 의회청 (증축, 리노베이션) 충남도청 강당 (리노베이션)
2	문화창작관 (연습실, 회의실, 작업실, 레지던스 등)	충남도청 후생관 (증축, 리노베이션) 충남경찰청 본관 (증축, 리노베이션) 충남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증축, 리노베이션)
3	관리동	우체국 (증축, 리노베이션) 선관위 (증축, 리노베이션)

외부 공간 활용 계획

A	Instant Square	충남도청 본관, 별관, 의회청(문화공유관) 사이 공간
B	Open Filed	충남도청 후생관 및 충남경찰청(문화창작관) 사이 공간
C	W-Plaza	
D	Play Ground	
E	Sunken Square	충남도청 본관(문화공유센터) 동쪽 공간
F	Roof Garden	충남도청 본관(문화공유센터) 3층

(5) 모형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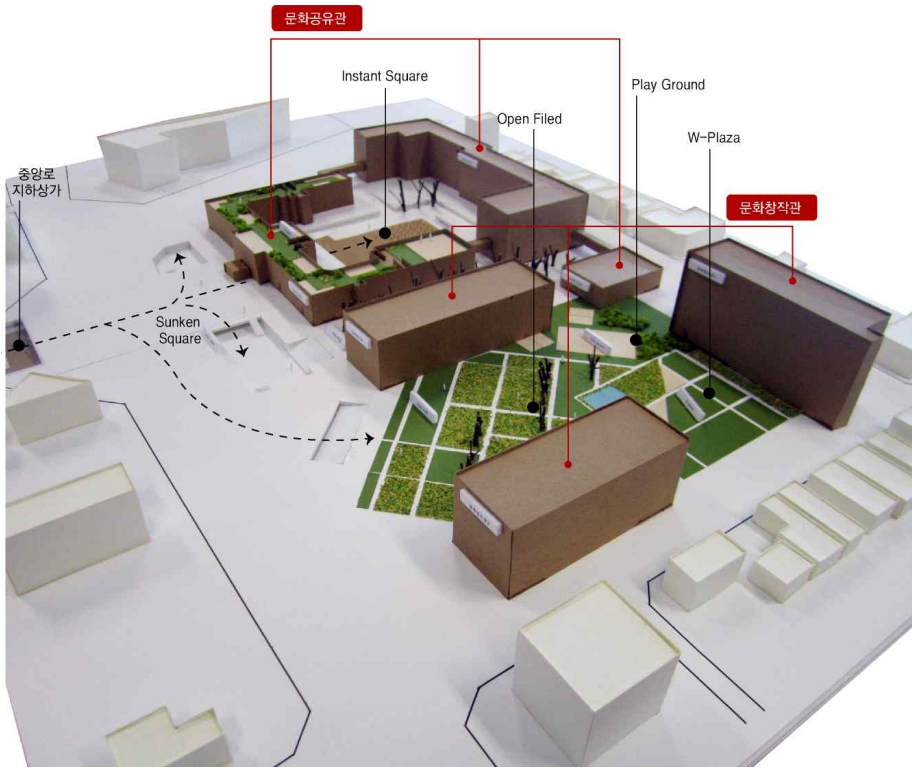


그림 4-24 모형사진

4. 운영 관리 계획

(1) 브랜드 계획

충남도청은 대전이라는 도시의 역사를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담아내고 있는 물리적인 기록체이다. 과거 대전역과 함께 도시의 뼈대를 형성하면서 대전의 원도심이 형성되게 되었고, 각종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과 상업지구의 밀집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원동력 역할을 하였다. 2012년 말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충남도청은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게 되고, 신도심에 밀려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원도심에는 다시 위기가 찾아 올 것이다.

그러나 충남도청의 이전은 비록 도시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지역에 축적된 자원을 바탕으로 ‘2012년의 원도심 문화’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지역문화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 공간을 제안하였고, 주된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여 기획과 상설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덧붙여 ‘지역문화플랫폼’으로서의 충남도청이 지역에 밀착된 문화 공간으로써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 계획 뿐 아니라 그에 적합한 홍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 충남도청을 상징화 할 브랜드를 성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안하고자 하는 브랜드는 다음과 같다. 지역 밀착형 ‘지역문화플랫폼’이라는 공간의 개념과 충남도청의 ‘ㄷ’자 형태의 건축물을 형상화하여 지역문화와 충남도청이 톱니가 맞물리듯 밀착되어 함께 소통한다는 의미의 이미지를 도출해 브랜드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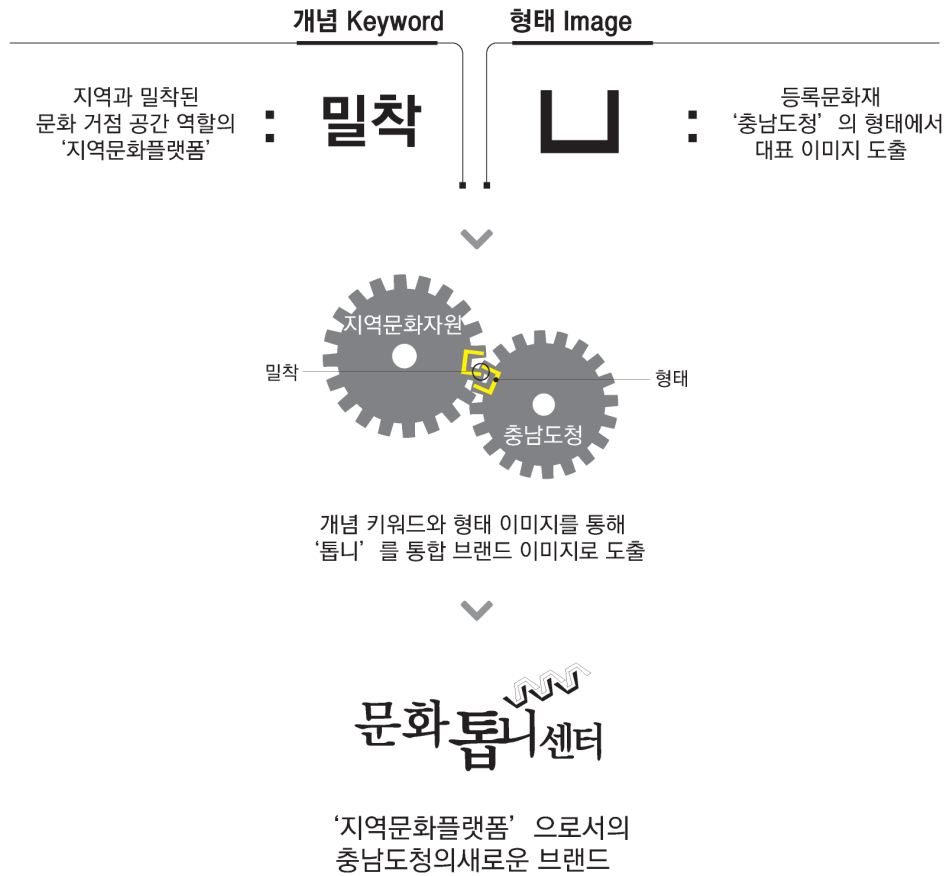


그림 4-25 충남도청의 새로운 브랜드 도출

충남도청의 형태를 보고 연상될 수 있는 ‘툽니’ 이미지는 형태와 함께 두 개가 잘 맞물려야만 원활하게 돌아가게 된다는 작동의 의미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 원리를 지역의 문화와 공간이 맞물려 원활하게 작동하여 ‘지역문화플랫폼’ 으로서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툽니’ 이미지는 더 나아가 지역 뿐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문화들과도 조화롭게 맞물려 어울릴 수 있는 다양성과 융합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

(2) 운영 계획

지역문화와 밀착된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문화 활동가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현재 원도심내 문화 활동은 대전시와 지역 문화 활동가들을 연결해 주는 대전문화연대가 중간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대전문화연대는 지방이라는 환경이 가져다준 소외와 불평등으로 지역문화의 고유한 개성을 지키지 못하고 획일적인 중앙문화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기술 관료들의 비문화적 관점으로 문화 환경이 피폐화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며 창립되었다. 그에 대한 활동으로 대전 원도심의 역사를 주제로 한 강좌 및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전문가들과의 문화 정책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문화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대전문화연대의 조직 구성이 문화 예술에 관한 전문 인력보다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행정적인 전문 용어와 지역문화 활동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다.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을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대전문화연대가 문화 활동가들과의 일차적인 소통에 있어서부터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관과 지역 활동가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구임에 불구하고 오히려 중간 절차가 복잡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역 활동가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해 주며 관과의 입장 차이를 원활히 조정해 줘야하지만, 지역 활동가 입장에서는 이중의 행정 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한 격이 되었다. 물론 대전문화연대의 긍정적인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전보다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쉽게 접할 수 기회가 생기고, 전문가들 역시 정기적으로 모여 원도심에 대해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 문화 활동가

들과 대전문화연대와의 입장으로 한정하여 충남도청이 ‘지역문화플랫폼’으로서 원도심의 중심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제안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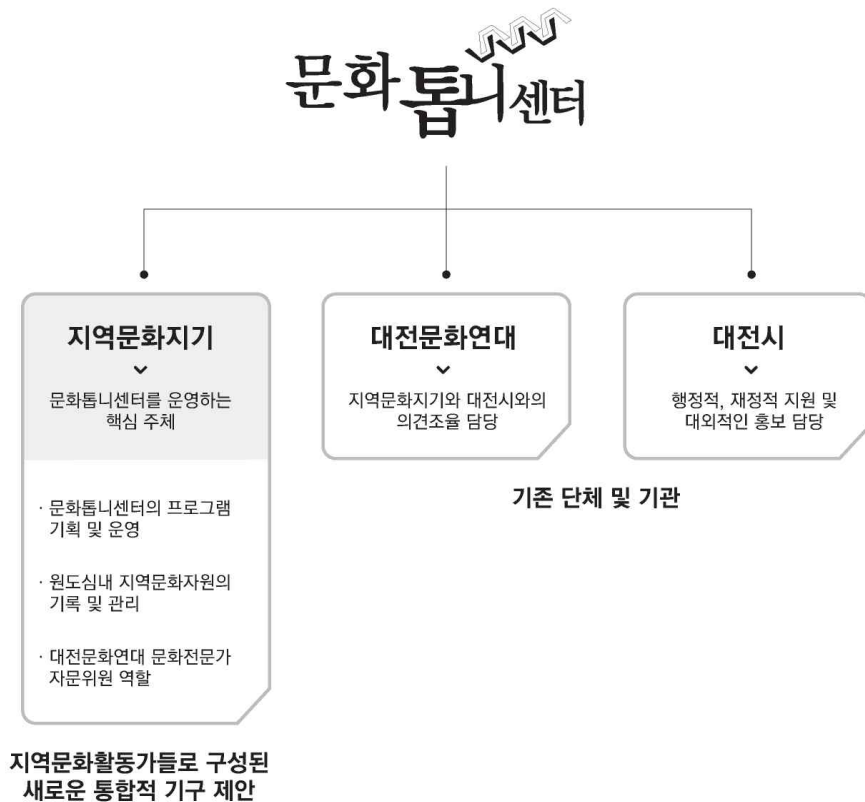


그림 4-26 충남도청의 새로운 운영 체계

문화톱니센터(충남도청)가 원도심 문화의 중심적인 ‘지역문화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대전문화연대와 대전시 이외에 지역 문화 활동가들로 구성된 통합적 기구인 ‘지역문화지기’를 제안한다. ‘지역문화지기’는 문화톱니센터(충남도청)를 운영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주체로서 현재 원도심 내에서 축제, 장터, 개별 전시회 등 직접 문화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기구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화톱니센터(충남도청)의 전반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자원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문화톱

니센터(충남도청)의 문화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대전 원도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문화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문화 자원에 대한 조사와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원도심 내 산재되어 있는 역사적, 전통적, 사회적 자원들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고, 기본적인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문화지기’는 원도심 내 지역문화자원을 관리하면서 이들을 엮어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두 번째 역할은 기존의 대전문화연대에 문화자문위원 자격으로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단발적인 교류로는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뜰니센터(충남도청)의 프로그램 관한 논의 뿐 아니라 정기적인 토론 자리를 통해 원도심과 대전시 전체의 문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전시와 문화적 절차 및 소통의 통로를 원활하게 조율한다.

‘지역문화지기’와 함께 ‘대전문화연대’, ‘대전시청’이 함께 문화뜰니센터(충남도청)의 운영에 참여한다. 운영에 관해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는 ‘지역문화지기’가 주체적 권리를 가지며, ‘대전문화연대’는 주체들 간의 의견 조율의 역할을 담당한다. 정기적인 ‘지역문화지기’와의 토론을 통해 대전시와의 원활한 의견 조율을 도모하고, 시민들과 ‘지역문화지기’와의 소통을 위해 공공에게 열린 턱이 없는 문화재단으로 역할을 재정립한다. 또한 ‘대전시청’은 행정적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외적인 홍보 및 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3) 지역 활성화 계획

대전 원도심은 신도심 개발과 물리적 노후화, 각종 공공기관의 이전 등으로 이미 쇠퇴하였고, 원도심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충남도청이 이전함에 따라 쇠퇴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 촉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특화거리지정,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지구 등 노력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를 포괄하는 패러다임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다시 지식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이동하고 있다. 성장 동력이 혁신에서 창의성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을 위해 물리적 환경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과 함께 충남도청의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 활용을 추진한다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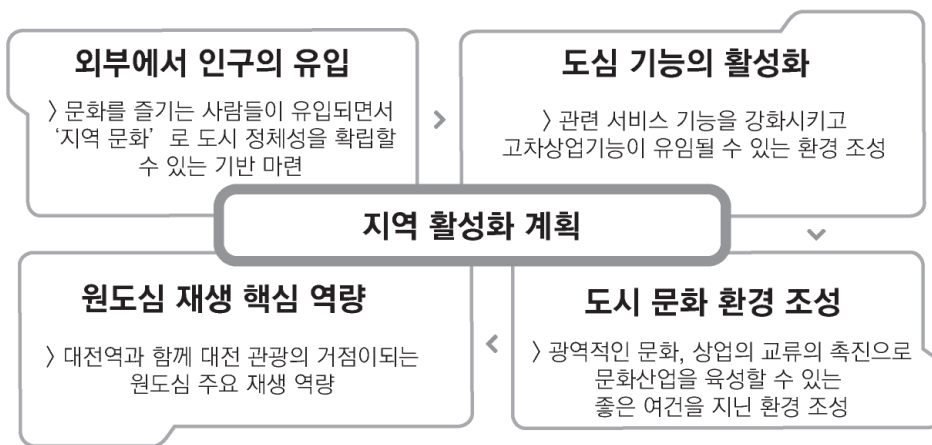


그림 4-27 지역 활성화 계획

충남도청을 지역 문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첫 번째, 인구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재생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문화로서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두 번째, 이는 도심기능의 활성화와 도심 환경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이끌어 낸다. 도시 기능의 증진은 문화 공간과 관련된 서비스 기능을 강화 시키고 고차상업기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문화 산업을 육성하는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낸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원도심을 성장 시킬 수 있는 주요 성장 동력으로 중앙로를 중심으로 대전역과 함께 광역적인 문화, 상업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대전 관광의 거점이 되는 원도심의 주요 문화 콘텐츠가 될 것이다.

제5장 결론

2012년 12월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으로 인해 대전 원도심은 산업,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도시 활동의 변화가 예상된다. 대전 원도심은 이미 오랜 시간동안 지역 경제 침체기와 산업의 쇠퇴,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을 겪으며 예전의 활력을 잃었고, 대전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논하기는 어려운 단계이다. 이러한 와중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활용이다. 이는 그만큼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활용이 원도심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중추적인 역할 할 것이라는 기대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도시재생은 문화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도시재생의 주요 매개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시대, 고령화 사회, 지식기반경제구조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 자원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문헌이나 기존의 보고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원 이외에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문화 활동, 내부적인 문화 네트워크, 문화 활동을 이끌고 있는 인적 자원 등 수면위로 드러나 있지 않은 잠재된 자원들을 발굴 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며 시행했던 문헌조사, 현장조사, 인터뷰의 과정들은 원도심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 자원들을 모두 발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 문화자원에 국한되어 기록되어 있거나, 문화 자원 기록의 체계화가 되어있지 않은 시점에서 원도심의 현황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현장성에 바탕을 둔 다양한 문화자원 분포도를 제안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표 5-1 연구의 한계점

<p>선행 연구</p> <p>국립박물관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초 연구 (2009)</p>	<p>-다양한 경우의 복합문화공간을 선정하여 활용 대안을 제시</p> <p>-활용대안에 따라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추정</p>
<p>본 연구</p> <p>대전 원도심내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문화적 활용 방안 및 계획 (2013)</p>	<p>-일차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안 이외에 기타 대안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p> <p>-대략적인 사업비나 사업 규모 등의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고려가 미흡</p>

앞서 제1장 서론에서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느 관점에서 차별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활용대안의 구체성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에 비해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박물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미술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창작공간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오감박물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과 같이 다양한 경우를 선정하여 활용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각의 활용대안에 따라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추정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을 위해 일차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안 이외에 기타 대안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제안하고 있는 계획안에 있어 대략적인 사업비나 사업 규모를 추정하는 등의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충남도청은 과거의 역사를 간직하고, 현재 역사를 공유하며, 앞으로의 미래도 함께 담아낼 대전의 대표적인 문화 자원이다. 오래된 도심인 대전의 대흥동, 은행선화동, 중앙동은 어르신들에게는 애뜻한 추억의 장소 이며, 젊은이들에게는 해묵

은 갤러리와 현대적 소극장이 어우러져 있는 문화 놀이터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직 우리 사회가 지역문화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발굴, 기록과 같이 문화 자원을 관리하는 체계와 제도가 많이 미흡함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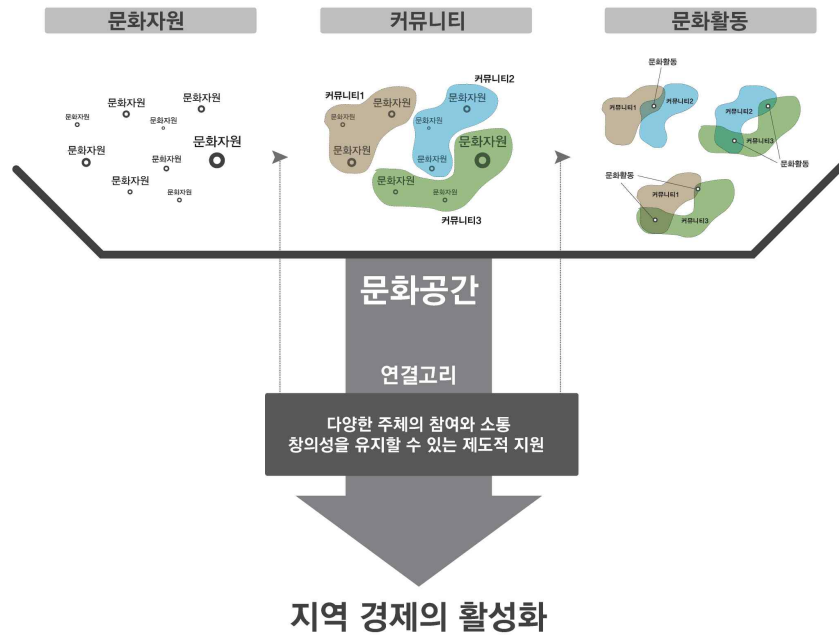


그림 5-1 문화공간의 역할

켜켜이 쌓여있는 도심의 흔적과 곳곳에 숨어있는 문화 자원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름만 앞세우는 문화공간의 활용은 지양 한다. 지역의 고유성과 문화를 담고 있는 ‘문화 자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 예상치 못한 ‘문화 활동’들이 파생되기도 한다. 문화 공간은 이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인 것이다. 그릇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쓰임과 가치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작업이 보편화 되고 그 자원들이 주요 콘텐츠로 작동하는 문화공간이 조성된다면 비로소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단행본 및 편집서

- 권영상, 심경미(2009). 『근대건축물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효정의 4인(2007).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효정(2010). 『충남도청 청사 활용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홍태(2009).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 대전발전연구원.
- 남치호(2007). 『문화자원과 지역정책』. 대왕사.
- 대전광역시(2004). 『대전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 대전광역시.
- 도코모도코리아(2009). 『충남도청사 그 이후』. 하나.
- 민범식, 이왕건(2012). 『문화자산을 활용한 타이베이의 도시재생』. 국토연구원.
- 박강아(2012). 『부활하는 도시의 비결, 도시재생』. 삼성경제연구소.
- 박상훈, 장동련(2009). 『홍대앞에서 런던까지 장소의 재탄생』. design house.
- 이왕건의 5인(2011).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임병호(2005).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심기능 회복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 전병태(2009). 『커뮤니티 아트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학위 논문 및 학술지

- 김관희(2008). 문화공간의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공간의 다변화 현황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민향(2010). 지역문화자원을 통한 축제 개발과 지역 활성화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유진(2009). 지역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청 리노베이션 활용방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정동, 이상희(2011).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대전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6(4): 11-20.
- 김정태(2009).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충남도청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지』, 34(2): 223-235.
- 김정호(2010). 근대 건축물 보존·활용을 통한 복합문화 공간계획 : 등록문화재 제 18호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혜천(2003). “도심공동화 문제의 이해와 도심재생의 접근방법,” 『한국도시행정학회지』, 16(2): 79-99.
- 설연수(2012).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전략 연구.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논문, 미간행.
- 우상균(2005). 리노베이션에 의한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전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부 건축계획 전공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보희(2008). 문화지구지정의 문화 및 장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학로 문화지구 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전홍년(2012). 지방대도시 도심재생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최보령(1993). 충남도청 본관의 轉用계획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축설계전공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인터넷 웹사이트

“인터넷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812933
(검색일 : 2012년 8월30일)

■ Abstract

**New Directions and Plans for Culturally Utilizing
the Site of Former ChungNam Province Hall,
in Association with the Existing Cultural Resources of the City Center of Daejeon**

EunSung Kim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t first, the old City Center of DaeJeon was developed around DaeJeon Station when the GyungBu railroad line was established in 1905. Since the railroad line stretches southward from the northern center of Seoul, DaeJeon has been expanded to the north and south along the railroad line. However, it was later developed along the west-east axis, so called the ChungAng-Ro road, after the ChungNam Province Hall moved from GongJu to DaeJeon in 1932. This change made the citizens of DaeJeon recognize ChungAng-ro as the main road of development, in terms of commercial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However, the DunSan area was newly emerged as a competitor, according to a new town development plan. The plan accelerated the movement of population, public institutions, and commercial facilities from the old City Center to the DunSan new town. Finally, the old City Center has been declined considerably as the most of public institutions moved to the new town.

In this regards, this thesis suggests plans for the cultural utilization of the former ChungNam Province Hall to revitalize the ailing old City Center of DaeJeon. Needless to say, the ChungNam Province Hall is a representative

cultural asset to adorn the future history as it did in the past. Therefore, the utilization plan for the former ChungNam Province Hall should consider cultural resources representing the region's inherent features of culture as well as physical usage of it. Due to this reason, this thesis mainly focuses on finding the regional cultural resources, and it is an opportunity to find out not only the heritage of modern age but also the traditional uniqueness of the regional culture. The plans in this thesis shows that the former ChungNam Province Hall is able to be an intermediary among cultural resources by utilizing the space for the culture-based activities. More specifically, the space needs to be a 'Regional Culture Platform', which means the place helps the citizen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regional cultural activities so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are enhanced. The newly launched culture platform will provide many opportunities for consumers to interact with producers of the cultural resources freely beyond the original complicated process of communication.

Recent urban restoration is being changed to use diverse cultural assets. It is true that cultural imagination and creativity is regarded as the key triggers for urban restoration and to satisfy people's reason and sensibility. Thus, culture-based urban restoration encourages the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activities so that their city can revitalize through its inherent cultural resources. In this sense, the former ChungNam Province Hall needs to aim at 'Regional Culture Platform.'

.....

Key words : ChungNam Province Hall, Cultural Resources, Urban Restoration
Student Number : 2011-22342